

제1권  
            
역사

# 1 선사시대, 양주 땅에 나타난 사람들

1. 떼고 다듬은 돌이 만든 석기시대
2. 석임이 만든 청동기시대

# 2 삼한부터 통일신라까지, 양주지역을 둘러싼 쟁탈

1. 삼한 시대와 양주지역
2. 양주지역을 둘러싼 삼국의 쟁탈
3. 삼국통일의 마침표, 매소성 전투
4. 통일신라와 양주지역

# 3 고려시대, 양주라는 이름을 얻고 역사의 중심에 서다!

1. 양주라는 이름을 얻다
2. 고려의 건국과 양주의 변화
3. 행정체제의 변화
4. 고려 삼경의 하나인 남경이 된 양주
5.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량, 양주
6. 남경 천도와 도참사상
7. 양주를 향한 고려 왕실의 지극한 관심
8. 외적의 침입
9. 경기 내 양주
10. 역사의 전면에 서다

# 4 조선시대, 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

1. 조선 건국과 '양주목' 설치
2. 왕실의 지원을 받은 회암사
3. '의적' 임꺽정의 탄생과 양주
4.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능침지역
5. 임진년 왜군과 맞서다
6. 병자호란 이후 도성 방위와 흥복산
7.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양주의 변화
8. 개항과 산업사회로의 진입
9. 양주의 의병운동

# 5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며 자강에 눈 뜨다

1. 지방 제도 개편
2. 양주의 항일운동
3. 일제강점기, 양주 사회의 변화

# 6 현대, 대양주에서 도농복합도시로

1. 해방과 한국전쟁
2. 양주의 행정변화
3. 양주의 새마을 운동
4. 현대, 양주 사회의 변화

# 구석기부터

---

# - 현대까지

---

- 1 선사시대, 양주 땅에 나타난 사람들
- 2 삼한부터 통일신라까지, 양주지역을 둘러싼 쟁탈
- 3 고려시대, 양주라는 이름을 얻고 역사의 중심에 서다!
- 4 조선시대, 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
- 5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며 자강에 눈 뜨다
- 6 현대, 대양주에서 도농복합도시로

# 1

## 양주 땅에 나타난 사람들: 선사시대

### 1. 떼고 다듬은 돌이 만든 석기시대

양주지역에서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양주지역이 사람이 살기에 매우 유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풍부한 수량을 지닌 강과 넓은 평야를 품고 있어 예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땅이었다.

사실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처음 등장한 것은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따르면 침팬지와 갈라진 700만 년 전쯤이다. 그 이후 인류는 네안데르탈인 등 여러 종의 인류를 거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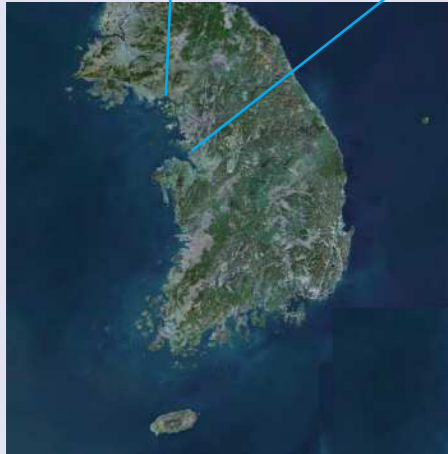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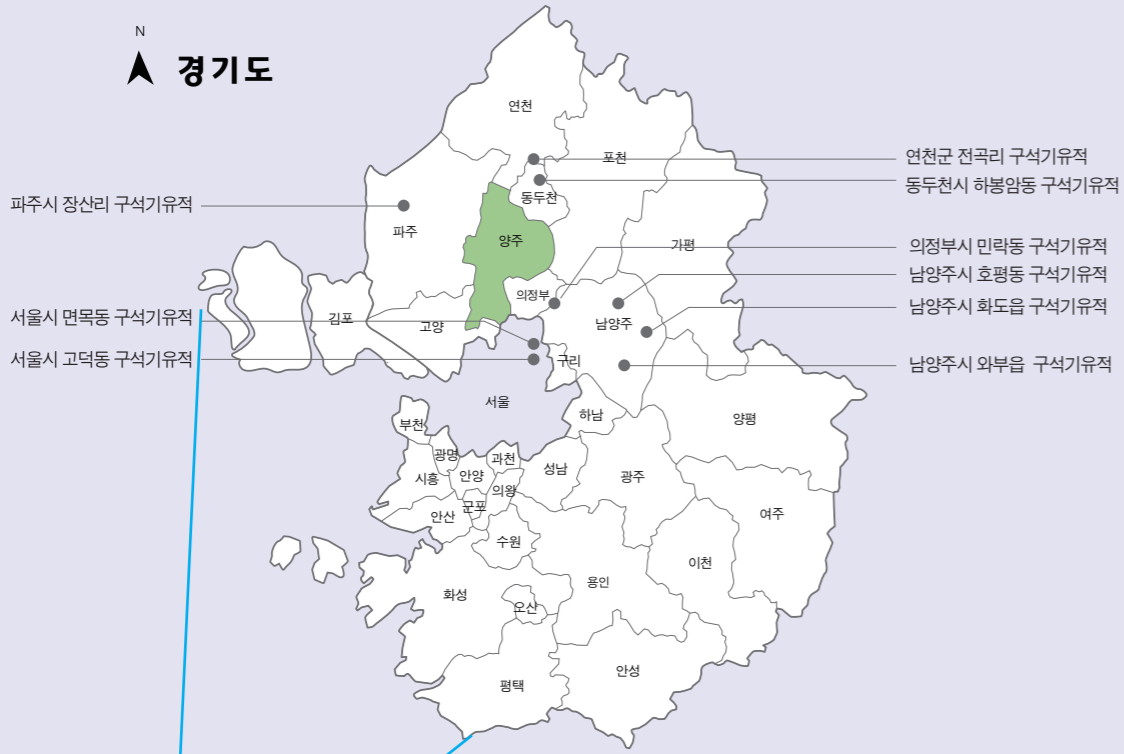
이렇게 각각의 인류가 지닌 특성을 구분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는 방법

외에 '3시기법' 이라고 불리는, 인류가 사용한 도구의 재료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기도 한다. 3시기는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가 그것이다.

석기시대는 다시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거나 중석기를 포함해 3시대로 나누기도 한다. 석기의 시대구분은 채집경제 단계와 농경 단계로 구분한다. 따라서 채집에 사용되는 구석기시대의 뿔석기와 농경에 사용되는 신석기시대의 간석기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 출토된다. 뿔석기는 돌을 깨고 떼어 사냥과 가공에 필요한 도구인 몸돌과 격지로 가공한 것이고, 간석기는 돌을 갈고 다듬어서 쟁이, 삽, 도끼 등 농경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 또는 갈돌처럼 곡물을 가공하는 데 적합한 용도로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지로 양주지역과 등을 맞대고 있는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를 들 수 있다. 현재 전곡리에는 그곳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을 토대로 삼아 세워진 전곡선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전곡리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다량 출토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현재의 양주시 관내에서는 은현면 용암리에서 다각면원구(多角面圓球)와 굽개 등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석기시대의 유적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옛 양주의 북부인 전곡리와 동두천시 하봉암동, 남부인 의정부시 민락동, 서울 북부의 면목동, 그리고 1980년까지는 양주군에 속했던 남양주시의 화도읍 검터, 와부읍 송촌리·진중리·능내리, 호평동 등에서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양주지역은 한반도의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구석기 유적을 가지고 있다.



양주시 주변의 구석기 유적 현황

이들 양주지역의 구석기는 개마고원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양양, 화천을 거쳐 북한강 줄기를 타고 이동해 와 포천 늘거리, 포천시 어룡동과 일동면 화대리,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그리고 의정부 민락동에 이르는 흑요석 문화와 한탄강 유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전곡, 동두천에서 연천 원당리, 파주 가월리, 주월리로 확산한 강자갈 문화로 크게 구분되는데, 현재의 양주시 지역은 이 두 개의 구석기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 되고 있어 이후 더욱 다양한 구석기 유적지의 발견이 기대되고 있다

양주지역의 신석기시대 유물이나 유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으나 옛 양주 권인 연천의 횡산리와 삼거리, 의정부시의 용현동, 동두천시의 송내동과 결산동 등지에서 신석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양주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서울 암사동에서 우리나라 신석기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와 집터, 마을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양주에도 신석기인이 살았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현재의 양주시 지역에서 신석기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양주의 지리적 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63년 옛 대양주권에 의정부시가 분리된 이래 동두천, 남양주, 구리가 각각 시로 승격하여 이탈하고, 이어 옛 양주 노해면 일대를 위시하여 서울의 강북 지역이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그리고 광진구와 잠실 등이 양주에서 이탈하며 남은 양주에는 강(江)은 커녕 대천(大川)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의 하천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선사시대의 농경은 지금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모두 하천 유역을 배경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규모 있는 하천을 소유하지 못한 양주지역에서는 신석기 유적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석기시대를 상징하는 기본 유물은 곡식을 저장하는 토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신석기 토기를 대표하는 것은 빗살무늬 토기이며, 밑부분이 뾰족한 이른바 첨저형(尖底型)이다. 이는 신석기인들이 하천 변 모래밭에



서 생활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로써 하천이 없는 현재의 양주지역에서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2. 석임이 만든 청동기시대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구리에 주석 10% 이상이 섞인 합금이다. 주석 외에 아연을 많이 섞기도 하는데, 어쨌든 청동은 인류가 처음 본격적으로 도구로 활용했던 금속이다. 이렇게 금속을 섞어서 합금한 이유는 강하고 단단한 금속을 얻기 위함이다. 청동기시대는 이 청동을 주로 사용하여 문명을 꽃피운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동기는 한편으로 지배 계급이 출현하고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서 청동으로 만든 검(동검)이나 거울(동경) 등의 유물 외에도 고인돌이나 선돌과 같은 유적이 지배 계급을 드러내는, 그래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고인돌은 족장과 같은 지배 계급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세계의 고인돌 가운데 50% 이상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양주지역에서는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적인 고인돌이 8곳, 선돌이 2곳, 유물이 발견된 곳이 5곳 확인되었다. 고인돌부터 살펴보자.

고인돌과 관련해 먼저 확인할 사항은 양주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모두 개석식 고인돌이라는 점이다. 개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뚜껑을 덮은 형식의 고인돌을 가리키며 지역 구분에 따르면 남방계에 속한다. 이는 인접한 지역인 포천, 연천, 강화 등에서 탁자식(북방식) 고인돌이 다수 발견된 것과 다른 흐름이다. 동두천을 포함한 양주지역에서 개석식 고인돌이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이 남방과 북방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즉 개석식(남방식) 고인돌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경계를 한강, 임진강으로 잡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 ①탁자식(강화 부근리 고인돌), ②기반식(고창 죽림리 고인돌), ③위석식(창녕 유리 고인돌), ④개석식(대전 비래동 고인돌)

으면 이 경계의 북방한계가 바로 동두천을 포함한 양주지역이다.

양주지역의 고인돌은 옥정동, 유양동(2기), 마전동(2기), 만송동(3기), 광사동, 은현면 선암리, 은현면 하패리(2기), 남면 한산리 등 8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선돌은 옥정동에 150m의 거리를 두고 2기가 발견되고 있다.

한편 은현면 용암리에서는 무늬 없는 토기 조각 2점이 발견되었고, 은현면 하패리에서는 간석기 화살촉 1점과 토기 저부편(底部片) 2점이 발견되었다. 또 광적면 가남리에서는 점토대 토기 조각과 연결 토기 조각 등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광적면 덕도리에서도 무늬 없는 토기 조각 3점이 발견되었다. 남면 신산리에서는 고려의 토기 조각과 함께 청동기 토기 조





양주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들과 선돌 ①옥정동 고인돌, ②유양동 고인돌, ③마전동 고인돌, ④만송동 고인돌, ⑤광사동 고인돌, ⑥은현면 선암리 고인돌, ⑦은현면 하패리 고인돌, ⑧남면 한산리 고인돌, ⑨옥정동 선돌 → 전체 사진 교체 예정

각들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양주지역 곳곳에 청동기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동기문화는 정치적인 지배계급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들 양주의 청동기 유적들을 마한의 부족국가, 그리고 그 마한과 대립하였던 영서말갈(嶺西靺鞨), 나아가서는 한성백제 초기 유력한 군사 세력이며 왕비족이었던 북부 진씨(眞氏) 세력 등의 고고학적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철기시대이다. 고고학에서 흔히 기원전 300년경부터 삼국이 정립된 서기 300년경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삼국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기원전 전후까지를 초기 철기시대로 그 이후를 원삼국시대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를 통합해서 삼한 시대라고 부른다.

# 2

## 양주지역을 둘러싼 쟁탈: 삼한부터 통일신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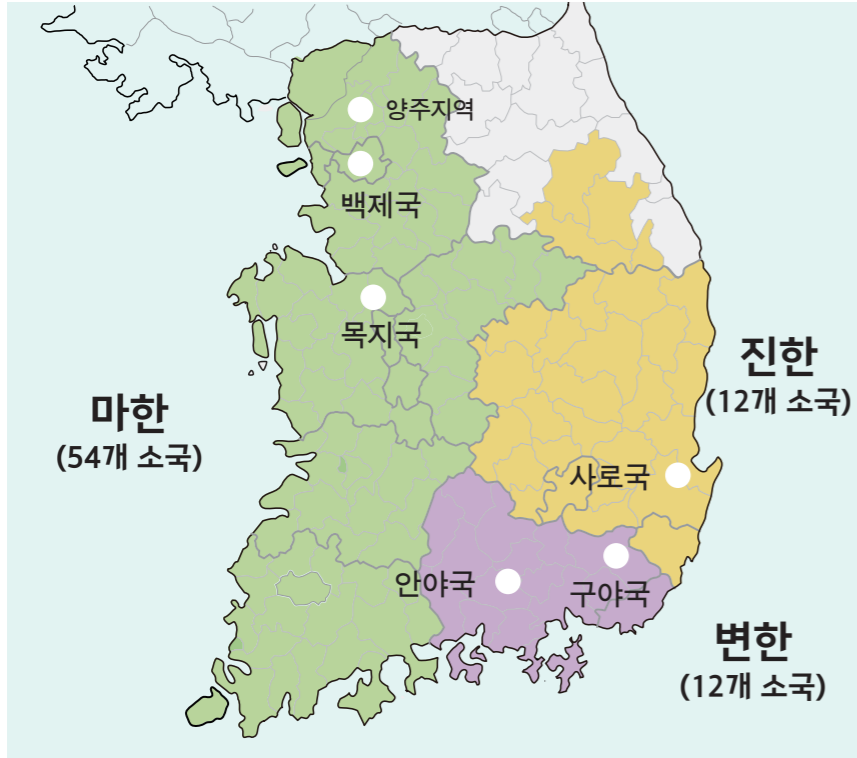
### 1. 삼한 시대와 양주지역

양주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 그 사실은 양주지역에서 발굴된 여러 유적이 증명한다. 그러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유적이 아닌 기록으로 확인하려면 삼한 시대로 내려와야 한다.

삼한(三韓)은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고구려·백제·신라가 이끌었던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이전 한반도 중남부에 형성되어 있던 정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삼한이라는 이름은 마한·진한·변한이라는 세 집단에서 유래했다.

현재 삼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에서 전해지는 문헌인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다. 그에 따르면 마한이 54소국, 진한과 변한이 각





삼한의 영역과 임진강 및 한강에 인접한 양주지역

각 12소국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규모는 큰 나라의 경우 4,000~5,000호(집) 정도이며 작은 나라는 600~700호 정도였다고 전한다. 오늘날의 양주지역은 삼한 가운데 마한에 속했다.

마한은 지금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에 있는 54개의 부족국가로 구성된 연맹체였다. 오늘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양주지역에도 마한의 부족 국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양주지역이 지리적으로 사람이 모여 살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과거 고대 국가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물이 흐르는 강이었다. 식수와 운송 등 강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에 꼭 필요했다. 그런데 양주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이라는 거대한 두 강 사이에 자리해 있었기에

강을 경계로 삼아서 부족국가가 형성하고 발전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배경을 지녔다.

그렇다면 양주지역에 마한의 어떤 부족국가가 존재했을까? 마한의 54개 부족국가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주목을 받는 나라는 고리국(古離國)이었다. 그것은 ‘고리’라는 이름 때문이다. 지역의 이름, 즉 지명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를 배경으로 생겨난다는 점에서 지명을 활용한 추정은 신빙성이 높은 편이다. 즉 고리라는 이름에 대해 고구려가 양주지역을 지배했을 때 사용한 행정지명인 골의노현(骨衣奴縣)의 ‘골의’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과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기록된 백제로부터 빼앗은 성의 이름 가운데 고리성(古利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양주지역에 위치한 마한의 국가를 고리국으로 추정할 근거는 이와 같은 후대의 유사 지명이었을 뿐 문헌이나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 양주지역에서 마한의 다른 부족국가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모수국(牟水國)이 바로 그것으로, 이 또한 ‘모수’라는 이름을 통한 추정에 의한 것이다. 과거 고구려가 양주지역을 지배했을 때 양주지역의 행정지명 가운데 하나가 매성현(買省縣)이었고, 이 둘의 발음이 유사한 것에서 판단한 추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고대 지명인 매성과 모수를 현대 소리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성을 추론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한편, 근래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낙랑군이 마한을 분할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신분고국이 대방군의 기리영을 공격하여 대방군, 낙랑군의 연합세력과 전투를 벌여 낙랑태수 최준이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국사학계의 정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대방군은 임진강을 경계로 마한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기리영을 공격한 마한의 신분고국은 임진강 남안, 지금의 양주와 파주지역에 있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로

써 양주 일대를 지배하였던 마한의 국가는 한(漢)의 군현과 당당히 맞섰던 신분고국(臣濱沽國)으로 추정된다.

이 마한의 땅에 속한 양주지역에서 백제가 건국되고 성장했다. 당시 마한은 말갈 세력과 갈등하고 있었고, 이를 제압할 목적으로 북부의 영토를 떼어주어 백제를 건국하도록 도왔다. 초기 백제는 포로로 잡은 말갈의 추장을 마한으로 호송하거나 사슴을 잡아서 마한의 왕에게 진상하는 등 마한의 세력 내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결국 마한을 제압하고 양주지역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삼국시대가 전개되면서 한강 유역을 비롯한 양주지역은 삼국의 뜨거운 시선을 받게 된다. 그것은 지리적인 이점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주요 지역이었고, 선진 문물을 지닌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지역을 지배한 세력이 번영을 누렸다. 이 때문에 마한에서 백제의 영토가 된 양주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치열한 영토 쟁탈전의 무대가 되었다.

## 2. 양주지역을 둘러싼 삼국의 쟁탈

### 1) 백제의 북방진출과 양주지역

백제는 북쪽에서 이주해 온 세력으로 마한 내에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했다. 고려 때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마한은 온조가 지배하는 백제에 병합되어 멸망하고 말았다. 마한이 몰락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마한의 뒤를 이어 백제가 양주지역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백제는 앞서 지적한 지리적인 이점을 잘 활용해 중국과의 교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전략적 요충지의 성격을 지닌 양주지역을 토대로 낙랑, 말갈 등을 제압하며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결국 4세기 무렵에는 낙랑, 대방 등 한 군현 세력을 축출하며 남쪽으로 진출해온 고구려와 충돌하게 된다.

고구려는 313년에 낙랑국을 정복하고 이어 대방군도 통합하여 백제의 북부지역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다. 일설에 낙랑은 고구려가, 대방은 백제가 통합하였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이로써 북쪽으로 확장하던 백제 세력과 남쪽으로 남하하던 고구려 세력이 맞섰고 충돌은 불가피했다.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은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고국원왕 29년에 백제의 북쪽 지역을 공략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다.

고구려의 세력 확장과정에서 백제와 맞닥뜨린 내용을 기록한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좌)와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우)



○ 39년 가을 9월 (고국원)왕이 2만의 병력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치양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三十九年 秋九月 王以兵二萬 南伐百濟 戰於雉壤 敗績(『삼국사기』 권 18 고구려본기)

○ 24년 가을 9월 고구려왕 사유가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주둔하였다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 帥步騎二萬, 來屯 雉壤(『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즉 고국원왕 39년 가을 9월에 왕이 병사 2만 명을 보내서 남쪽에 있는 백제를 공격했으나 치양에서 싸우다 패하였다는 내용이다. 백제본기에는 고구려 고국원왕의 이름이 사유이며 적 5,000명을 죽이고 노획한 물품을 장병에게 나눠주었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이후 몇 년 동안 오늘날의 예성강 주변에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여러 차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그리고 371년 백제와 고구려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 내용이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41년 겨울 10월 백제왕이 3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하니 왕이 군사를 거느려 맞아 싸우다가 화살을 맞았다.

四十一年 冬十月 百濟王帥兵三萬 來攻平壤城 王出師拒之 爲流矢所中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 16년 고구려가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는 말을 왕이 듣고 패하의 상류에 군대를 숨겼다가 이르기를 기다려 급히 치니 고구려 병사가

패하였다. 겨울에 왕과 태자가 정병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 평양성을 공격하니 고구려왕 사유가 맞아 힘써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二十六年,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湏河上, 俟其至, 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그러니까 고구려 고국원왕 41년(371년) 겨울 10월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3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고, 여기에 맞서 싸우던 고국원왕이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다. 백제의 기록에는 위의 사실에 더해서 먼저 고구려의 공격이 있었고 겨울에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좌)와 『삼국사기』 권 24 백제본기(우)





격했다고 나온다.

고국원왕의 전사는 고구려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샀고 이후 백제와 고구려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백제의 영토는 북쪽으로 오늘날의 황해도 신계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 백제의 태자인 근구수가 신계의 서북지역까지 가서 돌을 쌓은 것은 국경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임진강 아래에 있는 양주지역은 북방진출을 위한 교두보 즉 후방에서 식량 등을 지원하는 병참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신왕 때 왕이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오늘날의 개성 주변인 청목령으로 진격했으나 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얼어 죽는 병사가 나오자 군대를 회군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회군한 곳이 한산성 즉 북한산성이었다. 아신왕은 이곳으로 군사를 물린 뒤 병사들을 위로했다고 전한다. 이는 양주지역에 속해 있던 북한산성이 후방의 병참기지 역할이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백제가 점유하고 있던 양주지역이 잠시 고구려의 영토에 속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때의 일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따르면 396년에 백제를 공략해 빼앗은 성 가운데 양주지역으로 추정되는 고리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리성을 양주지역에 속한 풍양현(豐壤縣)의 옛 이름인 골의노현(骨衣奴縣)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고,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한강을 건너 하남위례성을 압박하니 백제왕이 항복하였다는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면 양주지역 전체가 함락되었으나 백제의 왕제와 대신 등을 볼모로 하여 광개토대왕이 철수하면서 고구려의 양주 지배는 잠시 유보되었다.

백제 개로왕 15년(469년)에 개성 부근의 청목령에 목책을 설치했으며 북한산성에 있는 병사를 보내 그곳을 지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광개토대왕의 백제정벌 이후인 5세기 중엽에도 양주지역은 백제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목령이 국경선이었다면 예성강 주변까지 백제의 영토로 보아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양주지역은 당연히 백제의 영토였다.

백제의 영토였던 양주지역이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개로왕이 전사한 이후의 일이다. 개로왕은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해 청목령에 목책을 설치하는 한편 중국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를 알게 된 고구려는 분노했다.

고구려는 먼저 승려 도림을 보내 개로왕이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보다 궁궐의 보수와 같은 토목 공사를 하게 만들어 국력을 탕진하게 한 다음 475년 장수왕이 3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는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포로가 되어 살해되면서 멸망하였으며, 왕자 문주가 남은 세력을 이끌고 웅진으로 옮겨가면서 양주지역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

## 2) 고구려의 남하와 양주지역

기원 전후로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 지방을 무대로 발전한 고대 국가인 고구려는 4세기가 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고구려 고국원왕 12년(342년)에 선비족이 세운 전연이 고구려를 침략해서 환도성을 무너뜨렸고 궁궐을 불살랐으며 왕모와 왕비가 포로로 잡혔다.

고구려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연은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의 능을 발굴하고 5만여 명의 남자와 여자를 포로로 삼았다. 고구려는 이때의 충격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수도를 옮겨야 했다.

여기에 더해 백제와의 충돌도 발생했다. 고구려는 한의 군현인 낙랑과 대방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아래에 있던 백제와 직접 맞닥뜨리게 되어 고국원왕 39년(369년) 백제의 북쪽 지역을 공략하면서 백제의 반격으로 고



국원왕이 전사하게 된다.

이후 고구려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고국원왕의 뒤를 이은 소수림왕은 고구려에 능욕을 안겨주었던 전연을 무너뜨린 전진과 교류를 하면서 선진 제도와 앞선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성과는 국가 이념으로 삼을 수 있는 불교의 전래와 국립학교인 태학의 설립, 율령의 반포를 꼽을 수 있다. 한편 내부적으로도 국가의 건국 신화와 왕실의 계보를 확립해 왕권의 강화를 도모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구려는 비로소 고대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개혁을 통해 내부적으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며 힘을 축적한 고구려는 4세기 말에 그 힘을 폭발시켰다. 즉 391년 광개토대왕이 즉위했고 내부에 쏟았던 시선을 외부로 향했다. 광개토대왕은 서쪽에 있는 요동평야를 둘러싼 쟁패에서 후연을 격파하고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고, 백제와 신라가 있는 남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광개토대왕은 왕으로 즉위한 그해에 백제를 공략했다.

○ 秋七月 南伐百濟 拔十城. 九月(『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즉 가을 7월에 남으로 백제를 정벌해서 10성을 함락했다는 내용이다. 이때 동원한 군사는 4만여 명에 이른다. 이때 10개의 성은 석현성을 비롯해 한강 이북에 속한 곳이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이 내용에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해 함락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관미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고 바닷물로 에워싸인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나 군사를 일곱으로 나누어 20일 만에 함락했다고 전한다. 이 관미성은 강화도 등 여러 주장이 있으나 오늘날

파주에 속한 오두산성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관미성의 함락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이듬해부터 394년까지 북방에 군사력을 집중했고 상대적으로 남쪽의 백제에 대해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했다. 한편 백제는 급사한 진사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신왕을 중심으로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의 땅을 되찾기 위해 반격을 준비했다. 그 결의를 보여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關彌城者 我北鄙之襟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삼국사기』 백제본기)

즉 “관미성은 우리 북쪽 변경의 요충지다. 지금 고구려가 가진 바 되었으니, 이는 과인이 분하고 슬퍼하는 바로,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설욕하라!” 라는 내용이다. 명을 받은 진무는 1만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관미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다음 해(393년)에 아신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자 광개토대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수곡성 밑에서 전투를 벌여 백제를 격퇴했다. 394년에도 백제는 군대를 일으켰으나 약 8,000명의 병사를 잃고 패퇴했다. 이렇게 백제는 매년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의 손에 넘어간 한강 이북의 땅을 되찾으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고도 수비에 치중하던 광개토대왕은 396년에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로와 육로 양쪽에서 공격을 진행해 아단성, 미추성 등 수십 개의 성을 함락했고 수도까지 압박했다. 이때 함락된 백제의 성은 모두 58개에 이르렀다.

백제의 아신왕은 끈질기게 항전했으나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광개토대왕은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을 볼모로 삼아 수도인 국내성으로 돌아갔

다. 이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다툼은 막을 내린 듯이 보였다. 하지만 아신왕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끈덕지게 달라붙어 한강 이북에서 개성까지의 땅을 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양주지역은 다시 백제의 땅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의 양주지역 탈환은 자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남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천도했다. 이는 백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

장수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로왕이 중국의 북위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드러내고 475년 백제를 공략했다. 이때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함락되었고 개로왕은 참수되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남방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구려의 군대는 오늘날의 아산만까지 영토를 확보했고 전라북도 남원까지 출몰할 정도로 백제의 땅 곳곳을 유린했다.

백제는 오늘날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강 유역을 포함한 양주지역은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남양만에서 조령과 죽령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

고구려는 양주지역과 한강 유역을 점령한 다음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남평양이라는 임시 수도를 설치했다. 그것은 이 지역이 한반도의 중심에 있어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하고 비옥한 농경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백제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남쪽에 있는 평양’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평양은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지역으로 수도인 평양성과 과거의 수도였던 국내성과 함께 고구려 3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남평양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산성이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남평양과 유사한 사례가 국원성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남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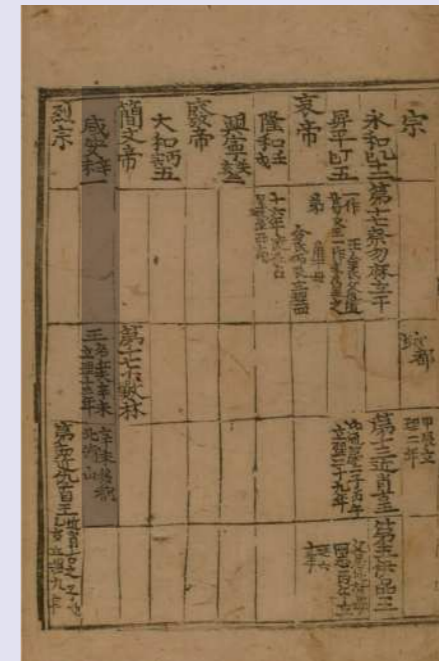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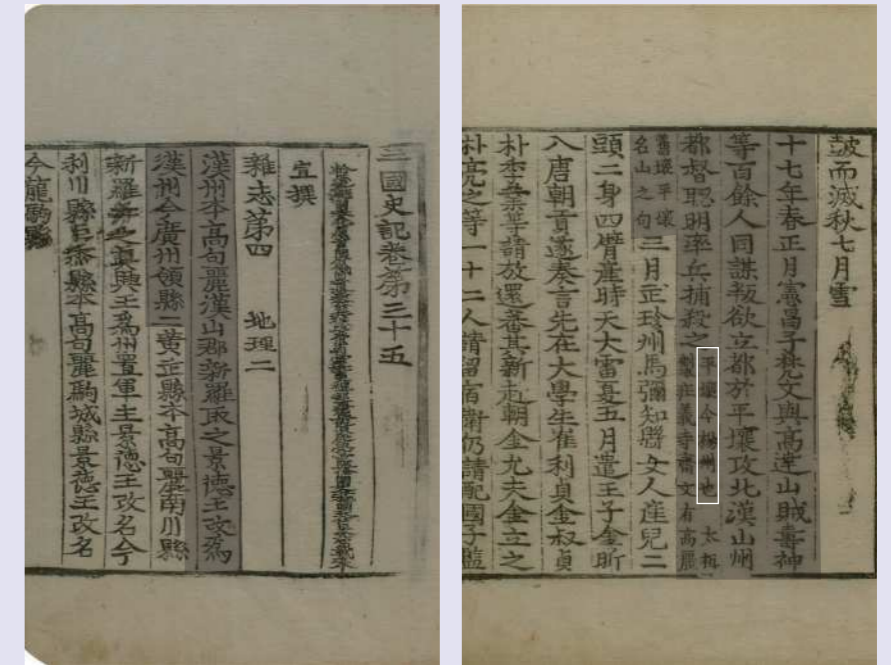


이다. 국원성은 고구려가 소백산맥 이남으로 진출하기 위해 자기들이 점유한 백제지역 가운데 전략적인 요충지의 하나인 충주지역에 수도였던 국내성과 유사한 이름인 국원성을 별도로 설치하였다.

남평양 즉 북한산성이 양주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문헌 : 한양군은 원래 고구려의 북한산군(평양이라도 한다)인데 진흥왕이 주(州)로 삼고 군주를 두었다. 경덕왕이 개명하였으니 지금 양주의 옛터로 영현이 둘이다(『삼국사기』 권35 지리지).
- 둘째 문헌 : 17년 정월 현창의 아들 범문이 고달산의 도적 수신 등 100여 명과 함께 모반하였다, 그들은 평양에 도읍을 세우기 위해 북한산주를 공격해왔다. 도독 총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잡아 처형하였다. 평양은 지금의 양주인데 태조가 지은 장의사 재문에 ‘고려의 옛 땅이요 평양 명산’이라는 글귀가 있다(『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7년 조).
- 셋째 문헌 : 근초고왕 때인 함안 원년(371)에 이르러 고구려 남평양을 빼앗아 북한성(지금의 양주)으로 도읍을 옮겨 105년을 지냈다(『삼국유사』 기이편).

그렇다면 남평양은 과연 양주지역의 어느 성이였는지가 의문의 대상이 된다. 아마도 현재의 북한산성 내에 있는 중흥동고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앞에서 제시한 첫째 문헌에서는 남평양과 북한성을 묶어서 기술했고, 둘째 문헌에서는 평양으로 불렀던 고구려의 북한산군이 왕성으로 기능할 정도로 큰 성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셋째 문헌에서 고려의 태조



남평양(북한산성)이 양주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헌 기록들. 왼쪽부터 『삼국사기』 권35 지리지, 『삼국사기』 권10 헌덕왕 17년 조, 『삼국유사』 기이편

가 지은 장의사 재문에서 장의사가 있었던 성곽이 북한산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구려는 북한산성을 남평양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한강 유역을 통치했고, 북한산성 내에 골의노현과 우왕현을 예속시켰다. 골의노현은 현재의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이며 우왕현은 고양시 일대로 양주지역에서 보면 양쪽의 날개와 같은 형국이다.

고구려는 양주지역에 매성현을 설치한다. 매성현의 구체적인 범위와 읍격은 명확하지 않다. 단 매성(買省)은 매초성(買肖城), 일명 매소성 등의 지명은 모두 고구려어로 물, 하천, 강을 의미하는 “매”와 축음 사이시옷 초(肖)로 표기되어 이는 “물가”, “강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매성현은 임진강, 한탄강 유역과 한강 북한 사이의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 행정명으로 이해된다.

신천을 따라 형성된 동두천의 고구려시대 지명이 내이미인데, 이는 모래를 뜻하는 “내이”와 역시 하천을 의미하는 고구려어 “매. 미”의 합성어로 모래가 많은 하천을 뜻하고, 이에 걸맞게 한자어로는 “사천(沙川)”으로 번역돼 사용되어 역시 매성과 일맥이 상통하는 지명이다. 이로써 매성현은 고려의 견주, 조선의 양주 영역인 지금의 양주, 의정부, 동두천, 차탄천 이하의 연천, 동부 파주 등의 임진강, 한탄강 유역과 구리, 남양주, 광진 등의 한강 유역, 그리고 노원, 도봉, 중랑, 강북 등 중랑천 유역 등 하천과 강을 낀 지역으로 확인된다.

고구려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촘촘한 관방시설을 설치한다. 임진강을 무장한 채 도보로 도강할 수 있는 호로나루를 관장할 호로고루와 당포성을 쌓고 이에 대응하는 본래 백제성이었던 칠중성에서 감악산을 넘어 양주지역으로 이어지는 장단로를 따라 도락산, 불곡산, 의정부지역 사패산의 대소 보루(성)들을 구축한다, 동시에 한탄강을 도보로 건널 수 있는 대탄 여울을 중심으로 은대리, 전곡리의 토성과 이에서 삼방로를 따라 대전리, 초성리산성과 큰 테미, 작은 테미, 독바위, 천보산 보루를 구축하여

두 도로가 만나면 이어 한강 도하선인 광진나루를 향해 용마산, 아차산 보루를 지나 아차산성과 구의동 보루로 이어진다. 이들 관방시설 중에는 칠중성, 대모산성, 독바위 보루들처럼 처음에는 백제가 설치한 시설들을 고구려가 장악하여 다시 활용한 경우도 있다.

이후 양주지역의 고구려 점유는 6세기 중반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에 맞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복구하는 6세기 중반까지 계속된다.

### 3)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양주지역

신라는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한강 유역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힘든 한반도의 동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체제의 정비와 성장이 늦었던 탓이다. 한편 백제와 일본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신라는 당시 백제와 적대관계에 있던 고구려와 손을 잡았다. 내물왕 때 왜군이 신라를 침략하자 고구려에 원군을 청해서 물리친 것은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신라는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원조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다. 당시 신라에는 불교가 이미 전래됐으나 토착 귀족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런데 법흥왕이 527년 이차돈의 순교를 빌미로 해서 이듬해에 불교를 국교로 정하고 왕권의 강화를 도모했다.

이렇게 힘을 키운 신라는 자기들의 앞길을 제한하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백제와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에 대항했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했을 때 원군을 파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신라가 고대국가가 갖추어야 할 체제를 완비한 것은 법흥왕(재위 514~540) 때이고, 대외적으로 크게 발전시킨 것은 진흥왕(재위 540~576) 때의 일이다.



진흥왕은 과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했던 것처럼 내부에 축적된 힘을 활용해 활발하게 영토 확장을 펼쳤고 큰 성과를 얻었다. 실제로 진흥왕은 정복 활동을 통해 즉위 때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영토를 확보했다. 그 증거로 곳곳에 남겨진 진흥왕 순수비를 들 수 있다. 순수비는 왕이 ‘영토 내를 살피고 다니며 세운 비석’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함경남도에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비롯하여 양주 북한산의 북한산비, 경남 창녕의 창녕순수비 등 4개가 남아 있다. 일부에서는 옛 양주지역 감악산 정상에 몰자비 역시 진흥왕의 순수비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런 정복 활동은 훗날 신라가 삼국 쟁패의 최종 승리자로 올라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진흥왕은 한성백제의 옛 영역 회복을 꿈꾸던 성왕과 손을 잡고 공동작전을 펼쳐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공략했다. 그 결과로 신라는 한강 상류의 10군을 점유했고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백제는 고구려에 넘겨주었던 양주지역을 탈환할 수 있었다.

백제의 성왕은 진흥왕에게 그 기세를 타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까지 진격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진흥왕은 고구려가 내민 화친 제안을 받아들였다. 신라가 백제와 손을 잡고 한강 유역을 공략한 사건은 고구려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고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백제는 옛 땅의 회복이라는 성취감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2년 후에 진흥왕이 이끄는 신라군은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가 회복한 옛 땅을 공격했다. 백제의 허를 찌른 신라는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 일대를 모두 차지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淦武力爲軍主(『삼국사기』 진흥왕본기)

즉 진흥왕 14년 가을 7월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얻고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삼국사기』의 백제 성왕 본기에도 같은 기록이 나온다.

백제는 이러한 배신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며 패배했다. 이를 기점으로 120년 동안 이어졌던 신라와 백제가 맺은 나제동맹이 무너졌다. 이후 백제의 주된 적은 고구려에서 신라로 바뀌었고, 이후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했다.

이처럼 신라는 양주지역을 비롯한 한강 유역을 확보하여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서해를 거쳐 직접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로를 획득하였고, 한강 유역을 근거로 동북쪽으로 강원도 함경도 지역의 동예와 옥저 땅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로써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진흥왕은 553년(진흥왕 14)에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에 신주를 설치하였다가 4년 후에 신주를 폐지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했다. 신주 대신 북한산주를 설치한 것은 주둔지를 한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으로 옮겼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북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북한산주는 오늘날의 이천에 남천주를 설치했다가 다시 북한산주가 설치되는 과정을 거친다.

삼국 가운데 가장 발전이 늦었던 후발주자인 신라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한반도에 큰 변화를 초래한 7세기의 국제정세를 보면 고구려는 중국의 남북조를 통일한 수·당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백제는 성왕이 전사한 이후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해왔다.

특히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공략에 매우 열성적이었는데,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오늘날의 합천)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무너뜨렸다. 신라는 백제의 공세에 밀려 방어선을 낙동강 아래로 물러야 할 정도가 되었

다. 이처럼 백제의 공세가 더욱 날카로워지자 신라는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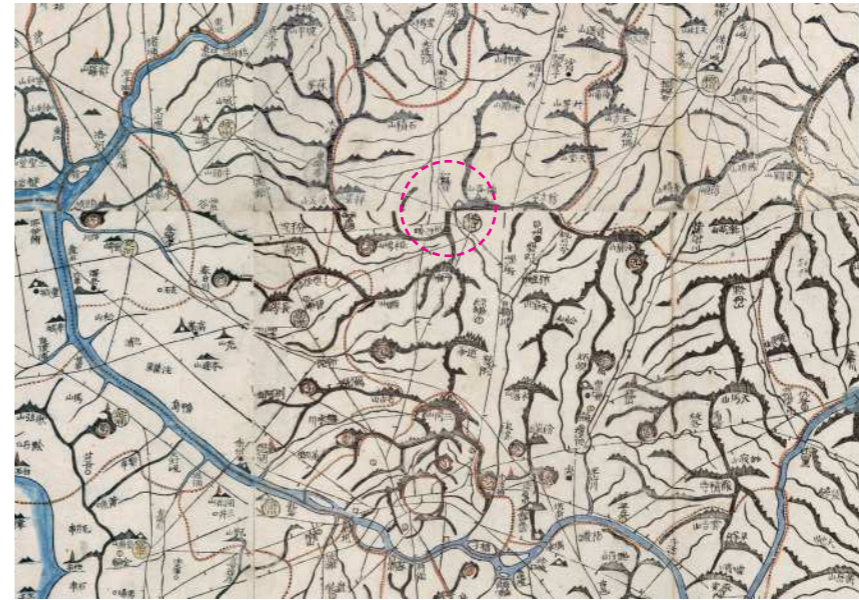
고구려는 군사를 보내 신라를 돕는 대신에 신라가 점유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반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라는 고구려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당과 손을 잡았다. 당 또한 수를 무너뜨린 위협 세력인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 신라와 손을 잡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라와 당은 고구려를 쓰러뜨리기 위해 먼저 백제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백제를 등 뒤에 두고 고구려를 공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라와 당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은 660년에 백제를 무너뜨렸다. 이어 이들의 칼끝은 고구려로 향했다.

그러나 고구려를 향한 1차 공격은 연개소문에 의해 궤멸하고 말았다. 이때 김유신과 관련해 양주지역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 즉 평양성을 공격하던 당의 군사는 원활하지 않은 식량 보급 때문에 곤경을 겪었다. 이때 김유신이 거센 추위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으며 당에 식량을 보급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이때 공격을 나선 군대의 후방 지원을 담당했던 곳이 아마도 북한산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에 백제가 북방으로 진출할 때도 활용했던 경로였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라는 당과 손을 잡고 668년에 고구려도 무너뜨렸다. 그리고 신라는 양주지역으로 추정되는 매소성 전투를 비롯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당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삼국통일을 달성했다.

이렇게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쟁탈은 삼국통일을 달성한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양주지역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자가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우세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처음 백제가 이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뒤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조선 후기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

조선 후기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양주지역(붉은 원) 일대. 왼쪽으로 임진강이, 아래쪽으로 한양 도성과 한강이 보인다.

최종적으로 신라 또한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자리한 양주지역이 지닌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조선 후기 김정호가 남긴 한국의 지리서인 『대동지지』에 양주지역은 “한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으며 3도가 모이는 곳이며 명산과 경치가 뛰어난 지역이 많은데 반은 골짜기이고 반은 평야이다”(『대동지지』 권3, 양주 형승 조)라고 묘사해 놓았다. 실제로 양주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강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교역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 고대 사회에 매우 매력적인 장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삼국은 치열하게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이 지역을 차지한 자가 번영을 구가했다는 것은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 4) 양주지역의 성곽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양주지역을 둘러싼 삼국의 쟁탈전 속에서 많은 성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광개토태왕은 백제를 공략하고 58개의 성을 함락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백제가 곳곳에 성을 쌓아 지역을 지배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백제는 치열한 격전지였던 양주지역에도 여러 성을 쌓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아 어디에 어떤 성이 있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이후 발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약 15개 정도이다. 이들 대부분이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 북쪽의 낙랑, 말갈과 대립하며 성장했는데 이 성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축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쪽 세력의 전투가 임진강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전개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삼국사기』에 백제의 시조 온조왕 때부터 마수성(馬首城), 병산책(瓶山柵) 등과 같은 성책이 등장한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양주지역은 백제의 도성을 방어하는 저지선의 역할과 북방으로 진출하는 요충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양주지역을 대표하는 성으로는 북한산성과 대모산성(양주산성)을 들 수 있다. 아마도 북한산성과 대모산성을 거점으로 삼아 그 주변에 작은 성들이 배치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지방행정 제도인 군현제에 따라 북한산군 아래에 골의노현이 속해 있었던 것처럼 북한산성과 대모산성이 군에 해당하고 현에 해당하는 성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례로 아단성(阿旦城)을 들 수 있다. 아단성은 오늘날 서울시 성동구에 있었던 성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왕이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아단성과 사성을 수리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권24 책계왕 즉위년). 이를 토대로 접근하면 백제는 아단성을 왕성의 외곽을 보호하기 위해 축

매성현의 치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백제 성곽 양주 대모산성



조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같은 계열인 백제와 고구려는 지역의 행정성을 평지에, 방어성을 행정성에 인접한 물가에 쌓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과 방어성인 환도산성, 첫 수도의 방어성인 오녀산성과 백제의 후시 수도인 웅진과 사비에서 모두 행정성과 방어성이 병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4세기에 백제는 양주지역에 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양주지역의 많은 성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성은 대모산성이다.

대모산성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발굴을 통해 출토된 유물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이 성은 6세기에서 7세기경에 축조된 신라성이며, 특히 보축재와 보축 기법으로 보면 통일신라시기에 수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백제 때 초축한 성을 신라가 수축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충분히 보인다.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대모산성은 주 서쪽 5리에 있는데 둘로 쌓았

으며 둘레는 906척, 높이는 5척이다(권11, 고적 조)”라고 전한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따르면 대모산성이 양주산성이며 이 산성은 지금의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있는 해발 210m 분지형 작은 산 정상부에 테두리를 둘러서 쌓은 테뫼식 석축 산성으로 둘레는 1.4km에 이른다.

대모산성은 북서 방향으로 광적면 일대를 관찰할 수 있고 수락산의 봉수 대와도 연결되어 있어 양주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또 동서쪽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사람과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이런 여러 사정을 통해 접근하면 대모산성은 매성현의 치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모산성과 매성현과의 연관성은 대모산성에서 출토된 많은 백제 유물이 뒷받침한다.

### 3. 삼국통일의 마침표, 매소성 전투

고구려 백제 신라로 구성된 삼국의 치열한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신라는 660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마지막 승자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통일을 위해서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했다. 그것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던 당(唐)이라는 장벽이었다.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린 당의 군대는 전쟁 후에도 떠나지 않았다. 당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야심을 가졌다. 당은 애초에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

당의 이런 의도는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663년 신라에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의 왕 문무왕을 계림 도독부의 대도독으로 임명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후 당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당의 의도는 고구려의 영토를 9개의 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나누어 지배할 생각이었다. 도호부는 당이 중국의 변경 지방에 설치한 6개 도호부의 하나로 최고 군정 기관이었다.

당은 고구려의 왕족을 비롯한 지배 세력을 멀리 중국의 서쪽 지역으로 이주시킨 다음 도호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처럼 옛 고구려 땅의 유력자를 포섭해 도독과 자사, 현령 등의 지위를 주어 지배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검모함을 비롯한 고구려의 유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렬하게 저항했다. 이 저항의 결과로 한때 평양을 탈환하기도 했으나 당의 군대에 밀려 신라로 밀려났다.

신라도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기 위해 뒤에서 고구려의 저항 세력을 지원하고 조종하며 당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른바 나당 전쟁(670~676년)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675년 함께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와 당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결전을 벌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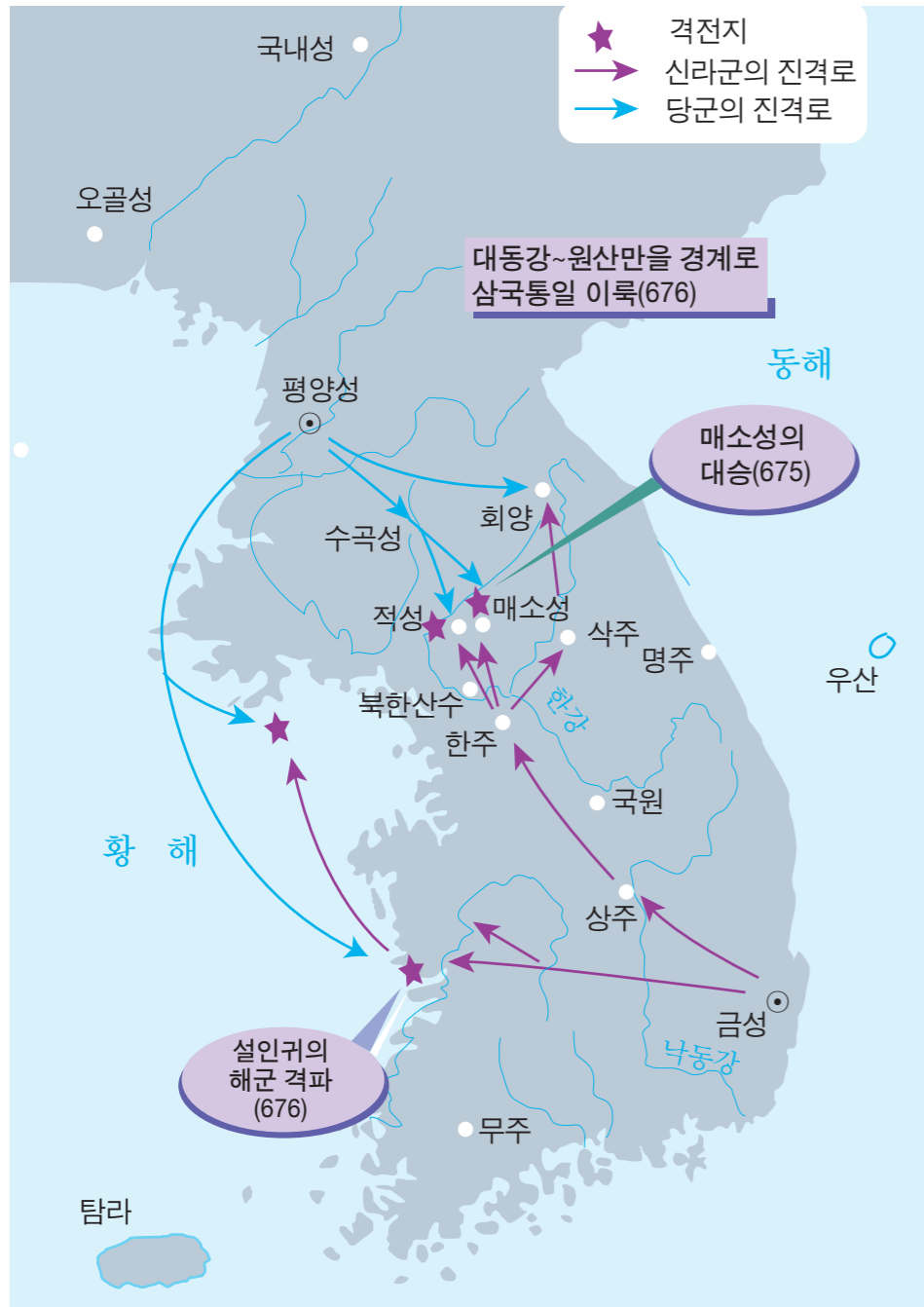
이 결전이 매소성 전투이다. 이 전투는 신라와 당의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이 달린 전투이기도 했다. 여기서 매소성 전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매소성이 양주지역에 속한 곳이기 때문이다.

#### 신라와 당의 나당 전쟁 (새로 그리기)

본격적으로 매소성 전투로 들어가기 전에 나당 전쟁의 추이부터 살펴보자. 신라는 670년에 당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옛 백제의 82개 성을 공격했고, 671년에 사비(부여)성을 함락시켜 옛 백제의 땅을 모두 손에 넣었다. 당도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672년 황해도의 백수성에서 신라와 당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 이 충돌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신라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 패배로 신라는 임진강 남쪽, 즉 과거의 양주지역으로 밀려났다. 기세





신라와 당의 나당 전쟁

가 오른 당은 674년에는 문무왕의 관직을 폐하고 그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 왕으로 책봉한 다음 유인케를 사령관을 하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다. 신라는 당의 침입에 맞서 9군을 동원했으나 675년 당은 신라의 칠중성을 함락했다. 이 패배로 문무왕은 당의 황제 고종에게 사죄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해야 했다.

칠중성은 오늘날 양주시에 인접한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성으로서 예부터 임진강 방어의 요충지였다. 기세가 오른 당은 말갈 출신인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로 삼아 기병 7만 명을 포함해 20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매소성 주변에 주둔시켰다. 여기서 20만 명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숫자이고 실제로는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임진강 이남에 있는 칠중성의 함락은 지리적으로 매우 뼈아픈 패배였다. 이 지역 즉 임진강과 한강 사이는 삼국이 쟁탈전을 벌일 정도로 교통과 산업에서 전략적 가치가 뛰어난 땅이었고, 그 지리적인 이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휘되고 있다. 신라는 더 밀릴 수 없는 상태였다.

이때 작은 변수가 하나 발생했다. 9월에 설인귀가 지휘하는 당의 함대가 한강 하류에 있는 천성(泉城)으로 침입했다. 설인귀는 신라의 군사 업무에 능통했던 김진주의 아들 김풍훈을 길잡이로 삼았다. 이 침입은 서해안의 복잡한 해안 지형과 한강의 하구 일대를 파악해 신라의 내륙으로 침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신라 장군 문훈이 이끄는 신라의 군대가 당을 공격해 당의 병사 1,400여 명을 죽이고 40여 척의 배를 탈취했으며 말 1,000마리를 노획하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다. 당의 장수 설인귀가 겨우 도망칠 정도로 당은 참패했다. 만약 설인귀의 침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임진강 주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당과 신라의 균형이 무너져 한반도 전체가 그대로 당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천성에서의 전투가 있고 얼마 후 신라의 군대는 북한산성을 출발해 당의

20만 군대가 머무는 매소성 주변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9월 29일 전투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국사기』 권7 신라 본기 문무왕 하(下)의 기록이다.

○ (9월) 29일,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병사가 공격하여 쫓아버리고 말 3만 3백 8십 필을 얻었으며 그밖에 얻은 병장기도 그만큼 되었다.

二十九日 李謹行率兵二十萬 屯買肖城 我軍擊走之 得戰馬三萬三百八十匹 其餘兵仗 稱是

『동국통감』 권9 신라기 문무왕 을해년의 기록에도 다음처럼 나와 있다.

○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매소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습격하여 패주시키고 전마 3만 3백 80필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 병장기도 이와 맞먹는 수치였다.

즉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군대는 675년 9월 29일 신라의 습격을 받고 3만 마리가 넘는 말과 병장기를 그대로 두고 북쪽으로 도주했다. 매소성 근처에 ‘말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당의 말을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매소성 전투의 성과는 대단했다.

한편 당의 군대로 패주한 주된 원인으로 설인귀의 패배를 꼽기도 한다. 그것은 설인귀의 함대가 군대를 먹일 식량과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함대였는데, 이들의 패배로 보급에 차질이 생겼고, 계절적으로 겨울이 찾아오는 때였기에 식량과 물자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매소성 전투 기록화  
(출처 전쟁기념관)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신라와 당의 전투 상황이 증명해준다. 당은 매소성 전투 이후 얼마 후에 매소성에서 멀지 않은 석현성(황해도 개풍)을 함락시키는 등 신라와 18번의 교전을 했는데 신라는 성주가 전사하는 등 많은 타격을 입었다.

그렇지만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신라는 매소성이라는 요충지를 확보했고 그를 통해 세력의 균형을 당에서 신라로 옮길 수 있었다. 여기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것은 기벌포 전투였다. 기벌포 전투는 676년에 일어난 신라와 당의 해전으로 실제로 나당 전쟁을 결정 지은 전투였다.

기벌포 전투는 676년 설인귀가 이끄는 당의 해군이 기벌포로 진격해오자 첫 전투에서 신라가 함선을 거느리고 맞섰으나 패배했고, 이후 22번에 걸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 당의 수군 약 4,000명을 죽이고 승리한 전투였다.

이후 당은 676년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를 한반도 바깥인 요동으로 옮겼다. 한편 이 무렵 오늘날의 티베트인 토번이 당을 침공해오자 이근행을 비롯해 한반도에 파견했던 군대를 그쪽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당은 한반도에서 물러났는데 매소성 전투는 당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매소성을 두고 몇 가지 주장이 엇갈린다. 매소성이라는 이름과 그 위치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먼저 이름을 살펴보면 매소성은 달리 매초성으로도 불린다. 그것은 한자로 ‘買肖城’으로 쓰는데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매초성이 된다. 매소(買肖)는 삼국시대 양주의 옛 이름이었던 매성(買省)과 관련이 있다.

한편 『고려사』에 925년 매조성(買曹城)의 장군 능현이 태조 왕건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양주지역을 매조성으로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매성, 매소, 매조라는 말 모두 예부터 양주지역을 가리키던 명칭이라는 점에서 매소성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양주지역으로 비정됐다. 그래서 매소성은 매성현의 현성, 즉 오늘날의 양주시 고읍동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조선의 실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에 “매소성은 바로 매성의 와전으로 지금의 양주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소성이 “물가의 성”이라는 의미라는 데 있다. 대모산성은 물가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4년 역사편찬위원회의 실측 조사와 2013년 경기문화재단의 학술회의에서는 현재의 양주지역이 아닌 연천군 청산면 한탄강 강변의 대전리 산성을 매소성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매소성이 양주에 있다는 여러 기록과 부딪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전리 산성이 위치한 지역은 근래까지 양주에 속했기 때문이다. 즉 대전리 산성을 매소성에 비정하여도 양주의 매소성이라는 기록과는 전혀 상충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매소성 전투는 양주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인 동시에 삼국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장식한 사건이었다.

## 4. 통일신라와 양주지역

### 1) 행정제도의 변화

가장 늦게 양주지역을 차지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했다. 통일신라는 지방통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주·군·현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토대로 과거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포함해 통일신라를 9주로 정비했다. 이때 주 밑에는 200여 개의 군과 300여 개의 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주지역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며 설치했던 북한산주를 개편한 한주(漢州)에 속했다. 한주는 교통과 방어의 중심지였기에 다른 주와 달리 두 개의 정(停)이 설치되었다. 통일신라 때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경덕왕 때 과거 고구려의 행정지명을 모두 한자로 고쳤는데, 이때 양주지역의 행정 명칭은 내소군(來蘇郡)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이 변화했을 때도 양주지역이 지닌 방어와 교통의 중심지라는 성격은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로를 활용한 교통과 물류의 거점이었다. 이런 지역의 성격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9세기에 발생한 김범문의 난, 그리고 감악산에 있는 사당과 비석이다.

김범문의 아버지 김현창은 822년 웅천주(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 김범문도 한강 유역의 여주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고구려의 남평양에 수도를 정하기 위해 북한산주를 공격했다가 북한산주도독인 총명에게 진압당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이 김범문의 난이다. 이 사건



은 신라 지배층에서 일어난 내란으로 한강 유역을 포함한 양주지역이 새로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후삼국 때 실현된다.

김범문의 난에 더해 오늘날 파주시와 양주시 사이에 걸쳐있는 감악산에 존재하는 사당과 비석은 과거부터 양주지역이 지닌 지리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신라는 산악신앙을 토대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산을 정했는데 각각 대사(大祀), 중사, 소사로 구분해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양주지역에서 소사를 지낸 곳은 감악산이다. 감악산은 임진강 중류 부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늘날 상당 부분 파주시에 속해 있으나 양주시 남면의 황방리와 신암리와 맞닿아 있다.

신라는 오래전부터 감악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아마도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게 된 6세기부터 감악산에 소사가 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감악산이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감악산의 사당과 비석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특성에 더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감악산 사당은 파주시에 속하고 감악산 비석은 양주시 남면 황방리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사당과 비석이 서로 행정적으로 다른 지역에 속해 있으나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함께 살펴본다.

## 2) 감악산의 사당과 비석

감악산에는 사당과 비석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먼저 사당부터 살펴보자. 감악산에는 사당이 있어서 봄과 가을에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감악산에 있는 사당이 신라의 소사를 위한 사당이 아니라 당나라의 장수였던 설인귀를 모시는 사당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설인귀는 신라가 당과 함께 고구려를 무너뜨릴 때 활약했던 당의 군대를 지휘하던 장수였다. 설인귀를 모시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나 언젠가부터 문헌에서 감악산의 사당을 설인귀의 사당으로 간주하고 있다. 『고려사』 권56 지리지에 따르면 현종 2년 거란의 병사들이 장단지역까지 왔다가 사당에 정기와 토우가 있는 듯해서 두려움을 느껴 전진하지 못했으며(다른 기록에서는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다고 나온다), 조정에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사당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신라 사람이 당의 장수 설인귀를 제사하며 산신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한편 고려 충선왕 3년(1310년)에 감악산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많은 사람이 귀신을 숭상해서 감악산에서 제사를 지내자 이를 금지했다고 나온다(『고려사』 권63 예지 잡사 조).

감악산의 사당이 설인귀의 사당이라는 기록은 『고려사』 외에도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후기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 이는 감악산의 사당을 당의 장수 설인귀의 사당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신라가 소사를 지내던 사당이 당의 장수 설인귀의 사당으로 변모한 것일까? 이에 대해 북쪽에 나타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대립하게 되면서 과거 고구려를 무너뜨린 설인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를 감악산의 산신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 양주시에 속해 있는 감악산 쪽에 서 있는 비석은 현지에서는 ‘빛돌대왕비’라고 불린다. 빛돌대왕은 비석대왕이라는 의미인데 비석에 대왕을 붙인 것에서 비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감악산의 비석은 해발 675m 감악산 정상에서 있다.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은 높이 170cm, 두께 15~19cm, 폭 77~79cm의 규모이다. 이 감악산 비석



당의 장수 설인귀를 제사했다고 알려진 감악산 사당



빛돌대왕비라고 불리는 감악산 비석

은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와 매우 비슷하며, 조선 숙종 때의 문신 허목이 『미수기언(眉叟記言)』에 남긴 글이 전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진사와 내가 감악을 유람하다가 저녁에 견불사(見佛寺)에서 묵고 새벽에 깎아지른 듯한 정상에 올라 그늘진 벼랑에서 신정(神井)의 물을 길어 먹었다. 그 정상에 있는 감악사의 석단은 높이가 3장이었다. 그 단 위에 산비가 있는데 아주 오래되어 글자가 마멸되어 있었다. 그 곁에 설인귀 사당이 있으며 혹은 왕신사(王神祠)라고도 하는데 음사(淫祠)이다. 그 신은 능히 요사한 일을 일으켜 화복을 내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산다(『眉叟記言』 권27, 산천 감악산기).

설인귀의 사당을 음사 즉 귀신을 모신 집이라고 부른 것은 허목이 유학자이기 때문이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도 감악산이 신라 때부터 명산이었고 소사를 지냈으며, 석비 옆에 설인귀의 사당이 있다고 알리고 있다.

대체로 감악산의 비석을 감악산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글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어떤 기록(『여지도서』와 『적성현읍지』)에서는 설인귀 사적비라고 기록을 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진흥왕 순수비와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악산 비석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지배한 이후인 7세기 정도에 세워진 신라의 비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603년 진평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한산성을 공격해 고구려를 격퇴했을 때 그 북방 경계인 임진강 주변의 감악산에 비석을 세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것은 진평왕이 경상도에만 23개의 비석을 세웠다는 기록(이마니시 류, 『신라사연구』)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감악산의 사당과 비석은 이들과 관련된 내용도 흥미롭지만, 양주지역이 지닌 지리적인 중요성을 알려주는 주요한 증거가 된다.

# 3

## 고려시대, 양주라는 이름을 얻고 역사의 중심에 서다!

이름이 없으면 다른 것과 구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든 땅이든 이름을 붙이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과 분리해서 부를 때 그만의 고유성이 생긴다. ‘양주(楊州)’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 건국 전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양주라는 이름 아래에서 새롭게 많은 사람의 삶과 사건이 담긴 역사가 만들어졌다.

양주라는 이름과 관련해 가장 오래된 사건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권50 궁예전에 “以我太祖爲精騎大監伐楊州·見州”라는 구절이 나온다. 번역하면 궁예가 “우리 태조(왕건)를 정기대감으로 삼아 양주와 견주를 공격했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 양주와 함께 나타나는 견주가 바로 지금의 양주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그러니까 898년 봄 궁예가 당시 자기 지배 아래에 있던 왕건을 시켜 양주와 견주라는 지역을 공격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양주와 견주는 각각 다른 지역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통일신라 시기 지금의 서울지역은 한양군, 양주지역은 내소군으로 분리된 지역이었고, 고려시대에 들어와 태조 때 한양군은 양주로, 내소군은 견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려 말기까지 이를 유지한다. 따라서 고려 시기의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양주는 지금의 양주가 아닌 한양(서울)을 의미하므로 고려시대의 양주는 지금의 양주지역이었던 견주와 구분하여야 한다. 단, 고려 태조 때부터 견주는 계수관인 양주의 속현으로 되었고, 1018년에 전국적인 속군·현 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양주가 거느리는 9개의 속군·현 중 하나였으므로 견주를 양주의 일부 내지는 공동 행정 체제로 함께 이해할 수는 있겠다.

왕건은 895년 아버지 왕룡과 함께 중부지방의 지배자였던 궁예를 찾아가 자기들이 지배하던 송악을 바치고 휘하로 들어간 상태였다. 왕건은 나이는 어렸으나 뛰어난 지략과 통솔력을 인정받아 898년에 정기대감이 되었다.

정기대감이 된 왕건은 궁예의 명을 받아 900년까지 양주와 견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평정했다. 다만 기록에 양주와 견주를 공격한 것만 나와 있을 뿐 승패에 대한 기록이 없고, 925년에 이 지역의 호족이었던 능현이 고려에 항복하였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주지역에 대한 호족의 실질적인 지배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삼국사기』 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양주라는 이름이 우리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고려 초기인 태조 18년에 후백제를 세우고 마지막까지 고려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쟁패를 거듭했던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자 양주를 그에게 주고 식읍으로 삼게 했다는 기록이다.

견훤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과 대립했는데 부하들이 고려에 투항하는 과정에 후계자 문제까지 발생했다. 견훤이 넷째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



려고 하자 반발한 위의 세 아들은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유배하고 말았다.

견훤은 석 달 후에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태조 왕건에게 투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태조 왕건은 군선 40여 척과 장군을 보내 해로를 통해 견훤을 모시고 상보(尙父)라고 부르며 환대했다. 태조 왕건이 견훤을 환대한 것은 아직 세력이 남아 있는 후백제를 복속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 노비, 말 등과 함께 양주지역을 견훤에게 하사하였다. 『고려사절요』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6월. 견훤(甄萱)이 막내아들 능예(能義)와 딸 애복(哀福), 폐첩(嬖妾) 고비(姑比) 등과 더불어 나주(羅州)로 도망쳐 와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요청하였다. 장군 유금필(庾黔弼)과 대광(大匡) 만세(萬歲), 원보(元甫) 향예(香義)·오담

(吳淡)·능선(能宣)·충질(忠質) 등을 보내어 해로를 통해 맞아오게 하였다. 도착하자 다시 견훤을 상보(尙父)라고 불렀으며, 남궁(南宮)을 관사(館舍)로 주고, 그 지위를 백관(百官)의 위에 있게 하였다. 양주(楊州)를 내려주어 식읍(食邑)으로 삼게 하고, 아울러 금과 비단, 노(奴)와 비(婢) 각각 40구(口)와 말 10필을 내려주었으며, 백제에서 항복한 사람인 신강(信康)을 아관(衙官)으로 삼았다(『고려사절요』 권1 태조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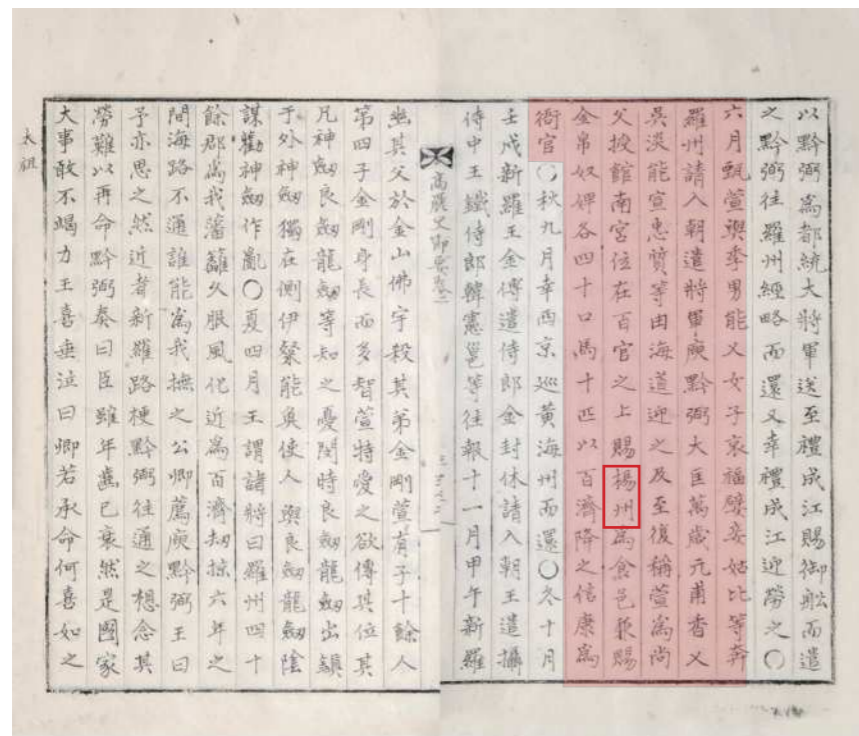
양주를 견훤에게 식읍으로 내린 것은 그가 백제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에게 신라의 수도 경주를 식읍으로 준 것과 동일한 사례이다. 다만 견훤이 백제의 왕으로서 도읍한 곳은 전주였기에 그에게 식읍을 내린다면 당연히 전주를 주어야 했겠으나 당시 전주는 견훤을 축출하고 백제의 왕으로 즉위한 견훤의 아들 신검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건은 옛 백제의 도읍인 한성, 즉 양주를 식읍으로 내린 것이다.

당시 양주지역은 견주의 호족으로 보이는 매조성 장군이 고려에 항복한 사실로 보아 고려의 지배하에 편입된 지 불과 10년이 지난 상태였다. 『고려사절요』에 이러한 사실이 나타난다.

○ 秋九月. 買曹城將軍能玄遣使乞降(『고려사절요』 권1 태조 8년)

즉 “매조성의 장군 능현이 항복을 청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매조성은 양주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소성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에서 이곳의 호족인 능현이 925년에 고려에 항복하고, 이보다 2년 전인 923년 지금의 포천지역 호족인 명지성의 성달이 고려에 항복하는 것은 양주지역과 그 주변이 고려의 영향권 내로 편입되어 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능현은 자신의 세력권 내에 일정한 권력 유지를 조건으로 고려에 귀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견훤이 탈출하여 고려로 망명하였고, 태조 왕건이 양주를 식읍으로 하사하였다는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8년 기사



고려의 왕권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광종 이후 성종 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계수관 형태의 목(牧)이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각 지방은 여전히 현지 호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양주지역이 지리적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가깝고 양주지역 주변에 고려의 건국에 공헌한 유력 호족 세력이 있어서 견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에 양주지역을 식읍으로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내렸다는 기록 외에는 달리 견훤과 양주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견훤에게 양주를 식읍으로 하사한 것이 그가 귀순한 935년이었고, 견훤이 선봉을 맡아 자신이 세운 후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936년인데, 그 직후 견훤이 죽어 양주 식읍은 불과 1년을 유지하였을 뿐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양주 식읍이 고려 조정에 회수된 사실은 고려 5대 왕 경종(재위 975~981) 즉위년인 975년에 제정된 시정전시과에 양주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시과는 고려 때 관리나 공신, 관청, 기타 신분 등에 지급하던 종합적인 토지제도를 가리킨다.

앞에서 살펴본 태조 왕건이 양주와 견주를 공격했다는 내용과 태조 왕건이 투항한 견훤에게 양주지역을 식읍으로 내렸다는 두 내용이 양주와 관련한 고려 건국기의 대표적인 기록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이 12세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조선이 건국한 이후인 15세기에 편찬된 『고려사』라는 점에서 양주라는 명칭에 대한 유래를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두 내용에 등장하는 양주라는 이름이 고려 건국을 전후한 시대의 이름이 아니라 12세기의 이름을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983년(고려 성종 2)에 지방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12목을 설치했는데, 이때 양주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양주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기 힘들지

만, 최소한 고려 초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양주라는 이름은 계속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고려의 행정제도와 관련이 있다.

## 2. 고려의 건국과 양주의 변화

고려가 건국한 것은 918년의 일이었다. 고려의 건국은 통일신라의 붕괴와 그 과정에서 세워진 후삼국과의 전쟁 이후의 일이었다. 나라가 몰락하는 것은 대부분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신라의 붕괴도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것이었다.

먼저 신라는 말기로 가면서 귀족사회의 왕위쟁탈에 의한 혼란이 거듭되면서 정치적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또 경제는 국가 소유의 토지인 공전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중앙정부의 경제 기반인 토지국유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국가의 재정이 위기에 놓였다. 정치적인 혼란과 국가 재정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중앙권력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지방호족들이 발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흉년이 겹치면서 궁핍해진 백성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도적이 되기도 하고 각 지방에서 깃발을 내건 군웅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대표적인 존재가 완주(오늘날의 전주)에서 일어난 견훤으로 그는 892년(신라 진성여왕 6)에 백성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며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후백제라고 선언했다. 견훤은 나라의 이름에서 보듯이 과거 백제의 영토를 차지했다.

견훤의 뒤를 이어 나타난 사람은 궁예였다. 궁예는 과거 백제의 뒤를 이은 견훤과 달리 철원, 개성 등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기 일대를 근거로 해서 과거 고구려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부흥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후삼국시대 세력 구도

궁예는 기훤과 양길 등의 휘하에 있다가 자립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훗날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었다. 궁예는 왕건 등의 장수들과 함께 양길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웠다. 후고구려라는 이름은 3년 뒤 마진으로 바뀌었다가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면서 다시 태봉으로 바뀌었다.

궁예가 지배하는 태봉은 옛 고구려 땅인 죽령과 오령 등 신라의 북방 지

역을 공략했고, 견훤이 지배하는 후백제는 옛 백제처럼 동쪽으로 신라를 공격했다.

양주지역은 과거 삼국의 쟁탈전이 벌어졌던 땅이었다. 처음에는 백제의 땅이었다가 고구려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신라가 통일하면서 신라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후삼국시대에 양주지역은 새롭게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태봉 사이에 놓였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은 후고구려와 후백제의 전투가 육지보다는 바다에서 주로 이루어졌기에 과거와 같은 격렬한 쟁탈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하며 수도를 옮기고 사치와 교만에 빠지면서 백성들과 멀어졌고 백성들의 마음은 왕건에게 기울었다. 결국 918년에 궁예 휘하에 있던 장군들이 왕건을 추대해 모반을 일으켰고 궁예는 산곡면으로 도망쳤으나 부양에서 살해되었다. 왕건은 고구려의 후계라는 의미인 고려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를 세웠다.

### 3. 행정체제의 변화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했으나 새로운 국가에 어울리는 제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고려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다가 도읍을 송악(개성)으로 천도한 이후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해 여러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

새 국가를 세운 왕건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과거 신라의 붕괴를 이끌었던 지방호족 세력의 적절한 융화와 흡수, 북방의 문제, 왕권 강화 등이었다. 특히 지방호족의 처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였다. 지방호족 세력은 신라왕조의 국력 약화와 지방의 농민봉기를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지방의 백성들을 직접 지배하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권



력 구조에서 이들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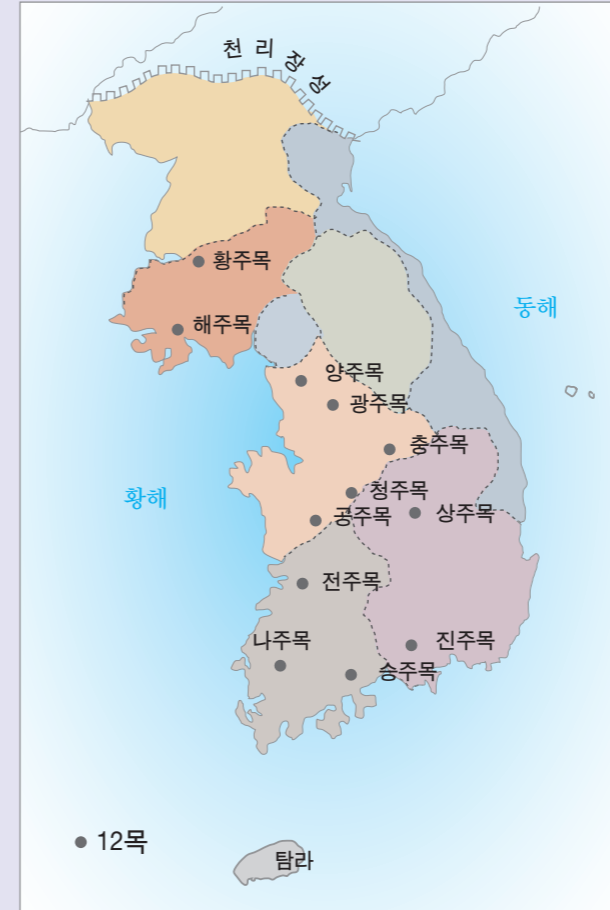
고려왕조는 이들을 융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 중앙에 머물게 하는 기인제도와 지방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사십관제도를 활용해 왕권 강화에 애썼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반역이 발생하는 등 호족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던 고려에서 중앙집권적인 통치제도가 정비된 것은 6대인 성종과 8대인 현종 때의 일이었다. 특히 성종은 최승로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선진적인 당의 제도를 많이 참작했다.

이런 준비와 변화 속에서 양주와 관련된 것은 지방행정의 변화였다. 기존에는 서경(평양)과 대도호부(천안, 경주, 상주, 안주 등), 북부에 있는 여러 진을 제외한 지방에는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없었다. 단지 금유(今有)·조장(租藏), 전운사(轉運使) 등의 임시 관리가 파견되어 조세(租稅)의 징수와 운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대부분의 군현은 그 지역 호족들의 반자치에 맡겨져 있었다.

성종은 적극적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983년에 12목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관리(목사)를 파견했다. 이것이 지방관 제도의 시초가 된다. 12목은 호족 세력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주요 거점을 확보하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때 설치된 12목은 양주를 비롯해 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 등이다.

12목이 설치된 지방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과 대부분 중첩된다. 다만 황해도는 통일신라 지방 편제에서 빠져 있었으나 고려 때에는 강원도 대신에 포함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고려가 건국 이후 북방을 중시한 국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우려는 북방에서 여진과 거란, 몽골 등이 침입해 오면서 현실이 되었다.



고려의 지방통치 체제 12목



12목에서 바뀐 고려의 10도. 양주는 관내도에 속했다.

한편 고려 조정은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행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한 땅을 지급했다. 한편 984년에는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각각 1명씩 파견해서 지방 호족들의 자제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중앙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지방 분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전주지역 역시 양주에 파견된 경학박사와 의학박사의 지도 아래 고급 의술과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993년에는 12목에 국가가 주도하는 물가조절 기관인 상평창을 설치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견주가 포함된 양주를 비롯한 12목이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을 발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2목에 변화가 생긴 것은 995년의 일이었다. 12목의 군사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절도사를 두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군사적인 행정 개편을 통해 지방의 호족 세력을 통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이때 양주지역의 군호는 좌신책군(左神策軍)으로 우신책군의 해주목과 함께 군사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절도사 제도는 중국 당의 제도를 본뜬 것이었다.

절도사 제도의 도입과 함께 10도제를 시행하였다. 성종은 지방행정 기구의 개편을 단행하고 지방을 4도호부 10도로 나누었다. 10도제 또한 당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양주지역은 관내도에 속했다. 관내도는 양주, 광주, 황주, 해주 등의 29주 82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았던 10도제는 오래 가지 못했다. 10도는 지방행정의 최고 단위였으나 상주하는 관리가 없었다는 점도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다. 지방행정 제도는 현종 때 대규모로 새롭게 정비되었고 기본구조가 완성된다. 1019년(현종 9)에 4도호, 8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을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고려의 지방행정은 4도호와 8목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아

래에 중앙에서 지방관리를 상주시키는 56개의 주군, 28개의 진, 20개의 현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의 행정력이 군현의 행정단위까지 직접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012년 절도사 제도가 폐지되었고, 대신에 5도호·75도안무사가 설치되었다. 이때 양주도 절도사가 폐지되고 안무사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절도사라는 소수의 지방관리를 파견하다가 75도안무사라는 다수의 지방관리를 파견한 것은 지방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1018년의 개편에서 양주는 8목에 포함되지 못했고 지주사로 격하되었다. 양주목이 폐지되어 조선 왕조 개창 이후 태종 조에 이르도록 목읍이 회복되지 못한 것은 양주에 대한 고려 왕실의 통제가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소위 남경 세력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이 지역 호족 출신 중앙 귀족 세력이 대두한다. 강감찬의 진주 강씨, 이자겸의 인주 이씨, 윤관의 파평 윤씨, 왕실인 대각국사 등은 서경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숙종과 협력하였고, 풍수지리설 등을 이용하여 양주에 남경을 설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양주는 이들이 대두하는 지역적 근거지로서 이들에 대한 왕실의 통제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고려 왕실은 꾸준히 남경 세력과 연합하여 개경 및 서경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 4. 고려 삼경의 하나인 남경이 된 양주

양주지역은 지주사로 격하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롭게 거듭났다. 즉 11대 문종(재위 1046~1083) 때 남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남경은 서경(평양), 동경(경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남경이 된 양주지역은 지방행정의 핵심이 되었다. 양주지역이 삼경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고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고려 중기에 들어서 양주지역이 급속도로 부상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요인은 지리적인 배경이다.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놓인 양주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문화의 발생지였고,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차지해야 하는 요충지로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지역이었다. 이런 지리적인 환경은 양주지역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에 더해서 삼경의 하나인 남경이 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요인은 지리적인 이점을 통한 경제적인 측면이다. 양주지역이 남경으로 올라선 문종 때는 토지제도와 녹봉제도가 재정비된 시기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즉 양주지역은 비옥한 충적평야 지대가 넓게 퍼져 있고 개경과 가까워서 중앙에서 쉽게 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인 전시과 지급의 대상 지역으로 적합한 땅이었다. 또 전시과 지급을 위한 토지의 확보에 더해 세곡의 원활한 수송 등에도 적합한 지역이었다.

특히 세곡의 운송이라는 점에서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끼고 있는 양주지역은 육로와 수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신라 때와 달리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개경이 지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즉 고려의 수도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어서 해로와 연결할 수 없었던 남쪽의 주요 거점인 충주와 원주에 덕흥창과 홍원창을 설치하여 주변의 세곡을 모았고, 그것을 한강을 이용해 개경으로 운반했다. 이때 남경이 된 양주지역은 개경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서로 접근하기 힘든 개경과 중부 내륙지방 사이의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육로를 통해 강원도와 충청도를 개경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 것이 남경이었다.

## 5. 북부와 남부를 잇는 교량, 양주

과거 교통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통신수단이었던 봉수이다. 높은 산 정상에 설치한 봉화대인 봉수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외적의 침입 등 변방에서 일어난 정보를 빠르게 중앙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봉수의 도구는 밤에는 횃불을 밝혀서 전하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려 전했는데 상황에 따라 횃불의 수가 달랐다.

당시 양주지역에는 두 곳에 봉수가 있었다. 하나는 아차산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남양주인 대이산에 있었다. 이들 봉수대는 주로 함경도 경흥으로 이어지는 경로였다. 봉수에는 방정 2명과 백정 20명을 배치했는데 이들에게 평전 1결을 지급했다.

양주지역은 지주사에서 남경으로 승격된 이후 지역의 기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외무역이었다. 무역은 두 곳 이상의 지점을 서로 연결해서 상업적으로 교류를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듯이 충청도와 강원도를 개경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던 양주지역은 무역에서도 유리한 입장이었다.

이 무렵 고려의 주요 무역 대상은 송나라였다. 대송 무역로는 크게 북로와 남로 둘로 나뉘었다. 북로는 주로 고려 초기에 많이 활용되었고, 남로는 문종 시대 이후부터 많이 이용한 길이다.

고려 중기에 이용한 남로의 시작은 개경과 이어진 예성강이었다. 예성강을 출발해서 당시 남경 내 현재의 인천에 속한 영종도인 자연도(紫燕島)를 거쳐 충남 해미의 서쪽에 있는 마도를 지나 전북 홍덕 서쪽인 고군산도와 죽도를 따라 흑산도를 경유해 서남으로 가서 중국 명주로 향했다.

한편 일본과의 무역도 남로가 주요 항로였다. 일본은 10세기 견당사가 폐지된 이후 11세기부터 일본 상인들은 중국으로 직접 가지 못했다. 이들은 대마도 해협을 건너 한반도의 남쪽 다도해를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 북



상하여 예성강으로 와 고려를 상대로 무역을 했다.

이때 남로에는 남경의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자연도를 비롯해 인천과 강화, 남양만의 당성군 등 고대로부터 중국으로 가는 교통로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 6. 남경 천도와 도참사상

문종 때 양주지역이 남경으로 승격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래의 길흉에 대한 예언을 믿는 도참사상이었다. 고려는 태조 왕건 때 풍수지리설을 한반도에 처음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도선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는 개경을 수도로 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풍수지리설은 음양과 오행을 기반으로 땅의 기운에 따라 국가나 인간의 길흉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고려 왕실은 태조 왕건 이후 도참사상을 신봉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도 활용했으며 때로는 도참사상에 집착하기도 했다.

양주지역을 남경으로 삼은 문종 또한 도참사상을 신봉한 왕이었다. 한 예로 문종은 도선국사의 『송악명당기』의 내용에 따라 지극한 땅의 기운을 빌어 나라의 힘을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예성강 강가에 장원정(長源亭)을 지었으며, 날을 잡아 머물기도 했다. 또 서경(평양)에 서경기(西京畿)를 두고 서경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궁궐을 지은 것도 도참사상에서 비롯한 일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남경의 설치도 도참사상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고려사』 문종 21년(1067)에 양주를 남경유수관으로 승격하고 주변의 백성을 옮겨 살게 했다는 기록과 문종 22년 남경에 신궁을 창건하였다는 내용 등이 이를 방증한다. 다만 신궁에 대해서는 창건 기록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몇 년 뒤 남경은 폐지되었고 양주지역은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이유로 양주지역이 남경으로 승격된 것의 배경에 도참사상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즉 양주지역이 뛰어난 지리적인 환경과 경제적인 요인, 남북을 잇는 교량 역할 등 남경에 어울리는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으나 남경으로 승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린 것은 문종이 지리나 경제적 요인보다 풍수지리와 같은 도참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고려 때 풍수지리설을 처음 들여온 도선국사의 진영(출처 문화재청)

그러나 문종이 뿌린 씨앗은 곧 땅을 뚫고 나왔고 높게 자랐다. 고려 15대 왕인 숙종(재위 1095~1105) 때 양주지역은 다시 남경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몇 년이 아니라 25대 왕인 충렬왕(재위 1274~1298)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리고 수도 개경을 남경으로 이전하는 ‘남경 천도’라는 격랑에 휩쓸리게 된다.

양주지역을 남경으로 다시 승격시킨 숙종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었다. 13대 왕 선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현종이 1095년에 11살의 어린 나이로 14대 왕위에 올랐으나 몸이 약해 모후가 수렴정치를 했다. 왕의 존재가 무력해지자 지배 세력이 동요했고, 그해에 선종의 다른 아들인 한산후 왕균을 왕위에 추대하려고 했던 이자의의 난이 발생했다.

이에 현종의 숙부인 숙종은 이자의 일당을 몰아낸 다음 선양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15대 왕이 되었다. 숙종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조카를 몰아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몇 달 후인 봄에 서리와 우박이 개경 부근에 쏟아져 내리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심리적인 부담감에 천재지변까지 더해진 숙종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벼슬이 위위승동정이었던 김위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주지역을 재차 남경으로 삼았다. 도선대사의 학문을 계승한 음양가 김위제는 도선국사의 『도선답산가』, 『삼각산 명당기』, 『신지비사』를 인용하며 도참사상을 토대로 남경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주장했다.

김위제는 먼저 땅의 기운이 좋은 곳에 남경을 건설하고 왕이 수시로 머물 것을 권했다. 이는 일정 정도 지나면 땅의 기운이 약해지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살아난다는 도선국사의 사상을 토대로 한 전형적인 풍수지리설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김위제가 내세운 주장은 도선의 『신지비사』에 나오는 저울 이론이

었다. 이는 삼경을 저울에 비유하며 개경을 저울의 중심에 두고 서경을 저울접시, 남경을 저울추로 삼는 것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경의 운이 다하면 양주지역으로 도읍을 정해야 했다. 당시 양주지역인 남경이 개발되지 않았고 땅의 기운이 좋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남경의 설치에 김위제의 상소가 있고부터 3년 후인 1099년(고려 숙종 4)에 재논의가 있었으며, 1101년 9월에 남경개창도감이 설치되면서 본격화했다. 같은 해 10월에 최사추 등을 양주지역으로 보내 땅을 살피고 새로운 궁궐지가 결정되자 숙종은 남경의 설치를 종묘사직과 산천에 아뢰었다.

궁궐이 완성된 것은 1104년의 일이었다. 숙종은 7월 27일에 신하들을 거느리고 개경을 떠나 8월 10일에 남경에 도착해 연회를 베풀고 국가의 번영을 송축했다. 그러나 이렇게 숙종은 수도를 천도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1105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경 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 남경 천도를 추진한 배경은 풍수지리설만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정조가 그랬던 것처럼, 고려의 숙종은 남경 천도를 통해서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은 숙종이 귀족 세력이었던 이자의의 난을 제압한 후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탓에 신하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려 조정의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숙종이 즉위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담긴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숙종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잡음을 잠재우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남경 천도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숙종 때 추진된 남경 천도는 성사되지 못했으나 그 과정에서 남경의 지리적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당시 남경에는 교하군과 견주를 비롯한 3곳의 속군과 6곳의 속현이 예속되어 있었다. 또 6개의 속현을 거느린 안남도호부를 비롯해 1곳의 속군과 1곳의 속현을 거느린 인주, 7곳의 속

현을 거느린 영주, 3곳의 속현을 거느린 강화군이 예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남경은 서경, 동경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지방행정의 최고 단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 7. 양주를 향한 고려 왕실의 지극한 관심

고려 왕실의 양주를 향한 관심과 정성은 8대 현종 이후 비로소 구체화한다. 현종은 혼란했던 왕실의 계보를 확립하여 이후 그의 후손들이 맥을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실질적인 중시조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그가 즉위하기 전 삼각산 신혈사에서 승려들에 의하여 목숨을 보전하였던 인연으로 신혈사는 특별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승가사의 경우는 생불이라 불리던 승가대사의 주장처로 민심을 합일하는 장소로 주목되었으며, 이후 역대 고려의 국왕들은 삼각산의 신혈사, 승가사는 물론 장의사 등의 사찰에 정기적으로 참배하게 된다. 특히 문종의 넷째 아들 대각국사 의천이 문종에 이어 차례로 왕위에 오르는 현종과 숙종, 특히 의천의 바로 위인 셋째 형 숙종의 정치를 보좌하면서 함께 승가사를 참배한 것은 숙종이 남경 창설을 주도한 왕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어 고려 왕실이 삼각산을 중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재위 1105~1122) 또한 고려와 몽골 사이의 곤란한 상황을 도참사상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 대상이기도 했던 남경을 무려 네 번이나 직접 찾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경에 대한 왕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고종 때에는 남경에 궁궐을 짓고 왕이 그곳에 거주하면 나라의 운명을 800년 연장할 수 있다는 도참설이 퍼졌다.

남경이었던 양주지역은 1308년(충렬왕 34)에 단행된 개편에 따라 지방행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삼경에서 한양부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남경을 향한 관심은 식지 않아 고려 31대 공민왕(재위 1351~1374) 때는 남경 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고려에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밖으로는 남쪽이 왜구의 침탈에 시달렸고, 북쪽에서는 홍건적의 침략이 있었으며, 내부에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내우외환을 한 번에 털어내기 위해 떠올린 것이 남경 천도였다.

1356년 남경(당시 한양부)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너도나도 남경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조정은 그해 7월에 개경에 거주하는 사람의 남경 이주를 금지하였고, 12월에는 남경의 궁궐을 수리했다. 그러나 1360년에 여론의 악화로 인해 남경 천도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남경 천도는 무산됐지만 도참설이 팽배했던 고려에서 남경은 늘 뜨거운 감자였다. 공민왕 다음으로 즉위한 우왕 때 재차 남경 천도 논의가 시작되었다. 1381년(우왕 7)에 천문과 기상을 담당하는 관청인 서운관에서 남경 천도에 대한 주청이 있었고, 이듬해 8월에 천도를 결정하였으며, 9월에 당시 한양부인 과거의 남경으로 이주했다. 우왕은 남경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때의 천도는 일시적이었으며, 개경으로 귀환한 우왕은 얼마 후 영구적인 남경 천도를 계획하였다. 그 배경은 북방의 요동 정벌 논의였다. 조정은 친원파와 친명파로 나뉘었고 결국 이성계를 장군으로 하는 군대가 파견되었으나 위화도 회군이 발생하면서 천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위화도 회군 이후 권력을 손에 쥔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롭게 남경으로의 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시 도선국사의 예언이 소환되었고, 1390년 서운관에서 ‘개경의 땅이 쇠하고 있으니 한양으로 천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림에 따라 한양의 궁궐을 정비하고 천도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때의 남경 천도는 곧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호환이 발생하고 이성계를 죽이려는 시도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환도하고 말았다. 그리고 양주지역은 고려의 몰락과 조선의 건국 때까지 한양부로 남았고 결국 남경 천도는 왕조의 교체 이후에 실현되었다.

## 8. 외적의 침입

고려는 거란을 필두로 몽골까지 여러 차례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마다 큰 피해가 발생했다. 양주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쪽과 북쪽을 잇는 교량 역할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무역로이기도 했기에 교통이 발달해 있었다. 이런 교통의 편리함은 외적의 침입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외적의 침입은 고구려의 후예를 선언한 고려의 북진정책과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고려의 경우 먼저 거란의 침입이 있었다. 첫 침입은 993년(고려 성종 12)에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다. 일부에서는 서경(평양) 이북의 땅을 넘기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서희가 적진을 찾아가 담판을 짓고 오히려 북쪽의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6주를 획득했다.

두 번째 거란이 침입한 것은 1010년(현종 원년)의 일이었다. 거란은 요(遼)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거란군은 먼저 오늘날의 의주인 홍화진을 포위했으나 강력한 저항을 만나 함락하지 못하고 군대를 통주로 이동해 함락했다. 이후 서북쪽의 여러 성을 무너뜨렸다.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했고 양주를 거쳐 광주에 이르렀고, 이때 거란의 공격을 받은 개경이 불타고 무너졌다. 현종은 거란에 사신을 보내 화해를

청하는 한편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 거란은 고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화 조약을 맺고 10일 후에 군대를 물렸다. 현종은 1월 13일에 나주에 도착했다가 거란이 철수했다는 것을 알고 21일에 나주를 떠나 2월에 개경으로 돌아왔으며, 4월에 군대를 물린 것에 대해 거란에 감사를 표했다.

당시 거란의 군대와 오늘날 양주시에 걸쳐 있는 감악산의 고사는 유명하다. 개경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진군하던 거란의 군대는 장단을 지나 감악산에 이르렀다. 감악산은 신라 때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영험한 산이었다. 거란의 군대는 감악산에서 깃발이 나부끼고 많은 군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거란의 군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퇴각했다는 내용이 감악산 사당에 전해진다.

외적의 침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생긴 것은 단연 몽골이다. 몽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몽골 침입 때 양주지역은 지리적인 이유로 몽골과의 격전지가 되었고 그만큼 깊은 상처를 입어야 했다.

몽골이 처음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1231년(고려 고종 18)의 일이었다. 이후 30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몽골은 한반도를 침략했다. 고려는 저항했으나 큰 피해가 발생했고 결국 몽골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몽골의 침입은 지방행정과 토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양주 지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몽골이 처음 고려를 침략했을 때 고려 조정은 몽골군이 물(강, 바다)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으며, 백성들에게도 섬으로 피난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항전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스러웠다. 백성들은 궁핍해졌고 적의 기병에 처절하게 유린당해야 했다.

고려 조정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당시 현직 관리에게 녹봉으로 미곡을 제공하고 이 미곡은 조세를 통해 거두었다. 그런데 이미 문신과 무신의

갈등, 지방 세력의 득세 등으로 과전법이 붕괴하고 공전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쟁이 발생하며 조세가 급감했고 녹봉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녹봉 대신에 땅을 나눠주기로 하고 먼저 강화도의 땅을 관리들에게 나눠주었으며, 개경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경기 8현의 땅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사정은 고려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 9. 경기 내 양주

고려 때 경기의 땅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되었는데, 당시의 경기는 오늘날의 경기도와 다른 지역이다. 고려 때 행정구역으로 경기가 등장하는 것은 1018년(현종 9)의 일이었다. 그러나 현종 때의 경기는 그 이전 성종 때 수도인 개성부가 주변의 13개 현을 관할하도록 했던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경기의 설치는 다른 지역의 주현과 다른 취급을 했다는 것 외에 달리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관리에서 지급한 과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세를 거둘 권리가 있는 개인의 땅인 사전은 경기 외의 지방의 군현에 분배했고 경기의 땅은 공전으로 국유였다. 이는 국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조세를 수도 주변에서 거둬 운송과 관리의 편의를 얻기 위함이었다.

경기지역에 변동이 생긴 것은 1069년(문종 23)이다. 이때 13개의 현이었던 경기는 54개의 주현으로 확장되었다. 이때 확장된 주현에서 양주지역에 속한 곳은 견주, 사천, 풍양 등이었다. 이때 새롭게 확장된 경기는 양주를 비롯해 개풍, 장안, 파주, 고양, 포천, 김포, 부천, 용진, 시흥, 화성의 일부, 서울, 황해도와 강원도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후 언제인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몽골 침입기에는 경기 54개 주현이 다시 경기 8현으로 감소한 상태였다.

그리고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경기는 좌우로 둘로 나뉜다. 이는 역시 토지와 관련이 있다. 이성계와 신홍세력은 고려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지제도를 개혁했다. 토지제도 개혁의 핵심은 고려의 귀족들이 소유한 공신전과 같은 사전을 혁파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조정은 경기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13만여 결,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은 황원전 8,000여 결을 얻었고 경기 바깥에서 49만여 결의 농지와 16만 결의 황원전을 얻었다. 이를 통해 조정은 과전과 군사 물자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1390년(공양왕 2)에 단행된 토지제도의 개혁과 함께 둘로 나뉜 경기는 문종 때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의 행정구역을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경기좌도는 양주시를 비롯해 서울시, 파주, 고양, 포천, 연천, 시흥, 화성 일부, 철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경기우도는 김포, 부천, 용진, 강화를 비롯해 황해도의 여러 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 10. 역사의 전면에서

918년에 건국한 고려는 활발한 무역을 통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화려한 문화와 단단한 국세를 자랑했다. 그러나 12세기부터 지배층이 분열하기 시작했고 일시적으로 무인들이 지배하는 무신정권이 들어섰다. 13세기에는 30여 년에 걸친 몽골의 침략과 패배로 인해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다. 그리고 개혁의 실패와 내우외환이 겹치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방아쇠가 되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 4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주지역은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격렬

한 쟁탈전에 휩쓸렸던 삼국시대에 이어서 역사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삼국시대에는 영토와 전쟁의 요충지 성격으로 양주지역이 인정을 받았으나 고려에 들면서 그 위상이 달라진다. 즉 양주라는 이름을 얻은 고려 초기에는 개경과 가까운 변경의 취급을 받았으나 중기에 들면서 남경으로 승격되었고, 이후 풍수지리설을 토대로 꾸준히 천도의 대상이 되었다. 즉 남경과 한양부의 이름으로 불렸던 양주지역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고 결국 1392년 조선의 건국과 맞물렸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양주지역은 대내적으로 수도 개경과 강원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송, 그리고 일본과 교역을 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곳에 길이 생기듯이 양주지역은 교통과 교역을 위해 많은 사람이 오고 갔을 것이며 그 길을 통해 양주지역의 고유한 성격인 확장성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양주지역의 문화도 크게 발달했다. 불교국가였던 고려의 최고 사찰이었던 회암사는 그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회암사는 고려 말 조선 초 한국 불교를 이끄는 총본산이었으며 조선의 건국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리적인 요인, 사상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등을 배경으로 삼아 양주지역은 역사의 전면에 선 채 조선의 건국을 맞이했다.

# 4

## 조선시대, 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

### 1. 조선 건국과 '양주목' 설치

조선이 건국된 것은 1392년의 일이다. 새롭게 왕조를 시작한 조선 제1대 왕 태조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건국 세력은 먼저 지방 제도의 정비에 힘썼다. 고려 때는 지방의 통치를 위해 일부 한정된 지역에만 사람을 파견했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을 속현으로 삼아서 통치했다. 주현은 중앙에서 관리를 직접 파견한 지역이고, 그 주현에 속해 있는 지역이 속현이다. 결국 고려는 중앙의 지배가 지역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행정 체제를 운영한 셈이다. 이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삼아 지방행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

1393년(태조 2) 조선이라는 이름을 국호로 새롭게 정하자 태조와 신하들



은 새로운 왕조를 위해서 수도를 옮길 것을 논의하였다. 수도를 옮기는 논의는 고려시대부터 유행하였던 풍수지리 사상을 근거로 내세웠다. 풍수지리 사상은 전통적으로 집의 위치를 선정하고 건축을 하는데 자연과 조화로움을 이루고자 하는 전통적인 사상이다.

고려가 망했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 개경은 기력이 다한 것이고, 새로운 왕조는 개경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고려의 왕실 세력이 남아 있는 개경을 떠나서 조선의 건국 세력들로 새로운 정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첫 번째 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던 곳은 충청도의 계룡산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기좌우도 관찰사인 하륜이 “도읍은 나라의 중앙에 있어야 하는데 계룡산은 남쪽에 치우쳐 있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계룡산으로 수도를 옮기는 계획은 무산되었다. 두 번째로 거론된 후보지는 하륜 등이 주장한 현재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과 신촌 일대인 ‘모악’이었다. 하지만 정도전 등이 “모악은 땅이 협소하고 풍수도참 면에서도 적합한 땅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수도로 삼을 후보지를 둘러싼 조정의 논란 끝에 태조는 그가 ‘스승’처럼 대하던 고승 무학대사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수도를 찾았다. 그 결과 고려 후기까지 ‘양주’라고 불리던 한강 이북지역의 한양이 새로운 수도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곳이 정치·경제·지리·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양주지역에 속해 있던 한양이 조선의 새로운 수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면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새롭게 행정구역을 만들자 한양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 지역은 기존의 양주지역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양주’라는 이름을 계속해 사용하였다. 비록 현대에 들어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이 분리되었으나 현 양주시와 주변을 아우르던 양

주지역은 이때부터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구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양주의 역사는 조선의 건국과 그 시작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양은 1395년(태조 4) ‘한양부’라고 부르던 일대의 명칭을 ‘한성부’로 고치고, 1396년 종묘와 사직·도성·관아 등을 건설하면서 조선의 새 수도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한성부가 설치되고 넓은 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자 원래 그곳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일대에 살던 백성들을 오늘날 양주시 고읍동 일대로 이주시켰다. 넓은 지역에 걸쳐서 경복궁 등 왕실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성부에 살던 많은 백성이 고읍동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양주군’이라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이듬해 1397년에는 양주군을 ‘양주부’로 승격시켰다. 조선시대 인문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주지역의 지명과 경계가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조선시대 양주부 각 면리의 명칭과 경계

명칭	경계	명칭	경계
고주내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25리이다	산내	동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60리이다
주내	읍내이다	영근	북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80리이다
어등산	동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30리이다	회암	동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30리이다
별배곡	동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이다	접동	동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50리이다
주별	동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70리이다	건천	동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60리이다
진관	동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60리이다	금촌	동남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70리이다

명칭	경계	명칭	경계
와곡	동남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80리이다	시북곡	동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70리이다
상도	동남쪽으로 처음이 70리, 마지막이 100리이다	미음	동남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70리이다
하도	동남쪽으로 처음이 80리, 마지막이 100리이다	고양주	동남쪽으로 처음이 60리, 마지막이 80리이다
둔야	처음이 15리, 마지막이 30리이다	노원	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50리이다
구지	동남쪽으로 처음이 40리, 마지막이 70리이다	백석	서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40리이다
망우리	동남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60리이다	석적	서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40리이다
해등	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이다	신혈	서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60리이다
광석	처음이 25리, 마지막이 10리이다	진답	북쪽으로 처음이 20리, 마지막이 40리이다
천천	북쪽으로 처음이 10리, 마지막이 20리이다	이담	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50리이다
현내	남북쪽으로 처음이 30리, 마지막이 45리이다	청송	북쪽으로 처음이 50리, 마지막이 80리이다

조선의 수도로 새롭게 설치된 한성부는 수도를 지키는 도성 안팎으로 10리(약 4km)를 행정구역으로 삼았다. 그리고 도성 안쪽은 지금의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부윤이 직접 관할 하였고, 도성 바깥쪽은 안쪽과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관할 하였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태조 이성계가 한성을 수도로 정하면서 원래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양주부’ 를 새로 설치하여 이주시켰다. 이렇게 새롭게 이주시킨 사람들이 정착한 곳은 오늘날의 ‘고읍동’ 지역으로, 고려시대에는 ‘견주’ 라고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는 당시 관청의 역할을 하는 ‘치소’ 가 있었으며,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후 고읍동은 1397년(태조 6) 양주부로 사람들이 이주한 뒤로 1506년(중

종 1) 현재의 양주시 유양동에 새롭게 관청이 설치되기까지 약 110년 동안 양주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양주시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만들어졌고, 그 시작점은 고려 때 치소가 있었던 고읍동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양주는 오늘날의 동두천, 구리, 의정부, 남양주, 고양, 연천군 일부, 서울 일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양주지역은 연산군 시기에 잠시 소멸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은 경기 북부지역에 국왕의 무예훈련을 위한 ‘강무장(사냥터)’ 을 만들고 ‘금표’ 를 설치하여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무장에서 무예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양주지역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런데 이 지역은 천보산·오방산·차유령·소라산·상수역·대탄·마차산·실장산·종현산·백련천·석문현·수종산 등으로 오늘날 경기 북동부지역을 대부분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양주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행정구역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506년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 오늘날 양주시 유양동 불곡산 일대에 양주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양동을 중심으로 관청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오늘날까지 양주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양주시청 옆에 양주향교와 양주관아지가 있는 장소가 이 시기에 새로 건립한 관청의 흔적이다.

한편 당시 양주는 지리적으로 수도 한성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부는 1413년(태조 13)에 ‘양주도호부’ 로, 1466년(세조 12)에는 ‘양주목’ 으로 승격되었다. ‘도호부’ 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 명칭이었고, ‘목’ 은 ‘부’ 보다 한 등급 높은 행정구역 명칭이었다. 이를 통하여서 양주는 조선 초기부터 군사적·행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건국 초 한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양주는 수도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양주는 지리적으로 한성의 동북 지역을 매우 넓게 포함하고 있어 왕과 왕실을 외곽에서 보호하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1457년(세조 3)에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양주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인근 지역인 연천·마전·원평·적성·고양·교하·포천·영평·가평을 군사적으로 관할하였다.

한편, 세조 직전의 왕인 문종 시기에는 병기를 제조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군기감에서 염초를 구워낼 때 경기도 북부지역은 양주에서 모두 관리하게 하였다. 염초는 진흙에서 구워내는 화약의 연료로서 대포 등의 무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다. 그래서 염초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에서 엄중하게 관리하였다.

조정에서는 염초가 포함된 흙을 채취하는 ‘취토장’ 과 염초를 만드는 ‘염초장’ 을 전국으로 파견해 화약을 생산하여 한성으로 보내도록 했다. 양주는 당시 이러한 염초를 한성의 인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경기도지역에서 생산되는 염초의 관리를 양주에서 총괄하게 했다는 것은 양주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염초를 이용하여 화약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부터로, 고려 후기의 무장 최무선이 최초로 화약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화약의 재료인 염초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모든 나라가 화약 제조법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무선은 황해도 무역항 벽란도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알아낸 후 조정에 화약 제조기관을 만드는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충청도 금강을 비롯한 남쪽에 침입한 왜구 격파에 화약을 사용하여 커다란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최무선이 만든 화약으로 직접 왜구를 토벌한 경험이 있는 태조 이성계 또한 누구보다 화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군기감에서 화약을 관리하게 하였다.

## 2. 왕실의 지원을 받은 회암사

집은 모두 262칸이다. 부처의 높이가 15척이 되는 것이 7개요, 관음상은 10척이 된다. 집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여 우리 동쪽에 있는 국가에서는 제일이고 강호를 둘러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비록 중국이라도 이런 절은 흔히 볼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했다. 『동문선』 권73, 「천보산회암사수조기」.

천보산에 있다. 고려 때 서역 중 지공이 여기에 와서 말하기를, ‘산수 형세가 완연히 천축국 아란타절과 같다.’ 하였다. 그 뒤에 중 나옹이 절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죽었고, 그 제자 學田 등이 공역을 마쳤다. 집이 무릇 262칸인데, 집과 상설이 굉장-미려하여 동방에서 첫째였고 비록 중국에서도 많이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 불우 회암사 조.



『동문선』 권73, 「천보산회암사수조기」(출처 한국고전번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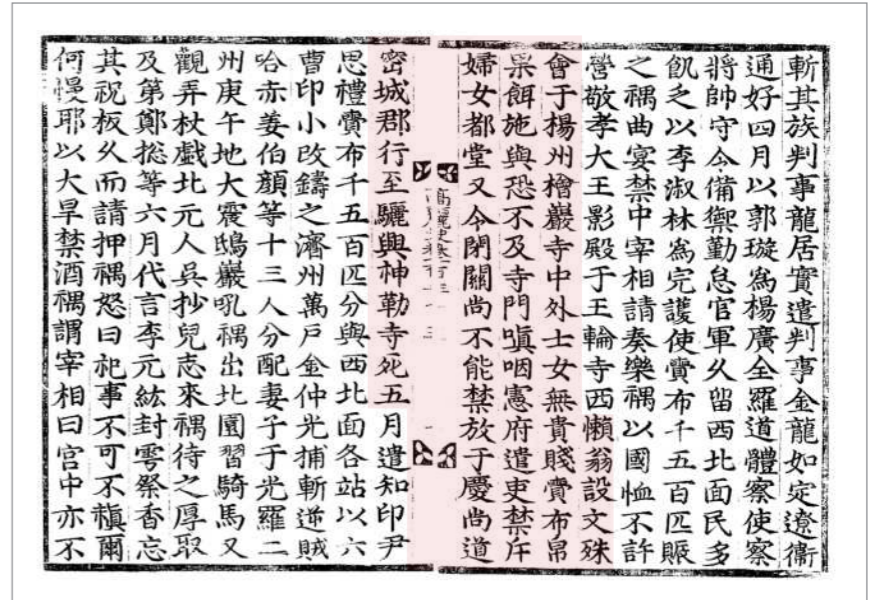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 불우 회암사조(출처 한국학 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회암사는 1328년(충숙왕 15) 인도에서 고려로 온 승려 지공 화상이 창건한 대규모 사찰이었다. 『동문선』 「천보산회암사수조기」의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사찰의 규모는 중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다. 인도는 불교의 발생지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으로 불교를 전파하였는데, 지공 화상은 인도 출신의 승려로 불교의 전파를 위해서 원나라를 통하여 고려로 들어온 것이었다.

회암사는 고려로 들어온 지공 화상이 인도의 아라난타사를 본떠서 창건한 사찰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공 화상의 제자인 승려 나옹이 1378년(우왕 4)에 회암사를 보수하고 고쳐 지은 후에 제일 큰 건축물이 되었다.

『고려사』 열전46, 신우 2년 4월(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나옹이 양주 회암사에서 문수회를 차림에 경향 중의 사녀들이 귀인 천민 할 것 없이 모두 포백과 과물 등속을 가지고 와서 앞을 다투어 바쳤으므로 절의 문이 메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헌부에서 관리를 보내어 부녀들을 오지 못하게 금하고 도당에서도 영을 내려 절문을 닫게 하였으나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옹을 경상도 밀성군으로 쫓아내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여흥(여주) 신륵사까지 가서 죽었다. 『고려사』 열전46, 신우 2년 4월.

『고려사』 기록을 살펴보면 승려 나옹이 고려시대부터 불교 경전이나 교리를 설명하던 법회를 회암사에서 열었는데, 귀족이건 천민이건 할 것이 없이 사람들이 모두 재물을 들고 와 앞다투어 방문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고려 때부터 믿어오던 불교사상을 억제하고 유교 사상을 장려하는 ‘숭유억불’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불교사상을 억제하는 국가정

책을 펼치고 있는 조선 초기에도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건 회암사가 당시 전국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의 관련성도 큰 역할을 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국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성리학과 이를 공부하던 성리학자들과 함께 손잡고, 고려시대부터 국가종교 역할을 하였던 불교를 대체할 수단으로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성리학은 중국 고대의 사상가인 공자의 대표 사상인 유교를 발전시킨 이념이었다. 처음에는 도덕적인 사상이었던 유교는 이후 한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와 명나라 시기에 발전하여 하나의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었는데 이것이 성리학이었다. 이것을 이성계가 수용하여 새로운 국가이념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쇠퇴하고 다른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지배적인 사상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새로운 질서를 확립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권력을 확립하여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회암사는 태조가 아들 이방원(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기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을 건국한 왕실 세력이 기도를 하는 장소로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회암사에 각종 물품과 토지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계를 도와 한양을 도읍으로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무학대사 또한 회암사에 기거하였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도 회암사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 특히 이성계는 무학대사가 죽은 뒤



무학대사의 유골을 봉안한 회암사 부도

그의 유골을 봉안한 부도를 회암사 북쪽에 만들도록 하는 등 회암사는 조선 최대의 사찰로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승려가 기거하는 위용을 자랑하였다. 하지만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던 회암사도 태종의 셋째아들인 세종이 집권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세종은 학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확대하는 등 성리학자들이 국정운영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집현전은 원래 태조 때부터 있던 기관인데, 세종이 이를 확대하여 실제적인 연구기관으로 개편하였다. 집현전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왕이 유교적 교양을 쌓도록 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불교를 대체할 국가사상으로 성리학을 선택한 조선에서 집현전은 국왕이 성리학 이념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연구기관이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회암사와 같이 불교를 상징하는 공간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승유억불’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다. 그



런데 회암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정의 관리들이 이를 견제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회암사지 입구에는 예전에 시장이 있었는데 회암사가 번창하던 시절에는 승려들이 여는 시장인 ‘승시’가 열렸는데 회암사 승려 1,000여 명이 물건을 매매할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언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헌부·사간원·홍문관 같은 기관들이 있었다. 이들 기관을 합쳐 ‘삼사’라고 불렀는데, 국왕에 대해서 정치문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조선시대 관리들은 이곳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였다.

회암·대자의 두 사찰이 한성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무식한 무리들이 시주를 칭탁하고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불공을 크게 벌이고 있으며, 사대부들도 이를 다투어 본떠서 세가의 부녀자까지도 공공연하게 절에 올라가는 등 국법을 범하고 있사오니, 비옵건대 사찰의 예에 의하여 여기에 관리를 파견하여 무시로 이를 적발하게 하소서. 『세종실록』 세종 17년 3월 3일.

그런데 이러한 삼사 중 하나인 사헌부에서 1435년(세종 17) 3월 3일 회암사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몰려가 공공연하게 시주를 하고 불사를 벌이는 일에 대해서 규탄하기 시작하였다. 사헌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사회풍속에 대한 교정과 탄핵이었는데, 사람들이 회암사에 몰려가서 불사를 벌이는 사회풍속에 대해서 규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하였던 ‘승유억불’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는 태조 이성계 때부터 왕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기 시작하였던 회암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원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조선 제9대 왕 성종 시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구체화 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1487년(성종 18) 1월 23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삼사 중 하나인 사간원에서 사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많은데 이 비용으로 국가방어와 백성들을 위해서 쓰면 더 이익인데 왜 쓸데없는 곳에서 써서 낭비하는 것이냐고 성종에게 상소를 올린다.

신 등이 듣기로 옛 현인들의 말에 이르기를 불교의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통촉해 보시는 것인데,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우선 그 국가를 좀먹는 것을 들어서 그 만의 하나를 대략 진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승려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관찰하면 …… 회암사는 소금이 60석 ……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은 데 이릅니다. 10년을 합하여 보면 소금이 총계 6천 2백 20석 10두, 말장이 2백 30석, 황두가 1천 2백 30석, 쌀이 1천 7백 4석, 마포 2백 80필, 면포 5백 필이며, 20년을 쌓으면 소금·쌀·말장·황두가 총계 1만 8천 7백 60석이 넘고, 마포·면포가 1천 5백 60필인데 비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로써 적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로써 성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 튼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데 쓴다면 수십 만의 얼고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적하는 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고혈을 짜서 쓸데없는 곳에다 버리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성종실록』 성종 18년 1월 23일.

앞서 사헌부의 규탄에 이어 이번에는 사간원에서 불교에 낭비가 심하다고 규탄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는 사찰의 목록에 회암사도 다시 언급되었다. 사간원은 국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였는데 불교에 국비를 쓰는 것을 비판하면서 회암사를 언급한 것이다. 성종 시기에도 세종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불교의 상징 중 하나인 회암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왕실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훈척’ 세력과 원칙적으로 성리학 이념에 충실하면서 신진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림’의 세력다툼에서 파생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훈척 세력은 조선의 건국에 막대한 공을 세운 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고, 사림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었다.

이렇게 성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유교 이념을 왕에게 상소로 올렸다. 이들은 임금이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국가를 운영하도록 만드는 일을 명예롭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삼사 등을 통한 언론기관에 복무하면서 회암사와 같은 불교 집단의 성장을 계속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명종(재위 1545~1567) 때에도 계속되었다.

1549년(명종 4) 9월 8일 『조선왕조실록』에는 회암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암사는 태종대왕의 능침사인데 유생들이 난입하여 소란을 피워서야 되겠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능침사는 왕과 왕비의 명복을 비는 기능을 하는 사찰인데, 태종의 능침사로 회암사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회암사의 위세가 이때에도 약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선의 왕은 성리학 이념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했기에 회암사가 아무리 선대왕의 능침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도 유생들이 그곳에 들어가려는 행동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당시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유생들은 집에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절에 들어가서 독서하는 것이 오래된 풍습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장 큰 사찰 중 하나였던 회암사에도 공부하러 들어간 유생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회암사는 태종의 능침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왕의 비서기구였던 승정원에서는 유생들이 절에 올라가서 독서하는 것은 예로부터 오래된 풍습이기 때문에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는 능침사인 회암사에 함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사

람이 있으면 죄를 묻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소란을 피웠던 황언정은 과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박탈한다고 하였다. 당시 과거시험은 유생들이 평생을 걸고 붙을 때까지 도전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과거 공부를 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비록 한 차례지만 박탈하였다는 것은 능침사 소란 문제를 매우 엄하게 다스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은 불교의 부흥을 장려하였던 승려 보우와 유생들의 입장이 충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였다. 승려 보우는 불교의 부흥을 추진한 승려였다. 15세 때 금강산에서 출가하였으며, 뛰어난 수양력과 불교·유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명한 유학자들과도 깊이 교류하였다. 그의 인연 중에는 연산군을 쫓아내고 왕이 된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로 수렴청정을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문정왕후도 있었다.

보우는 함경도 함흥지방에서 호남지방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병을 얻어 회암사에서 요양하다가 문정왕후의 지시를 받고 봉은사 주지로 취임하였다. 이때 문정왕후에게 요청하여 소란을 피운 황언정 등을 처벌하게 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보우는 유생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다.

이후 보우는 1552년(명종 7) 회암사 주지로 부임하였다. 그는 문정왕후의 비호 속에서 회암사 중창사업을 착수하여 1565년 4월 완공하였고, 낙성식을 겸하여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나누어주는 무차대회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무차대회를 참관하던 문정왕후가 병을 얻어 4월 7일 세상을 떠났다. 문정왕후의 장례를 마친 후 그동안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으며 유생들과 대립하던 보우는 잇따른 상소에 의해 승직을 박탈당하고 한성 인근 사찰의 출입을 금지당하였다. 하지만 유생들은 이러한 처사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집단 자퇴 등을 행하였고, 정승들까지 나서 보우를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한계산 운

악사에 은거하고 있던 보우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사망하였다.

1565년 보우가 유배지에서 죽자 이후 회암사에 대한 기록은 한동안 『조선 왕조실록』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1595년(선조 28)에 “회암사의 옛 터에 큰 종ی 있는데 또한 불에 탔으나 전체는 건재하며”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우의 사후 약 30년 사이에 회암사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부터 태조를 비롯한 왕실의 비호를 받아 성장하면서 위용을 자랑했던 회암사는 결국 비호세력이 사라지면서 폐허가 된 것이다.

한편 『세종실록』에는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회암사 불사 때 형 양녕대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하고 있다.

효령이 어느 날 양녕에게 ‘제가 원각사에 종을 주조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나 오직 공인들을 먹일 술과 국수가 부족하다. 형께서 도와달라’ 하니 양녕이 ‘네가 만약 나를 대시주라고 하지 않는다면 좋다’고 하자 효령이 ‘그리하겠다’ 하였다. 약정한 기일이 되자 양녕이 술과 국수 각 50그릇을 준비하여 절에 보냈다. 효령이 즉시 술과 국수를 거두고 그 그릇 1백개를 종에 함께 주조하고는 종머리에다 양녕을 대시주라고 썼다. 효령은 또 수륙회를 회암에다 베풀고 양녕을 청하여 참석하도록 하니 양녕이 응락하였다. 양녕이 기일도 되기 전에 사냥꾼들과 함께 짐승들을 몰아서 잡아가지고 드디어 회암으로 갔는데 포인들이 각기 사냥한 것들을 뜰에서 죽이고 굶고 하니, 효령이 울면서 간하기를 ‘이와 같은 악업은 부처가 금기하는 것이니 마땅히 죽은 뒤에 응보가 있을 것이다.’ 하자 양녕이 그 말에 웃으며 ‘살아서는 왕의 형이라 온 나라가 높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이라 십방이 받들 것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하면서 여전히 멋대로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었다. 『세종실록』 세종 28년 4월 23일.

설화대로라면 양녕대군은 동생 효령대군의 부탁으로 회암사에 시주를 많이 하였지만,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회암사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찰이 망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 3. '의적' 임꺽정의 탄생과 양주

회암사와 더불어 명종 시기에 양주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임꺽정’이 있다. 그는 양주에서 소나 돼지를 도축하던 백정 출신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홍길동, 장길산과 함께 조선의 3대 도적으로 꼽을 정도로 유명한 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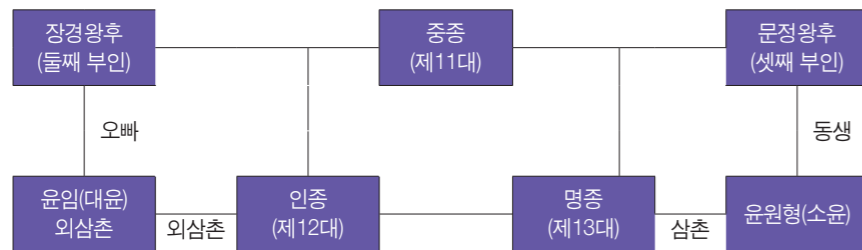
임꺽정은 양주 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또 날래고 용맹이 있으며 그 도당 10여 명이 다 날래고 빨랐다.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항거하면 살을 베고 사지를 찢어 죽여 몹시 잔혹하였다. 경기에서 황해에 이르는 사이의 아전이 백성들과 비밀히 결탁하고 관에서 잡으려 하면 반드시 먼저 알려주었으므로 기탄없이 횡행하여 관에서 금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 선전관을 시켜 염탐하게 하니, 적이 미투리를 거꾸로 신고 다니어 도적이 들어갔으면 보는 이가 나갔다 하게 되고, 나갔으면 보는 이가 들어갔다고 하게 만들어 혼란하게 하였으나, 선전관이 구월산에 가서 그 자취를 발견하고 적이 이미 나간 줄 알고 바로 돌아오는데, 도적이 뒤에서 선전관을 쏘아 죽였다. 「기재잡기」, 『연려실기술』.

조선 후기의 학자 이공익이 기록한 역사서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임꺽정은 양주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임꺽정이 활동한 명종대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 하나였다. 앞서 회암사를 지원하였던 문정왕후는 단경왕후와 장경왕후에 이은 중종의 세 번째 부인으로, 자신이 낳

은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자 했다.

이에 장경왕후의 오빠이자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으로 대표되는 ‘대운’ 과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명종의 삼촌인 윤원형으로 대표되는 ‘소운’ 간의 정치적 세력 대결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인종이 즉위함으로써 대운 쪽으로 세력이 기울었지만, 인종이 즉위 1년도 못 되어 죽자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고,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였다.

인종~명종 시기 대운과 소운의 세력구도



하지만 대운과 소운의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정치싸움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사림(대운)과 훈척(소운)의 대립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종이 즉위하던 1545년 윤원형 일파의 소운이 윤임 일파인 대운을 숙청하면서 을사년에 사림세력이 크게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참고로 조선의 4대 사화는 무오사화(1498, 연산군 4), 갑자사화(1504, 연산군 10), 기묘사화(1519, 중종 14), 을사사화(1545, 명종 1)이다.

한편 을사사화 당시 조선은 안으로는 가뭄과 홍수 때문에 흉년이 계속되었고, 밖으로는 왜구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특히 임궽정이 활동하는 1559~1562년의 약 3년간은 흉년이 계속되던 시기로, 기록에 따르면 겨울에는 비가 오면서 따듯한 날이 계속되고 여름에는 비가 안 오는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었다. 결국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해졌으며,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가렴주구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었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재상들이 탐오가 풍습을 이루어 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요를 섬기고 돼지와 닭을 마구 잡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 그런데도 곤궁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오행과 겁탈을 일삼으니, 이 어찌 백성의 본성이겠는가. 진실로 조정이 청명하여 재물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수령을 모두 좋은 사람을 가려 차임한다면, 검을 잡은 도적이 송아지를 사서 농촌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찌 이토록 심하게 기탄 없이 살생을 하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추적 포착하기만 하려 한다면 아마 포착하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 다 포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명종실록』 명종 14년 3월 27일.

기록에서도 보이지만 실록에서조차 도적들이 성행하는 것을 관리들과 정치가 청렴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정도인 시기였다. 16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조선 사회는 훈척 세력이 집권하고 권력가들이 대토지와 유통경제를 장악함으로써, 조세 수취제도를 문란하게 만들어 조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양인보다 이를 책임지지 않는 노비들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인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근거지를 박탈당한 백성들은 부역(負役)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도적단에 합류하는 등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임궽정의 난’ 이었던 것이다.

사실 역사적 기록에서는 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임궽정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의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홍명희의 소설 『임궽정』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최대 장편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임궽정』



정』은 1928년 『조선일보』에 연재를 하였는데, 1945년 해방 뒤에 소설 『임격정』(1948)으로 다시 발간되어 ‘의적 임격정’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러나 임격정은 양주지역을 활동근거지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자료들에서 임격정의 출생지로 양주를 언급하고 관련한 설화가 구전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요 활동무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양주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임격정의 활동근거지와 양주지역이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다. 임격정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경기 이북 지역 거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임격정 집단이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역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역촌지역은 조선시대 전통적인 통신제도로 사용된 ‘역(驛)’과 ‘봉수’ 중 역이 존재하고 있던 지역을 말하며 ‘역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역은 조선시대에 공적인 업무로만 사용되었으며, 일상적인 행정문서를 전달하는 업무, 군사 및 변방의 급부, 사신의 왕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법령을 수록하고 있는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역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조에서 관할하였다. 병조는 조선시대 나랏일을 맡아서 처리하던 6개의 중앙관청인 육조 중 하나이다. 육조는 각기 이조(인사), 호조(호구), 예조(의례), 병조(군사), 형조(형법), 공조(공장) 등으로 업무를 분류하여 맡고 있었다.

당시 역은 주요 지역에 30리(약 12km)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에 따라 대·중·소로 나뉘어서 운영되었다. 이 중 특히 중국으로 통하는 한성·의주 간의 교통로는 기본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기발’로 통신을 전달하였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사람이 직접 소식을 전달하는 ‘보발’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면 말을 이용하여 전국에 소식을 전달하는 통신망을 갖춘 것이 역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역촌지역은 역이 있는 지역으로 항상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말

을 관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임격정이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함경도까지 넓은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교통요충지를 중심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양주목은 임격정의 고향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수도 한성부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도적이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게다가 양주지역은 역대 조선의 왕들이 문혀 있는 능침지역이라 도적 활동의 대상이 되기는 더욱 어려웠다. 양주목에 부임한 목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양주지역의 능침을 보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4. 역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능침지역

양주목은 수도 한성부 인근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왕실 소유의 토지가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왕실의 능침이 많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양주목은 능침 조성에 적합한 산지가 많았던 까닭에 지리적으로 적당한 부분도 있었다. 양주에 문헌 왕과 왕비는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45명에 이르고, 능침의 수는 27개(연산군·광해군 포함)에 이른다. 훗날 이장한 능도 있지만 대개는 한강을 넘지 않아 오늘날의 경기 북부의 고양·파주 등으로 이전하였다.

원래 능침(陵寢)의 ‘능’은 능 위에 있는 영역 안쪽을 가리키는 말이고, ‘침’은 왕릉 앞에 세워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丁’자 모양의 정자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능침은 왕릉과 왕릉에 제사를 지내는 건물을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양주에 능침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양주 남쪽의 검암산에 조성되면서 부터이다.

양주지역에 조성됐던 조선 왕실 능침

연번	시호	능명	능지 구역	현 소재지	원 소재지	비고
1	태조	간원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2	신덕왕후강씨	정릉	-	서울 성북	양주 남쪽 사리	태조 계비
3	문종	현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4	현덕왕후권씨	현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문종 비
5	정순왕후송씨	사릉	-	경기남양주	양주 남쪽 군양리	단종 비, 1698년 추존 복위
6	세조	광릉	-	경기남양주	양주 동쪽 주엽산 직동	
7	정희왕후윤씨	광릉	-	경기남양주	양주 동쪽 주엽산 직동	세조 비
8	덕종	경릉	서오릉	경기 고양	양주 동쪽 봉현	세조 아들, 추존
9	소혜왕후한씨	경릉	서오릉	경기 고양	양주 동쪽 봉현	덕종 비
10	예종	창릉	서오릉	경기 고양	양주 동쪽 봉현	
11	안순왕후한씨	창릉	서오릉	경기 고양	양주 동쪽 봉현	덕종 비
12	연산군	연산군묘		서울 도봉	양주 해등면	
13	거창신씨	연산군묘		서울 도봉	양주 해등면	연산군 부인
14	단경왕후신씨	온릉		경기 양주	양주 장흥 수회동	중종 비, 1739년 추존 복위
15	문정왕후윤씨	태릉	태강릉	서울 노원	양주 노원 대방동	중종 계비
16	명종	강릉	태강릉	서울 노원	양주 노원 대방동	
17	인순왕후심씨	강릉	태강릉	서울 노원	양주 노원 대방동	명종 비
18	선조	목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19	의인왕후박씨	목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선조 비
20	인목왕후김씨	목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선조 계비
21	원종	장릉		경기 김포	양주 군양리	추존, 선조 아들, 1627년 김포 이장
22	인현왕후구씨	장릉		경기 김포	양주 군양리	원종비, 1627년 김포 이장
23	광해군	광해군묘		경기남양주	양주 건천 성능리	

연번	시호	능명	능지 구역	현 소재지	원 소재지	비고
24	군부인유씨	광해군묘		경기남양주	양주 건천 성능리	광해군 부인
25	장열왕후조씨	휘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인조 계비
26	효종	영릉	영녕릉	경기 여주	양주 남쪽 검암산	1673년 여주 이장
27	현종	송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28	명성왕후김씨	송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현종 비
29	경종	의릉		서울 성북	양주 남쪽 천장산	
30	단의왕후심씨	혜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경종 비
31	선의왕후어씨	의릉		서울 성북	양주 남쪽 천장산	경종 계비
32	영조	원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33	정성왕후서씨	홍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영조비
34	정순왕후김씨	홍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영조 계비
35	장조	용릉	용건릉	경기 화성	양주 배봉산	추존, 영조 아들, 1789년 화성 이장
36	익종	수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천장산	추존, 순조 아들, 1846년 동구릉 이장
37	신정왕후조씨	수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익종 비
38	헌종	경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39	효현왕후김씨	경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헌종 비
40	효정왕후홍씨	경릉	동구릉	경기 구리	양주 남쪽 검암산	헌종 계비
41	고종	홍릉	홍유릉	경기남양주	양주 미금	
42	명성황후민씨	홍릉	홍유릉	경기남양주	양주 남쪽 청량리	고종 비, 1919년 양주 미금 이장
43	순종	유릉	홍유릉	경기남양주	양주 미금	
44	순명왕후민씨	유릉	홍유릉	경기남양주	양주 용마산 내동	순종 비, 1926년 양주 미금 이장
45	순정왕후윤씨	유릉	홍유릉	경기남양주	양주 미금	순종 계비

왕실의 능침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양주지역에는 예전부터 많은 혜택이 있었다. 우선 『성종실록』을 살펴보면 양주지역이 ‘부(府)’에서 ‘목(牧)’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제7대 왕 세조의 능인 광릉이 있어서 고을의 등급이 올라간 것이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인 ‘삼강오상’을 범하는 ‘강상죄’는 그 죄를 엄중하게 다뤘다. 여기서 삼강은 군위신강(임금은 신하의 버리가 되고)·부위자강(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고)·부위부강(부부 사이에는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다)이고, 오상은 인·의·예·지·신을 말한다. 하지만 양주의 경우에는 능침 소재지라는 명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도 읍호가 강등되지 않았다.

양주에 주인을 살해한 죄인 생이가 승복하고 정형을 받았다 하여 목사 민진량을 법전에 따라 파직하고, 능침 소재지라 하여 읍호는 강등시키지 않았다.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2월 2일.

남편을 죽인 죄인 애상이 자복하고 처형되었다. 죄인이 살던 양주의 전 목사 박정을 파직하였다. 능침이 있는 고을이기 때문에 읍호를 강등하지는 않았다. 『현종개수실록』 현종 6년 5월 29일.

역적의 태생 고을을 금부에서 조사했는데, 강몽협은 춘천부 태생이고, 강몽상은 양주목 태생이며, 박수담은 충주목 태생이요, 김인제는 양주목 태생이며, 유봉성은 춘천부 태생이요, 송수악은 양천현 태생이며, 조운은 고양군 태생이요, 김정관은 해미현 태생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파직하지 말라는 것은 전에 정탈하였고, 양주와 고양은 능침이 있는 곳이어서 예가 강호(등급을 내리는 것)할 수 없으니, 춘천 부사, 충주 목사, 양천 현령은 모두 강등하여 현감으로 하고, 해미현은 순서를 여러 현의 아래에다 두어 폄강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영조실록』 영조 31년 6월 1일.

사례로 든 세 가지 기록은 모두 유교의 기본도리인 ‘삼강오상’을 범하거나 역적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승정원일기』 인조 20년 2월 2일의 “능침 소재지라 하여 읍호는 강등시키지 않았다.”라는 기록에서도 보듯이 양주목은 능침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강상을 범한 죄인이나 역적이 태어난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고을의 등급이 강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영조실록』 영조 31년 6월 1일 기록을 살펴보면, 충청도 해미현의 경우에는 양주와 같은 능침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현 아래로 고을의 등급이 강등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주지역은 그만큼 특별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능침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양주목은 능침 소재지이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았으나 그에 못지않은 부담도 지고 있었다. 우선 양주목에 부임한 관리는 능침 보호를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였고, 백성들은 능침 부근에 산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각종 요역에 동원되었다.

요역(徭役)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농작물을 바치는 조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수취제도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도시를 건설하고, 관청을 지었으며, 성을 보수하거나 토목공사를 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양주지역의 경우 왕과 왕비의 능을 조성하는 산릉 조성작업에 노동력이 동원된 것은 물론, 왕이 능에 행차할 때는 도로나 주변 정리에 노동력이 투입되었으며, 물자를 징발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산릉을 지키는 ‘산릉수호군’에 뽑히면 갖은 고생을 겪었기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였다.



특히 양주 백성에게 1년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었는데, 능에 배알하러 갈 때 양주 백성들이 물자를 바쳐야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해조에 하교하기를, ”여러 차례 능에 배알하러 갈 때마다 양주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위로하거나 보답하지 못하였다. 구례에 따라 전세의 반을 감면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 광해군 2년 12월 29일.

이형상이 말하기를, ‘양주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본래 큰 고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홉 능이 경내에 있어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둔전이 거의 20여 군데에 달하며, 각종 군병과 모든 보인이 거의 5분의 4~5가 됩니다. 또한 역마의 위전(位田)과 부세가 면제된 각종 토지도 3천여 결에 달하며 각 능침의 향탄산(香炭山) 13곳을 아울러 5백여 리나 됩니다. 이렇듯 토지와 인민을 거의 다 빼앗긴 뒤에 결코 관청의 모양을 갖추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역참도 수십 군데에 이르며, 능침을 살피는 사신과 초료장을 가진 공적인 행차가 끊임없이 연속되어 공궤와 대접에 피폐하여집니다. 만약 지금 변통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의 황폐된 고을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의 능침이 있는 곳이고 경기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서 다른 고을과는 크게 다른데 수습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감사와 양주목사로 하여금 상의해서 폐단을 조목별로 열거하게 하여, 묘당에서 의논해서 크게 변통시킨 뒤라야 양주가 소생될 가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비변사등록』 숙종 18년 2월 15일.

기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주지역은 논밭에 부과되는 세금인 전세를 반 정도 감면해 주었다. 하지만 양주에 능침이 몰려 있다 보니 왕이나 조정 관리들이 능침으로 행차할 때 감면해 준 세금보다 더 많은 물자를 징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능침과 관련된 조정의 행사가 많다 보니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초료장’을 가진 관리들이 수시로 파견되어 능침을 점검하였

는데, 주민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폐해져 갔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양주지역의 주민들은 혜택 이상으로 왕실의 능 행차나 능침 관리와 관련해 부과된 많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5. 임진년 왜군과 맞서다

### 1) 임진왜란 최초의 육상전투 승리, 해유령 전투

해유령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선조 25) 5월 16일 양주시에 있는 노아산(337m) 기슭의 백석읍 연곡리 게너미 고개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주전투’라고도 한다. ‘해유령’이라는 명칭은 광적면 노아산에 위치한 게너미 고개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해유치’, ‘해령’이라고도 한다. 해유령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부원수 신각 부대가 육상에서 벌어진 전투 가운데 처음으로 승전을 올린 전투이다.

임진왜란은 1590년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병력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공한 전란이다. 4월 12일 오후 부산에 도착한 왜군은 5월 25일까지 부산 일대를 점령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조선의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였다. 이에 선조는 우의정 이양원을 유도대장(임금이 도성 밖으로 갈 때 남아 도성을 지키는 대장)으로 임명하여 한성을 지키게 하였고, 김명원을 도원수, 신각을 부원수로 하여 왜군을 막게 하였다. 하지만 김명원은 용산의 둔지산 일대에서 왜군의 한강 저지에 실패하여 임진강 쪽으로 물러났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원수 김명원은 요즘 처사가 매우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성이 함락된 지 이미 오래인데 진격할 마음이 없고 오로지 물러앉아 나루터를 지키는 일을 상책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기를 잃은 것이 몇 번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또 부원수 신각이 제 마음대로 도피했는데도 이를 제어하지 못했으니 그 나머지 일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 신들은 우려를 이기지 못하여 늘 체직시키려고 했지만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마당에 장수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16일.

조정에서는 김명원과 신각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교체하려고 하였지만, 신각은 김명원을 따르지 않고 유도대장 이양원과 양주로 이동하여 산속으로 들어가 군사들을 수습하면서 전열을 정비하였다. 때맞춰 함경도의 남병사(함경도 북청에 있는 병마절도사) 이훈이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여 전열은 강화되었다. 신각은 이들과 합류한 인천 부사 이시언과 대오를 재편하여 북상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양주의 해유령(현 백석면 연곡리)에 매복하였다. 한성을 침탈한 왜군은 선조를 뒤쫓아 북진을 거듭하였는데, 이때 지나가야 했던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양주목이기 때문이었다.

신각을 중심으로 재편한 조선군은 한성에 침입했던 왜군이 식량과 물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살피던 중 한 무리가 파주에서 양주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파주 광탄면에서 양주 광적면을 지나는 게너미 고개 일대에 병력을 이동시킨 신각은 5월 16일 왜군이 다가오자 매복해 있다가 기습공격을 가하여 왜군을 패퇴시키고 70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유령 싸움의 승리에 대한 논공행상은 마땅히 그 주장이 등급을 계문한 뒤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격장 인천 부사 이시언은 지난번 양주의 장수원 싸움에서 힘껏 싸워 진을 뚫었는데 지금 또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병을 3명이나 죽였으니, 우선 당상관에 특별히 가자하시어 싸움에 나간 병사들의 사기를 격려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선조 25년 5월 20일.

해유령 전투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계속 패퇴하던 조선의 군대가 최초로 육상에서 승리한 값진 전투였다. 이에 선조는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뒤로 처음 이런 승전이 있으므로 원근에서 듣고 의기가 솟구쳐 올랐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사기 진작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승전보를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하였던 신각은 한강을 방어하다가 패퇴한 김명원이 주 장수인 자신을 따르지 않고 도망쳤다고 보고하고, 왜군에게 임진강이 돌파되고 개성이 점령된 책임도 신각에게 떠넘김으로써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에는 억울하게 죽은 신각을 기리는 충현사가 있어 매년 추모 제향을 올리고 있고, 왜군과 싸워 이긴 해유령에는 경기도 기념물 「해유령전첩비」가 세워져 있다.

## 2) 고언백의 능침 방어

패퇴하던 조선군이 해유령 전투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미 한성 도성을 점령한 왜군은 조선 왕실의 주요 자산에 대한 노략질을 감행하였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조선 궁궐의 상징인 경복궁도 이때 불타서 전소되





임진왜란 때 억울하게 죽은 신각을 기리는 양주 충현사와 추모 제향(출처 양주시 공식 블로그 클릭 양주)



임진왜란 육상전투 최초의 승리를 기념하는 「해유명전첩지」

었다. 뿐만 아니라 왜군은 역대 조선 왕실의 무덤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소문을 믿고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훼손된 능침은 양주 목에 위치한 세조의 광릉, 문정왕후의 태릉, 명종의 강릉을 비롯하여 광주 목에 있는 성종의 선릉과 중종의 정릉 등이었다.

태릉의 능묘가 왜적들에 의해 파헤쳐졌음을 경기 관찰사가 알렸다. 영의정 최홍원과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능침에 변괴가 있었다니 망극하여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고, 중전은 이르기를, “알았다. 망극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9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조직하는 등 왜군과 맞서 싸웠으나 왜군을 도와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부역자들도 일부 존재하였다. 이들은 왜군에게 능침에 금은이 있다는 소문을 내어 능침을 파헤치는데 일조하였는데, 채소 재배 등을 관장하였던 사포서의 종인 효인이 왜군을 도와준 예시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2월 16일에 적이 기병과 보병 50여 명을 거느리고 또 성 중의 주민 50명을 뽑아 강릉과 태릉에 가서 능을 파지만 능 위에 회가 단단하게 막혀서 깨뜨리지 못하고 날이 저물어 피하고 되돌아왔으며, 또 대원군의 묘소에 가서 파지만 뚫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사포서 종 효인이 당초에 ‘능침 속에 금은을 넣어 간직하였다’고 사주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26년 1월 22일.

왜군에 의한 능침 훼손 소식은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된 피해가 올라오는 조정에도 침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이러한 소식을 전한 사신들은 능침이 훼손됨으로써 “치욕이 선조들의 능침에까지 이르렀으니 원통함과 분함이 망극하다.” 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때 양주에서





노원구 당현천에 세워진 고  
언백 장군 동상

능침을 방어하며 싸움을 전개한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양주 목사 고언백이었다.

고언백은 본관이 제주로 무과에 급제하여 군관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를 따라서 적의 수급을 벤 공이 있었는데 양주목으로 가서 군사를 모아 적군을 치겠다고 자청하니 임금이 특별히 양주 목사에 임명하여 능침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양주목사 고언백은 “경성의 적군이 경성 밖에서 3진으로 나누어 때때로 양주 지방을 분탕질하는 까닭에 내가 복병을 두어 다수를 사로잡았다.” 하였습  
니다.” ..... 상이 이르기를, “양주도 적에게 함락되었는가?” 하니, ..... “양주의  
한 방면은 적이 차지하고 있으나 곳곳에 아군이 매복해 있기 때문에 멋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26년 8월 8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 강릉과 태릉의 변은 실로 고언백이 공격하여 죽여  
흩어지게 한 공으로 인하여 그 흉한 모의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참한  
24명의 수급은 공이라고 할 것은 없으나 선조의 능묘가 이로 인하여 보전되었  
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마땅히 논상하여야 하는데 이미 가선으로 올랐으니 더  
가자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고, 고언백은 가자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선조 26년 12월 22일.

고언백은 임진왜란 당시 양주지역에서 왜군과 세 번이나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고, 토원지역(현재 퇴계원)에서의 전투에서는 왜군 62명의  
수급을 베는 전공을 올리기도 하였다. 고언백은 능침지역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적군을 격퇴하였다.  
이러한 활약으로 도성을 탈환하는 작전에도 투입되어 선봉의 역할을 수행  
하였고, 명나라의 원군을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였다. 그는 이러  
한 공적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경상좌도 병사까지 역임하였다.

## 6. 병자호란 이후 도성 방위와 흥복산

1592년(선조 25)부터 시작하여 1598년까지 이어졌던 임진왜란으로 전국  
은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유리되었다. 하지만 대  
외적으로는 임진왜란을 지원하였던 명나라가 후금에 의해서 멸망하고, 명  
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정책을 펼치던 광해군이 1623년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제16대 왕으로 인조가 등극하였다.

그러나 1624년(인조 2) 인조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이 공신 책봉에 불만  
을 가지고 도성을 점령하여 인조가 공주로 피신하였다가 난 진압 후 복귀  
하는 등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1627년에는 이괄의 편에서 반

란에 참여하였던 사람 중 일부가 후금으로 탈출하여 광해군이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광해군을 내쫓고 정권을 잡은 인조반정 세력은 명나라를 중시하고 후금(청)을 멸시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는데, 후금은 반정을 빌미로 조선을 침공하였다. 정묘호란이 발생한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후금군의 배후를 공격하거나 군량을 공격하는 등 분전하였다. 이에 후금군은 황해도 평산지역 이남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고 양국은 화의를 맺었다. 하지만 조선은 후금이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로 바꾸고 더욱 많은 세폐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후금에서 나라 이름을 바꾼 청나라는 이를 빌미로 1636년(인조 14) 병자년에 다시 조선을 침입하였다. 이 전쟁이 병자호란으로, 도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에서 항쟁하던 인조가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을 맺게 된다.

1592년 임진년의 왜란에 이어 1624년 이괄의 난, 1627년 정묘년과 1636년 병자년 호란 등 난이 발발할 때마다 속절없이 도성이 함락되는 상황을 경험한 조선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성 방어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청으로부터 성벽의 수리와 신축을 제한받은 데다가 계속되는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에 민심 수습을 위하여 오랫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도성 방위를 위한 논의는 제19대 왕 숙종 시기에 북한산성 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703년(숙종 29)에 도성 방위를 위해 북한산성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성을 축성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양주 흥복산(현 양주시 어둔동)이 전략적 요충지로 거론되었다.

흥복산은 양주시와 의정부시 사이에 있는 산으로, 태조 이성계가 무학 대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던 도중 흥복산을 넘어 한양으로 들어가다가 양주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는 과인의 흥복(洪福)이로다.”라고 감탄함으로써 이름이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흥복은 ‘큰 행복’이라는 뜻이다.



『숙종실록』에서 언급된 지역이 표기된 「1872년 지방지도」 (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흥복산은 조선 초까지 왕의 공식 수렵장이면서 군사 훈련장인 강무장으로 사용되었는데, 임진왜란과 양대 호란을 거치면서 한성을 방위하는 산성 수축 대상지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가 또 진달하기를, “흥복산성은 사방에 엿볼 수 있는 산이 없고, 물과 풀이 매우 무성하며, 앞에는 도봉산과 삼각산이 있어 백악에 이르면, 사민들이 피난하는 길이 될 만하고, 북문이 험하고 막혀서 수레 두 채가 나란히 갈 수 없으며, 기름진 들이 인접해 있고 물이 있으므로, 들어가면 지킬만하고 나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형세가 좋기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숙종실록』 숙종 29년 1월 20일.

행 사직 이인엽이 상소하기를, “지금 성을 만들기에 적합한 땅을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탕춘대성과 홍복산성이라고 말하는데, 형세의 험준함이 어느 곳이 낮고 어느 곳이 못 한지를 피차 비교해 헤아리지 않고서 곧 한 마디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막대한 일을 결정 하였습니다. …… 듣건대, 홍복산성은 형세가 북성에 견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육로에 닿아있고 또 남한(南漢)과 짝을 이룰만한 형세가 있으니 마땅히 양주의 읍치를 홍복산성 안으로 옮기게 하여 세월을 끌면서 차차로 쌓게 할 것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29년 4월 5일.

조정 대신들은 홍복산이 밖으로는 넓은 들판이 있고 안으로는 물이 풍부하여 도성에서 나무를 이용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천애의 요지이므로 축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성을 축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유양동에 위치한 양주의 읍치를 홍복산성 안으로 옮겨서 성을 축성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볼 때 홍복산을 중심으로 한 수도방어 논의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홍복산이 좋은 곳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위에 돌과 나무가 없어서 축성에 어려움이 많고, 북한산은 천혜의 요지로 오래전에 쌓은 석축이 일부 남아 있어 북한산성의 축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결국 홍복산성 축성은 불가론 쪽으로 기울면서 논의는 종료되었지만 읍치 이전까지 논의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로서 양주지역의 역할이 조명되었다.

이처럼 양주지역은 조선 초기 왕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역대 왕들의 무덤이 존재하는 능침지역으로서, 군사적으로는 수도 한성의 주요 방어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양주의 위상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7.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양주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과 상품 유통의 발달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을 거친 조선은 이전과는 다른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는 대동법을 시행하고, 화폐의 유통,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상의 성장과 농업생산물의 상품화, 못자리에서 기른 모를 본답에 옮겨 심어 재배하는 이앙법의 시행, 사회의 유교화 등은 조선의 사회·경제적 환경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조선 사회는 16세기 이래 이앙법의 보급과 작물에 비료를 주는 시비법의 발달, 품종의 개량 등 농법이 개량됨에 따라 농업생산력이 발전하였다. 17세기에 들어와서는 농업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이앙법의 발달은 농촌경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앙법은 씨를 농지에 직접 뿌리는 직파법에 비해 노동력이 훨씬 적게 들면서도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오면 농민들은 논에 물을 공급하는 수리시설의 확보에 힘써서 이앙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제언·보와 같은 저수지가 새로 만들어졌고, 1662년(현종 3)에는 이러한 수리시설을 관장하는 제언사가 설치되었으며, 1778년(정조 2)에는 제언절목을 발표하여 수리시설의 개발에 힘쓰는 등 국가지원 하에 제언의 축조와 수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시설의 정비·확대로 18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수리시설이 약 6,000여 개에 달하였다. 양주의 경우도 비교적 큰 제언이 6기나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이 이후에는 조선의 주요 조세제도 중 하나인 지방의 특산



물을 조정에 바치는 공납제가 폐지되었다. 대신 특산물을 쌀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공납제는 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조정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운반의 어려움과 상업 유통이 발달하면서 점차 상인이나 향리 등이 대신 납부하고 그 값을 받는 방납이 성행하였다. 그런데 방납을 행하는 이들이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착취를 일삼아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1608년(광해군 1)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이 100년에 걸쳐 1708년(숙종 34)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모든 백성이 쌀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공납제의 폐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관청에서는 상인을 통하여 지방 특산물품을 직접 조달했는데, 이를 조달하는 공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들은 관청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직접 물품을 조달하다가 점차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들끼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계’를 조직하거나 공인들끼리 ‘공계’를 조직하여 공물을 사서 납부하고 대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들 ‘공인층’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다른 상인이 거래할 수 없도록 ‘금난전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성의 육의전이나 지방의 객주(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상인) 및 여각(각 연안의 포구에 자리 잡고 지방에서 오는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상인)과 거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장한 사상들은 한 가지 물품만을 매점매석해 대량으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도고’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 2) 양주 인구의 증가

왜란과 호란 이후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상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도 동반하였다. 조선시대의 호적은 가장인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한 집안에 속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록해놓은 문서이다. 조정에서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군인의 신분을 정리한 군적이 작성되는 등 호적은 국가 수취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군적이 처음으로 작성된 것은 1393년(태조 2)이며, 집의 수효와 식구 수를 파악한 ‘호구’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1404년(태종 4)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조사는 15세 이상의 남자만을 정리한 통계였다.

조선시대 양주지역의 인구수 변화 추이

단위 : 호·구(명)

연도	호수	구수		
		남자	여자	계
1454	1,481	-	-	2,726
1487	4,548	-	-	-
1693	8,700	-	-	-
1757	11,363	23,624	28,927	52,551
1760	10,007	25,383	26,411	51,794
1789	12,465	-	-	60,425
1871	12,251	30,236	30,126	60,362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16~60세 남녀를 조사한 통계는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온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호구 중 집의 수를 나타내는 ‘호’는 22만 375호이고, 인구수를 나타내는 ‘구’는 80만 1,847구였다. 이 중 경기도는 호수가 2만 892호에 인구수는 5만 352구였고, 양주는 1,481호에 2,726구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경기도의 부·군·현 중 인구 2,000명이 넘는 곳은 5개에 불과했음을 볼 때 양주는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이었다. 또한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까지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정리한 『여지도서』를 보면 당시 양주의 호구 총수를 알 수 있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18세기 양주부의 읍면별 호구 현황 단위 : 호·구(명)

읍면	호수	남	여	계	읍면	호수	남	여	계
읍내	450	924	998	1,922	내동면	154	314	354	668
고주내면	304	623	964	1,587	별비곡면	490	857	1028	1,885
회암면	205	446	589	1,035	접동면	259	859	657	1,516
어등산면	160	355	648	1,003	진벌면	216	472	693	1,165
천천면	127	236	399	635	간천면	374	735	877	1,612
진답면	256	759	795	1,554	진관면	274	672	754	1,426
현내면	226	541	688	1,229	금촌면	343	768	1041	1,809
이담면	427	1046	1215	2,261	상도면	415	878	864	1,742
산내면	135	211	401	612	하도면	388	755	922	1,677
청송면	375	782	1035	1,817	와공면	431	904	1233	2,137
영근면	246	555	544	1,099	독음면	332	655	922	1,577
석적면	395	762	1285	2,047	구지면	488	672	886	1,558
광석면	204	402	660	1,062	고양주면	732	1754	1394	3,148
백석면	591	1461	2702	4,163	망우리면	233	359	529	888
장흥면	349	672	733	1,405	노원면	311	683	704	1,387
신월면	321	614	588	1,202	해등촌면	379	742	810	1,552
시북곡면	417	849	1062	1,911	합계	11,231	23,775	29,722	53,497
둔아면	224	458	748	1,206					

표에서 보이듯이 당시 양주부 전체 호수는 1만 1,231호이고, 구수는 5만 3,497구(남자 23,775, 여자 29,722)이다. 조선 초 세종 시기와 비교할 때 약 300년 만에 호수는 약 8배, 구수는 약 20배 늘어났다. 물론 세종 시기의 구

수는 전체가 아니라 16~60세만 조사한 것이라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은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양주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호구의 증가가 상당 부분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 변화는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수도 한성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과 교통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품유통 경제가 활성화가 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2) 교통로로서의 입지 조건 강화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수도 한성부의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의 증가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이들이 소비하는 식량과 빨감 등의 필수 품목이었다. 쌀과 콩 등의 주식은 도성과 지방의 농장에서 올라오는 곡식으로 충당되었으나 원거리 수송이 불가능한 채소·과일·수산물 등은 주로 경기도와 같은 근교 지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여파로 전국 각 지역에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민들은 일거리를 찾아 도성으로 몰려들거나 인근의 양주목과 같은 지역의 장시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결국 양주지역의 인구수 증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교역로로서 양주의 입지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교통은 사회·경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적인 임무를 띤 행정·군사적인 의미가 더 강하였다. 육로 교통수단으로는 ‘역참’을, 수로 교통수단으로는 ‘조운’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둘 다 공적인 임무를 띠고 명령을 전달하거나 변방의 소식을 전달하고 곡식과 같은 세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다. 반면 사적인 교통은 주로 직접 사람을 시켜

서 전달하는 인편을 통한 행위가 많았다.

북관으로 가는 큰길에 양주가 요충입니다. 또 세 개의 사잇길이 있으니, 하나는 평강 삼방곡으로 통하고, 하나는 낭천 주소령으로 통하고, 하나는 회양 법수현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읍치의 뒤로부터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북쪽에는 울대현이 있고 서쪽으로는 백석면을 따라 곧장 관서로 통하고, 또 하나는 삭령 경계로부터 해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마치 한 곳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수레바퀴 살처럼 이 고을에서 여러 갈래로 길이 뻗어 있습니다. 『정조실록』 정조 18년 1월 17일.

인용문의 실록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양주는 강원도 평강의 삼방곡과 강원도 화천의 옛 지명인 낭천의 주소령, 강원도 회양의 법수현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요충지였다. 또한 관서 지역인 평안도와 해서 지역인 황해도로 통하는 길까지 연결되어 있어 경기 북부지역은 모두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조선시대 인문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양주에는 영서역(서쪽 60리)·평구역(동쪽 70리)·쌍수역(풍양현 남쪽 2리) 등의 ‘역(驛)’과 광제원(남쪽 35리)·광인원(남쪽 30리)·상지원(서쪽 45리), 도공원(동쪽 74리)·덕해원(경성 30리)·도제원(풍양현 남쪽 15리)등의 ‘원(院)’이 있었다.

역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던 교통기관으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거점이며, 원은 조선시대에 공적인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나 상인 등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역과 함께 사용되었다. 즉 양주에는 3개의 역과 이와 관련한 6개의 원이 존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5개의 봉수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직접 봉화를 올리는 ‘직봉경로’인 제1연결로는 함경도 경흥에서 출발하여 안변·철원·양



18세기에 제작한 『동여도』(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로 보는 양주의 위치. 양주는 한성에서 강원도 낭천, 평강, 회양 등지로 갈 때 거치는 요충지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6책에 기록된 양주의 역원



주-남산으로 연결되었다. 경로상 양주는 수도 한성부와 함경도에서 강원도를 거쳐 양주를 통하는 동북 지역 교통체계의 주요 거점지역이었다.

1751년 이증환이 저술한 지리지 『택리지』에 따르면 원래 양주지역은 토질이 비옥하여 농업을 하기에 이익이 많이 나고 자생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보았듯이 양주는 조선 초까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포함하여 수도 한성부의 북방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요충지로 역할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함경도·황해도·평안도 지역에서 생산된 곡식이나 수산물·과일·면포 등은 양주를 지나야만 수도 한성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한 경기 이남 지역에서 생산된 면포 등도 양주를 지나야만 한성부 동북 지역으로의 공급이 용이하였다. 양주의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조선 후기 장시가 발달하면서 각종 교역 물품을 수도로 공급하는 주요 교역로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 3) 장시의 발달과 누원점

전쟁 이후 황폐해진 농지를 떠났던 많은 백성이 읍내로 돌아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상권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상인들 외에 군소 상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읍내 영세 수공업자들이 생산하는 물품과 읍치 근교에서 재배되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전매특권을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의 상업 형태는 서울의 시전 및 각 지방의 시장을 중심으로 육로행상을 하는 보부상과 수로 행상을 하는 선상 등으로 이루어졌다. 15세기 후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장시는 점차 5일장으로 정착하여 갔는데, 주

로 보부상에 의해서 각종 물품이 유통되었다. 물론 선상들의 상업활동도 있었으나 보부상처럼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후기 순조 시기에는 전국의 장시가 1,060여 곳으로 경기도에만 102곳이 있었는데, 19세기에 작성된 『양주읍지』에 따르면 양주에는 8곳에서 장시가 개설되었다.

조선 후기 양주의 장시 현황

연번	장시 명	위치	개시일	연번	장시 명	위치	개시일
1	가업장	주 서쪽 10리 광석면	3·8일	5	구곡장	주 동쪽 100리 상도면	1·6일
2	동도천장	주 북쪽 40리 이담면	5·10일	6	미호장	주 남쪽 60리 독음면	3·8일
3	화천장	주 북쪽 20리 어등산면	1·6일 2·7일	7	덕소장	주 남쪽 80리 외공면	1·6일
4	대탄장	주 북쪽 60리 청송면	4·9일	8	광릉천장	주 동쪽 50리 진별면	3·8일

비고 : 개시일의 3·8일은 매달 끝자리가 3과 8인 날을 의미함. 따라서 3·8일은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장이 열린다는 의미임.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기존의 시전상인이 아닌 사상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원래 시장거리에 있던 가게를 시전이라고 하였고 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시전상인이라고 일컬었는데, 이때는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 독점적으로 물품을 판매했던 한성의 상인들을 일반적으로 시전상인이라고 불렀다.

한편 농업이 중심이던 조선은 상업의 발달로 많은 백성이 장사에 종사하게 되면 농업이 위축되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상업을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명주·종이·어물·모시·삼베·무명 등 6개의 주요 물품을 파는 ‘육의진’ 등의 시전상인에게 정부의 필요 물품을 독점적으로 조달하게 하고, 다른 상인들이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금난전권’이라는 전매특권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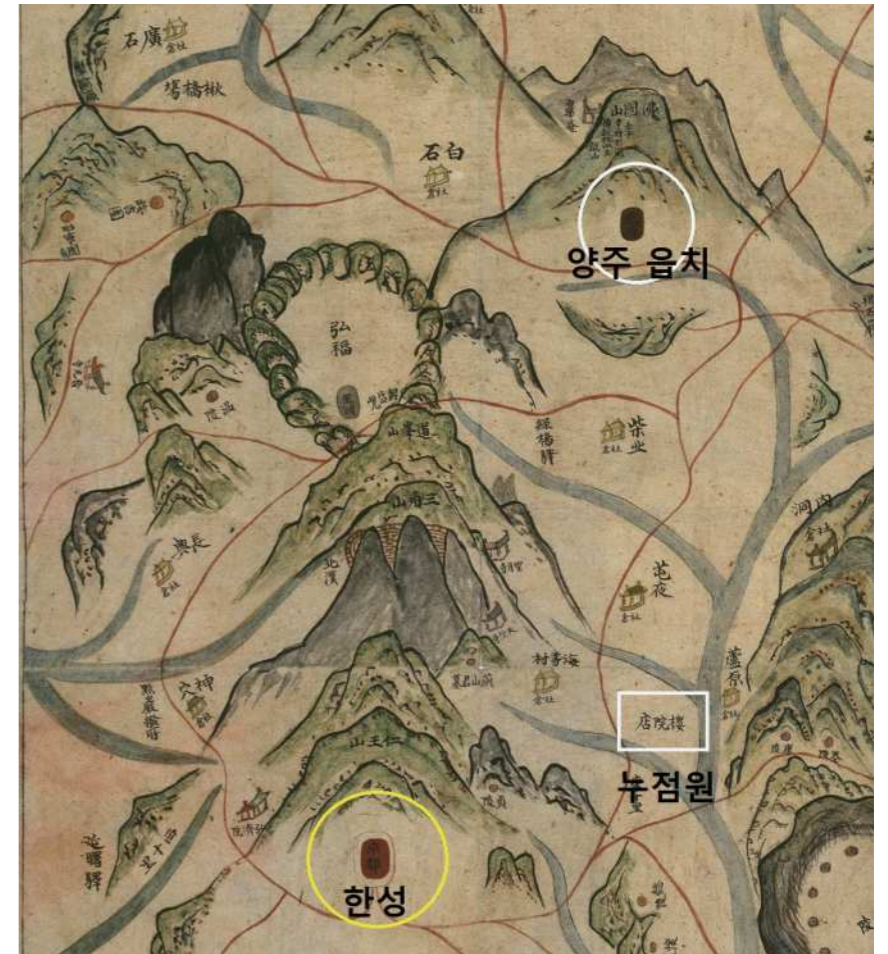
그러나 조선 후기 대동법과 같은 주요 수취제도가 변하고 이로 인한 상

품 판매의 증가로 시전상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장사하던 사상들이 발전하고 특정 물품을 매점매석하여 영향력이 커진 도고 등이 등장하면서 기존 시전상인의 특권에 대항하는 양상이 발생하였다. 이들 상인집단 도고는 주로 한성부의 이현(동대문)과 칠패(청과동) 지역을 근거지로 하였다.

칠패나 이현의 상인들은 지방에서 상품이 올라오는 길목인 광주·양주·포천 등지에 일종의 지점을 차려놓고 곡물·어물·소금 등을 마구 사들였다. 이는 한성부 일원에 한정된 금난전권을 피하여 상품을 확보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전상인들과의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양주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시장은 누원점이었다.

누원점민이 장시를 신설코자 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대저 누원점촌은 동북어상의 입경도로에 위치하여 따로 건방이라는 명호를 창출하고 각자 상인들이 주인과 객상의 관계를 정하여 양로의 어물을 모아서 서울 시전의 이익을 횡탈하여 송파로 수송할 뿐만 아니라 혹은 호중으로 파송한다. …… 따라서 갑오(1774년), 을미년(1775년) 간에 이를 통금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세월이 흐르자 금령이 해이해져서 점민의 악습이 다시 살아났다. 점민들이 건방을 부설하고, 중도아배들이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한다. 이들은 궁민의 생애에 가탁하고 곡식의 교역을 칭하면서 장시를 창출하고자 여러 차례 소장을 관청에다가 내었지만 모두 물리쳤다. …… 지금 장시의 개설을 허락하면 중도아와 건방배들이 동북어물을 모집하여 도성에서 판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물 가격이 오를 것이고, 나아가 어물전인들도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비변사등록』 정조 8년 2월 29일.

현 도봉구 도봉동 340번지에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누원점은 기록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설치된 장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살펴보았



『1872년 지방지도』 「양주목지도」에 표기된 한성과 양주읍치 사이의 누원점(출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 양주는 교통로로서 경기 북부지역을 지나거나, 특히 함경도 경흥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요 교통로였다. 당시 이 교통로는 ‘한성-수유리점-누원점-서오측점-축석령-송우점’ 등을 지나야 했는데, 함경도에서 한성으로 오는 물품들도 ‘누원점’을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누원점은 수도의 중심부와 가까우면서도 북쪽 지방에서 오는 어물 등이 모이는 길목이어서 일찍부터 한성 주변의 상업중심지로 발달하였다. 게다가

가 한성부는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전권의 영향력이 미쳤지만 양주목은 한성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당시의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이 무렵 소위 무뢰배가 칠패에 난전을 차려 놓고 동쪽으론 누원주막과 남쪽으로는 동작진에 사람을 보내서 한성으로 들어오는 어물 몇천몇백 바리를 모두 매점해 칠패에 쌓아두고 시내 각처로 판매하였다. 이 때문에 서울에는 각종 건어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칠패의 난전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또 1781년(정조 5) 육의전의 하나인 내어물전 상인의 고발에 의하면, 양주 누원점 상인들이 동북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각종 어물을 중간에서 매점하였다가 수시로 값을 올려 판매하여 시내의 어물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물전 상인들이 실업 상태에 빠졌을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 누원점 상인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교통로로서의 이점을 이용한 상인들이 누원점에서 물품을 매점매석하여 한성부에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뜻대로 도성의 물품 가격이 오르고 내렸다. 특히 동북 지역에서 내려오는 어물 등이 누원점에서 모여 수도로 공급되는 양상이 도드라졌다. 한강을 끼고 있던 양주는 경기·충청의 내륙과 강원에서 수상으로 오는 물품과 재화가 거쳐 가는 곳으로 한강 경제권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어물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였던 누원점 상인의 활동이 주목되었다.

## 8. 개항과 산업사회로의 진입

### 1) 개항과 정치개혁의 단행

1876년(고종 13) 조선은 강화도에서 일본과 일명 ‘강화도 조약’으로 불리

는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조선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로 아시아 주변국과 외교관계를 맺던 관계를 벗어나 세계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이에 앞서 세계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파급으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변화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서양을 시작으로 농업이 중심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이 중심인 산업사회로 세계 각국이 변화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하여 산업사회로 변화한 국가는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과 도시발전으로 농촌의 인구가 거 도시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국가의 영토로 확대하여 식민지를 획득하는 제국주의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여파는 이렇게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1840년(헌종 6) 아편전쟁을 통하여 영국이 청과 ‘남경조약’을 체결하면서 청을 개항시켰고, 1854년(철종 5)에는 미국이 ‘미일화친조약’으로 일본을 개항시키면서 아시아로 전파되었다.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수호조규’는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혁명의 여파가 조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개항을 통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를 인지한 조선은 청과 일본에 사신단을 보내서 주변 국가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고,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과 같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여 군사와 통신 등 새로운 산업사회로 변모할 수 있는 주요 제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정에서는 개항 이후 외국과 물품을 교역하는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하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과 ‘조독수호통상조약’, 1884년 ‘조이수호통상조약’과 ‘조로수호통상조약’,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 1892년 ‘조오수호통상조약’ 등의 체결은 조선이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과



차례로 물품 교역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아편전쟁 등으로 청이 붕괴하는 모습을 본 조선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생기면서, 나라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화파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이 조선을 속방(屬邦) 하려는 정책을 취하자 조선의 자주독립 움직임을 형성하였고, 이에 대한 태도와 개화를 추진하는 속도에 따라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화파는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았고, 김윤식·어윤중 등의 온건개화파는 새로운 기술 수용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 세력은 1884년 8월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청불전쟁이 일어나면서 정세가 변화하자 정치적 변화를 단행하기 위해서 그해 10월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나면서, 이를 진압하는데 원조를 하였던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심화하였다. 하지만 문벌 폐지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조선을 산업사회로 진입시키려는 최초의 근대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후 조선의 개혁운동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이어졌다. 갑오개혁은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약 19개월 동안 추진된 개혁운동으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발단은 직전에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이었다.

당시 농업이 기반이었던 조선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된 서구와의 교역에서 이익보다는 손실이 컸다. 서구는 산업혁명이 이후 등장한 기계의 발전과 공장을 통한 대량생산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값싸게 민중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은 짚신

보다는 고무신을 샀고, 짚신을 만들고 공급하는 상공업자들은 자연스레 쇠락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은 개항 직후 서구의 공산품이 반입됨으로써 자국의 상공업자들은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쇠락하였다. 게다가 산업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양 각국의 도시에는 농촌을 떠난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농산물은 식민지나 해외 농업국가들의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여 해결하였다. 결국 시장을 개방한 농업국가에서는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궁핍한 상황은 더욱 열악해져 일본에서는 ‘잇기’,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운동’ 과 같은 농민운동이 발발하였다.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였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던 동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혹독한 착취에 전봉준 등의 농민층이 항거하면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남부지역 주요 거점인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위세를 떨쳤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청에 원군을 요청하여 이를 진압하려고 하였는데, 1885년 일본과 ‘친진조약’ 을 맺은 청이 일본에 조선으로의 원군파병 사실을 통보하면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친진조약’ 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조선에서의 상호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청과 일본이 군대를 철수하면서 향후 조선에 파병할 때는 상호연락하기로 중국 천진에서 맺은 조약인데, 여기에 근거해 일본도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파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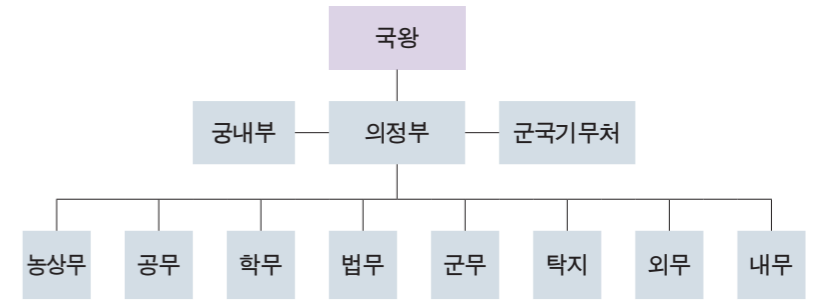
하지만 일본이 독단으로 군대를 파병하자 조선은 이에 항의하고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 을 맺어 외국군대가 간섭할 구실을 제거하였다. 이에 일본은 청에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빌미로 1894년 7월 경복궁을 공격하고 청의 함대를 기습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 최초의 근대적 개혁정책인 갑오개혁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됐던 것이다.

## 2) 근대적 개혁의 진행과 국권회복운동

기본적으로 일본의 무력을 배경으로 시도한 갑오개혁은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시행은 갑신정변 이후 개혁을 주도한 온건개화파 세력이었다. 또한 청일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1895년 5월 일본이 요동반도로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삼국간섭'으로 인하여, 일본은 배상금 외에는 실질적인 영토의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후 갑오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한편 조선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막으려는 일본은 1895년에 친러시아 세력의 중심인물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이는 조선인의 반일 감정을 높이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쇠퇴하였다. 이에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은 이듬해 1896년 2월 러시아공사관으로 고종이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으로 내각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개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갑오개혁 당시 내놓았던 여러 법령은 조선의 체제를 근대화시키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변화된 중앙조직은 크게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분하여 국가 사무는 의정부에서 전담하고, 궁중 사무는 궁내부에서 전담하도록 분리하였다. 이는 왕과 왕비가 제한 없이 국가업무에 간여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근대적인 정치개혁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6조 체제를 개편하여 이조를 내무아문으로, 호조를 탁지아문으로, 병조를 군무아문으로, 형조를 법무아문으로, 예조를 학무아문으로, 공조를 공무아문으로,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외무아문으로 바꾸고, 농상이문을 신설하여 8개의 아문으로 재편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개편된 중앙조직도

갑오개혁 이후 개편된 중앙조직의 구성

아문	처·원·국	업무	관리정원
의정부 (국가행정 총괄, 산하에 8아문 분설)	군국기무처	입법기관	
	도찰원	중앙 및 지방 관리의 부정 규찰, 관리의 과오를 보고하여 상벌 시행	원장1, 도헌5, 주사10
	중추원	고위 문무관의 고문 기관(실제적 직책 없음)	원장1, 참의1, 주사2
	기공국	녹훈 관장	국장2, 주사2
	기록국	행정서류 기록·기안과 통계사무 관장	참의1, 주사1
	전고국	관리의 이력 및 추천서와 실학의 시험관장	참의1, 주사2
	관보국	정령·헌법 및 각 관청의 모든 공판·성안 반포	참의1, 주사4
	편사국	국가의 역사 편찬	참의1, 주사4
	회계국	의정부의 출납 회계 관장	참의1, 주사4
이조 → 내무아문 (국내 지방 업무 총괄)	기로국	기존의 정2품 70세 이상 문관의 양로기관	주사1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3
	판적국	호수·인구 조사 및 관리	참의1, 주사6
	주현국	각 지방의 행정사무 감독	참의1, 주사6
	위생국	전염병 예방·의약·우두 등의 사무관 장	참의1, 주사2
	지리국	토지측량, 지도 제작, 도로·교량·진설 등의 사무관 장	참의1, 주사4
	사사국	국내의 제사와 사찰·신사 관장	참의1, 주사2
회계국	내무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참의1, 주사2	

아문	처·원·국	업무	관리정원
외아문 → 외무아문 (외국과의 교섭·통상 사무 관장, 공사·영 사 등의 외교관 감독)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교섭국	외교 사무 관장, 만국공법과 사법 심사	참의1, 주사4
	통상국	통상·항해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번역국	외국 공문 및 서류 번역	참의1, 주사4
	기록국	조약문서 보관과 외교문서 보존 사무 관장	참의1, 주사6
	회계국	외무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참의1, 주사2
호조 → 탁지아문 (전국의 재정·출 납·조세·국채 및 화폐 등의 업무 총괄, 지방의 재무 감독)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주세국	국세 부과, 관세 징수, 전적의 편호 관장	참의1, 주사6
	주계국	국고 세액·세입·세출·예산·결산 등 사무 관장	참의1, 주사6
	출납국	국가재정의 출납 사무 관장	참의1, 주사6
	국채국	내외 국채 모입 및 상환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1
	저치국	금고의 개폐, 미창의 조적을 관장하고 저치 등의 사무를 감수	참의1, 주사2
	기록국	탁지아문 왕복 공문을 관장하여 존인을 편집하고, 지폐·증권의 압인·소인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8
	전환국	화폐주조에 관한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은행국	국내 공사 화폐의 환전사무 관장	참의1, 주사3
	회계국	탁지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참의1, 주사4
병조 → 군무아문 (육군·해군의 행 정 총괄, 군인·군속 감독 및 통솔)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친위국	대내의 군대를 장악하며, 일체의 징병 사무와 군대의 편제 총감독	참의1, 주사4
	진방국	서울 및 지방의 진과 영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8
	해군국	해군을 총감독하며, 군인·군속 감독	참의1, 주사8
	의무국	육군·해군의 의무 및 약제 사무 관장	참의1, 주사4
	기기국	병기의 제조·수리에 관한 사무 및 병기구매 관장	참의1, 주사2
	군수국	전국 육군·해군의 군량·복장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4
	회계국	군무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참의1, 주사4

아문	처·원·국	업무	관리정원	
형조 → 법무아문 (사법행정·경찰 관 리, 고등법원 이하 지 방재판소 감독)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민사국	인민의 소송 재판 및 법관·변호사의 고시 등 사무 관장	참의1, 주사8	
	형사국	치죄·사형·형사사건 심의·보석·징역·감형·복권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8	
	회계국	법무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고등법원 이하 모든 재판소의 예산·결산 등 관장	참의1, 주사2	
예조 → 학무아문 (교육·학무 등 관장)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성균관및상 교서원사무국	선현의 사당 및 경적을 보수하는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전문 학무국	중학교·대학교·기술학교·외국어학교 및 전문학교에 관한 사무 관장	참의1, 주사4	
	보통 학무국	소학교·사범학교에 관한 사무 관장	참의1, 주사4	
공조 → 공무아문 (물건을 만들거나 수 리하는 사무 관장)	편집국	국문 철자, 각 국가의 번역 및 교과서의 편집 등 사무 관장	참의1, 주사4	
	총무국	온갖 장인의 사무 감독과 명단 관리, 기사 고용과 새로운 방식을 학습하는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역체국	국내외 공·사문서 및 물품의 운반 관장	참의1, 주사2	
	전신국	전선 가설, 지국 설치 및 국내외 소식 관장	참의1, 주사2	
	철도국	도로 측량과 철도부설 대비하는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등촌국	해변 각 곳의 통상항구 및 불통상항구의 등대·부표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1	
	건축국	공적인 건축 및 수리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4	
	회계국	공무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참의1, 주사2	
	농상아문 (신설, 농업·상업· 기술·어업·식목 및 축산·광산·지질과 영업 회사 등의 사무 관리)	총무국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농상국	개간·식목·잠상·목축 및 편찬 사무 관장	참의1, 주사8
공상국		서울과 지방의 상업, 도량형의 심사, 각종 제조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8	
산림국		산림경제·사유산림의 통계 및 산림 학교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지질국		지질·토양의 성분 판단, 비료, 광물의 분석, 지형 측정, 지도 제작 등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장관국		식산공업 및 전매특허의 사무 관장	참의1, 주사2	
회계국		농상아문의 출납회계 관장	참의1, 주사2	



또한 관료 충원을 위한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탈피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년’을 연호로 사용함으로써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산정하였다. 이 밖에 조선사회의 주요한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많은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치·사회 제도 부분에서는 계급제도인 반상제도 혁파, 문관과 무관의 차별 폐지, 공사 노비의 혁파,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와 과부제가 허용, 양자 제도 등이 개편되었다. 그리고 경제 제도 부분에서는 기존에 선혜청과 호조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정을 탁지아문 아래에 일원화하였고,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던 물납 세제를 금전으로 내는 금납제로 대체하고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한편, 개혁정책은 아관파천으로 중단되었다가 약 1년 뒤인 1897년 2월에 고종이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함으로써 다시 이어졌다. 대한제국은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국왕의 위상을 황제로 격상하였으며, 그해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명목이나마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의 국가지도자와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향하면서 최초의 헌법인 「대한국제」를 반포하였고, 국가(國歌)와 국기(國旗) 등을 제정 발표하였다. 1900년에는 개항 이후 추진되었던 우체·통신 제도를 통신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국·내외적인 국제기구와 조약을 맺음으로써 조선에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던 외국의 통신기구들을 철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비록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고종의 왕권 강화가 목적이어서 한계가 있었으나 대외적인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가 전장이 되지 않기 위해 조선은 국외중립을 선언했지만 무산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1905년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

권을 박탈당하였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 외무성의 감독을 받은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대한제국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개를 거쳐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근대적인 정책은 해외의 산업문화를 수용하여 내부 개혁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일본을 통해서만 대외적인 교류가 허용되는 상황이라 대한제국의 근대적 개혁은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외교권 박탈은 대한제국이 1910년 한일병탄으로 국권을 상실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한편 이때부터 한반도에서는 을사늑약으로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세계의 열강들과 일본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박탈당한 것은 힘과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했으며, 따라서 힘을 키워야만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실력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주적인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는 ‘실력양성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은 신교육 구국운동, 언론계몽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신문화·신문학 운동, 국학운동, 민족종교운동 등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국채보상운동을 꼽을 수 있다.

1907~1908년까지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모금으로 국채를 갚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부터 일본은 조선에 국가 간의 자금을 융통해주는 차관을 성립시켜 190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약 1,150만 원의 차관을 도입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관대여는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 재정에 예속시켜 차후 식민지로 건설하기 위한 예비작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에 1907년 2월 대구에서 신문 구독과 신청·배부·수금 업무를 취급하던 회사인 광문사의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 서상돈이 금연운동인 ‘단연’을 하여 국채를 갚아 나가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주장하였다. 당시 지식인과 자산가들로 구성된 광문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며 자강의식을 높이던 출판사였다.

광문사에서는 금연으로 아낀 돈을 모을 수 있는 ‘단연회’를 설립하여 직접 모금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황성신문』 등의 주요 신문에서 이를 기사로 보도하고 선전하면서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호응이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김성희 등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설립하고 취지서를 발표하였으며, 회칙까지 제정하였다. 이처럼 전국에는 약 20여 개에 달하는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창립되어 활동하였다. 심지어 비록 소극적이었지만 고종과 고위 관료들도 모금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실력양성운동이 실력을 키워 자강하자는 의미가 강하다면 일본과 직접 맞서 싸우는 구국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의병운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열강들에게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움직인 고종을 일본이 폐위시킨 ‘헤이그 밀사 사건’이 일어나자 대대적인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서 ‘정미7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이에 반발한 해산군인들이 의병운동에 투신함으로써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 9. 양주의 의병운동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해산으로 정미년에 전개된 ‘정미의병’은 경기도의 경우 양주를 비롯하여 양근, 강화, 파주, 장단, 적성, 연천, 마전, 지평, 가평, 포천, 광주, 교하, 풍덕, 이천, 여주, 양평 등에서 발생하였다.

조선시대부터 한성에 인접하여 경기 서북부지역과 강원도, 경기도 이남 지역에서 수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던 양주는 이때 군사적·경제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다. 1908년 전국에서 모인 1만여 명의 ‘13도 창의군’이 한성으로 진격할 때 양주에서 출발하여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기도 하였다.

양주지역의 의병운동 참가자

연번	의병장(직업)	부대원(직업)	의병 수	활동 시기	활동지	비고
1	조인환	유상덕	10~400	1907.8.	-와공면 덕소리, 고랑진 -수유리, 파주, 적성, 양근, 이천, 여주	
		이재규				
		최명우(상업)				
		최유복(농업)				
		김수만(농업)				
2	연기우(군인)	지홍윤	30~90	1907.8.	-광릉곡 -적성, 삭령, 마전, 장단, 포천, 연천	강기동, 이진룡, 김수민, 윤인순, 황재호와 연계
		이덕현				
		정흥규				
3	허위(참봉)	박노천	500	1908.2.	-양주, 가평, 적성	
		이기학				
4	이은찬(유생)	김준식(군인)		1908.2. 이후	-접동면, 금곡하면, 회암면 귀율리, 석적면 행동리, 석우리, 산내면, 현내면 사천현, 진대리 -포천	윤인순, 정용대, 김교성과 연계
		윤태산(농업)				
		맹군집(군인)				
		오수영(군인)				
		이백원(농업)				
		이사인(학생)				
이주호						
		김순복(농업)				
5	정용대(군인)	백영현	30~40	1908.2. 이후	-산내면, 회암면 귀율리, 석적면 행동리, 덕도리, 울암리, 석우리, 이담면 광암리, 하봉암리, 안흥리 -포천	이은찬, 윤인순과 연계
		이경래(농업)				
		정두환(농업)				
6	박래병	이성준	60~70	1908.3.	-와공면, 양주, 양평, 영평	
		안배신(농업)			-양주, 포천	

연번	의병장(직업)	부대원(직업)	의병 수	활동 시기	활동지	비고
7	김연성	전목기(농업) 유재만(농업) 유문재(농업)	300	1908.	- 이담면 유산리 · 창리 · 안흥리, 어등산면, 천천면, 묵은면	
8	황재호(군인)	전순만(상업) 정충환 목자상(농업) 추삼만(농업) 김수동		1908.8.	- 묵은면, 석적면 행동리, 석우리, 이담면 상봉암리 철동, 지동, 영근면 상원리, 고주내면 고읍리 - 파주, 포천, 영평	연기우, 김교성, 이은찬, 정용대, 김귀손, 김석하와 연계
9	윤인순(활빈당)	김경록(농업) 김해용(농업) 홍준성 백영현(목수) 송창근(농업)	20~30	1908.8.	- 동면 강동, 백석우리, 광석면리, 행동리, 석우리, 현내면, 묵은면 내묵은리, 삼패상리, 덕원리, 백석면 흥동 - 파주, 포천, 영평	허위 부대원, 연기우, 김교성, 이은찬, 정용대, 황재호, 김귀손과 연계
10	김귀손(군인)		20~30	1908.8.	- 석적면 행동리, 석우리 - 파주, 포천, 영평	연기우, 김교성, 이은찬, 정용대, 황재호와 연계
11	강기동(헌병보조원)	남학서 오수영 임명달 신영준(농업) 강원호(농업) 김순복(농업) 조삼용 신태성(농업) 손수정(농업) 김응선(상인)		1909.3.	- 현내면 귀평리, 회암면 회암리 회암사, 광석면 지산리, 석적면 덕도리, 노원면 하계리, 마석우리, 둔야면 어용동 - 포천 송우리	
12	고재석		20~30		- 양주, 양평, 용인, 광주, 포천, 영평	
13	권중설				- 양주, 포천, 광주	
14	권득수(상업)	신재만 전운용(농업)	60~200		- 석적면 회촌리, 회암면 - 지평, 양근, 이천	
15	권준	이문일(농업)			- 백석면 천죽리, 파주, 적성	
16	김규식(군인)		40~80	1907.7.	- 양주, 마전, 삭령, 연천, 적성, 안협, 철원	이인영과 연합, 허위 부대원

연번	의병장(직업)	부대원(직업)	의병 수	활동 시기	활동지	비고
17	김노수(참봉)		30		- 양주, 영평, 포천, 가평	박팔암과 연계
18	김병길	배천봉(농업)	30	1907.9.	- 양주, 용인, 과천, 광주	
19	김봉기(군인)		20	1907.7.	- 양주 - 광주, 양근, 이천, 연안, 평산, 백산	
20	김세경	우윤구(농업)			- 양주, 마전, 적성	
21	김석하(군인)		30		- 양주, 가평, 영평, 연천	박래병 부대원
22	김준식(군인)				- 양주, 포천	
23	김주목		300~400		- 양주, 파주, 적성, 고랑포, 평강, 금성, 토산	
24	김창위(군인)	최인서(상인)			- 양주	
25	김춘수(농업)		200		- 양주, 양근, 지평, 광주, 가평, 홍천, 이천	
26	노재훈		14		- 양주, 파주, 적성, 교하	김귀손과 거의
27	민공호(군인)		1,500		- 양주, 횡성, 홍천, 인제, 이천, 장호원, 여주	
28	박래병(유생)	나춘산(농업) 이순기(농업)	70~100	1907.	- 와공면 울리, 야촌, 덕소 - 가평, 포천, 영평	
29	박순근(승려)	김덕현(농업) 구락서(농업) 김용이(군인) 허평순	13~200	1908.8.	- 상도면 지둔리, 보광사, 묵동 - 고양, 포천, 영평, 가천	김석하와 연계
30	박중환(군인)		10~50		- 양주, 마전, 장단, 삭령, 풍덕	
31	박팔암(양반)		25		- 양주, 영평, 포천, 가평	박래병 부대원(친족)
32	방인관(유생)		8~80	1909.11.	- 양주, 양평, 광주	
33	성주사(주사)				- 양주, 포천, 광주, 이천	



연번	의병장 (직업)	부대원(직업)	의병 수	활동 시기	활동지	비고
34	신명재 (유생)		250		- 양주, 적성, 가평	허위 부대원
35	신창현 (군인)				- 양주, 양근, 광주, 인제	김봉기·조인환 부대원, 민금호 와 연계
36	왕희종		300~400		- 양주, 파주, 적성	김진목과 연계
37	원우상 (경찰)				- 양주	
38	이규태		20		- 양주, 적성	
39	이근철		7		- 양주, 파주, 적성, 고양	
40	이기철				- 양주	
41	이명호		8~13		- 양주, 적성, 포천	
42	이은명		8		- 양주, 파주, 적성, 포천	
43	이재학		30		- 양주, 적성, 삭령	
44	이재익 (경찰)				- 양주	
45	이한경 (군인)		12		- 양주, 파주, 교하, 포천	
45	장계원		50		양주·가평·홍천	
47	전성서	변성오(농업) 한인수(농업) 문태산 정홍준(농업)	8~15		- 목은면 내죽온리, 어등산 면 내촌, 광석면 괴음리, 백석면 행동, 석적면, 광 석면 외삼현리, 장흥면 부곡하리, 지곡리 비암동 - 파주, 적성	정용대 부대원, 강기동과 연계
48	최문봉	신창용	70		- 고양주면 장의동 - 광주, 독섬	
49	허준		60~65		- 양주, 포천, 연천	
50	홍원유 (군인)	우윤구(농업) 선경화(농업) 정두환(농업) 이용규 유경철(농업)	15~16		- 시북면 양촌리, 이담면 안흥리, 석적면 행동 - 파주, 적성, 포천, 고양, 마전	윤인순 부대원
51	황순일 (군인)	홍희영(농업) 강원호(농업)	30~40		- 현내면 신촌, 이담면 외 보안리, 광탄면, 둔야면 누원 - 포천, 영천, 가평, 연천	황재호와 거의

이밖에 양주지역의 의병들은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변장’ 과 ‘분산’ 을 통하여 역량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였다. 1908년 3월경 가평, 양주, 홍천에서 활동하던 장계원, 김춘수, 김규식 의병부대는 낮에는 무기를 숨기고 흩어져서 지계를 지고 촌민으로 가장하며 촌민으로 활동하고, 밤에는 모여서 활동하였다. 또한 양주군 외소면 누원 부근에서는 의병들이 일본 병사 복장과 일본인 순사 복장을 하고 마을에서 조련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이러한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909년 300명의 토벌대를 양주로 파견하였다. 이에 양주와 포천을 오가면서 투쟁하던 윤인순과 이은찬이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한편 함께 활동하던 부대원들은 소규모로 의병을 재편하여 낮에는 산과 들에 몸을 숨겼다가 밤에 활동하여 밀정과 일본군과 맞서 싸우면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1909년 9월 일본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항쟁하던 호남 의병을 ‘남한대토벌작전’ 으로 진압한 뒤 항일투쟁의 중심지가 황해도·경기도·강원도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자 더욱 가혹하게 의병운동을 진압하였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국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의병장 연기우·강기동·전성서·이한경 등은 경기도 양주·포천·삭령·마전, 황해도 토산·금천·재령 등의 지역에서 소규모 인원으로 일본의 공세를 피하면서 항전하였고, 항일 의병운동은 만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국운동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392년에 건국되어 518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조선·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 5

##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며 자강에 눈 뜨다

### 1. 지방 제도 개편

#### 1) 갑오개혁 시기 지방 제도 개편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열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1906년 2월 남산 앞애(현 중구 예장동 8)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청·영국·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한 외국공사관을 철수시키고 대한제국이 외국에 설치하였던 영사관을 폐쇄하여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한 이후에는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의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에 총독부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체제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총독부는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제국기까지 국가 운영의 골격을 이루는 지방 행정구역을 재편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은 갑오개혁 시기에 조선의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한 바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초기 입법처의 역할을 하였던 군국기무처에서는 중앙조직을 내무·외무·탁지·법무·학부·공부·군부·농상부 등 8아문으로 나누고, 지방 일반행정은 내무아문의 주현국에서 관리하게 하였고,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전국의 재정출납과 조세를 총괄하면서 지방 재무를 감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갑오개혁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관리되었던 지방행정 운영을 중앙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지방 제도의 개편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향회를 지방행정에 참여시켰다. 향회는 원래 조선시대에 지방의 양반들이 향촌의 운영을 위하여 만든 지방 자치회로서 향촌 내의 일을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였다. 향회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렸는데, 지방 수령을 자문하는 향임을 추천하고, 이를 통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과 함께 지역민을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오개혁 시기에는 지방 제도에 대한 개편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향회를 공식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후 1895년 일제는 기존의 8도(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폐지하고 23부(한성, 인천, 충주, 홍주, 공주, 공주, 전주, 남원, 나주, 제주, 진주, 동래, 대구, 안동, 강릉, 춘천, 개성, 해주, 평양, 의주, 강계, 함흥, 감산, 경성) 337군으로 나누는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때 양주는 한성부 관할의 11개 군(한성, 양주, 광주, 적성, 포천, 영평, 가평, 연천, 고양, 파주, 교하) 중 하나가 되었다.

이어 1896년 8월 4일에 다시 개편되어 8도 23부제를 13도제(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가 바뀌었다. 이러한 지방 행정구

역의 개편은 기존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으로 나뉘었던 행정구역 명칭을 군(郡) 중심으로 단일하게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895년 일제가 개편한 8부 337군 지방 행정구역 편제

부(府)	군(郡)
한성부(11)	한성, 양주, 광주, 적성, 포천, 영평, 가평, 연천, 고양, 파주, 교하
인천부(12)	인천, 김포, 부평, 양천, 시흥, 안산, 과천, 수원, 남양, 강화, 교동, 통진
충주부(20)	충주, 음성, 연풍, 괴산, 제천, 청풍, 영춘, 단양, 진천, 청안, 여주, 용인, 죽산, 음죽, 이천, 양지, 원주, 정선, 평창, 영월
홍주부(22)	홍주, 결성, 덕산, 한산, 서천, 비인, 염포, 남포, 보령, 목천, 홍산, 서산, 해미, 당진, 면천, 태안, 대흥, 청양, 예산, 신창, 온양, 아산, 정산
공주부(27)	공주, 연기, 은진, 연산, 석성, 부여, 노성, 옥천, 문의, 회덕, 진잠, 평택, 보은, 회인, 영동, 청산, 황간, 청주, 전의, 목천, 천안, 직산, 안성, 진위, 양성, 진산, 금산
전주부(20)	전주, 여산, 고산, 임파, 함열, 옥구, 용안, 익산, 부안, 만경, 김제, 금구, 고부, 흥덕, 정읍, 태인, 장성, 고창, 무장, 영광
남원부(15)	남원, 구례, 운봉, 곡성, 순천, 광양, 임실, 장수, 진안, 담양, 순창, 옥과, 창평, 용담, 무주
나주부(16)	나주, 해남, 진도, 강진, 장흥, 흥양, 보성, 영암, 무안, 함평, 능주, 화순, 동북, 광주, 남평, 낙안
진주부(21)	진주, 고성, 진해, 사천, 곤양, 남해, 단성, 산청, 하동, 거창, 안의, 함양, 협천, 초계, 삼가, 의령, 칠원, 함안, 창원, 웅천, 김해
동래부(10)	동래, 양산, 기장, 울산, 언양, 경주, 영일, 장기, 흥해, 거제
대구부(23)	대구, 경산, 칠곡, 인동, 성주, 지례, 고령, 선산, 개령, 금산, 의성, 의흥, 군위, 비안, 밀양, 청도, 영천, 자인, 신녕, 하양, 창녕, 영산, 현풍
안동부(17)	안동, 청송, 진보, 영양, 영덕, 영해, 청하, 영천, 예안, 봉화, 순흥, 풍기, 함창, 용궁, 예천, 문경, 상주
강릉부(9)	강릉, 울진, 평해, 삼척, 고성, 간성, 통천, 흙곡, 배양
춘천부(13)	춘천, 양구, 홍천, 인제, 횡성, 철원, 평강, 김화, 낭천, 회양, 금성, 양근, 지평
개성부(13)	개성, 풍덕, 삭녕, 마전, 장단, 이천, 안협, 토산, 평산, 금천, 수안, 곡산, 신계,
해주부(16)	해주, 연안, 백천, 웅진, 강령, 장연, 송화, 풍천, 안악, 장연, 은율, 재령, 신천, 문화, 서흥, 봉산
평양부(27)	평양, 안주, 속천, 순안, 용강, 영유, 증산, 함흥, 삼화, 자산, 강서, 덕천, 영원, 희천, 맹산, 영변, 운산, 순천, 개천, 은산, 성천, 양덕, 삼등, 강동, 상원, 중화, 황주,
의주군(13)	의주, 창성, 벽동, 삭주, 용천, 철산, 선천, 광산, 정주, 가산, 박천, 태천, 구성

부(府)	군(郡)
강계군(6)	강계, 순창, 자성, 초산, 위원, 장진
함흥부(11)	함흥, 정평, 영흥, 고원, 문천, 덕원, 안변, 서천, 이원, 북청, 홍원
갑산부(2)	갑산, 삼수
경성부(10)	경성, 부령, 길주, 명천, 경원, 경흥, 온성, 증성, 회령, 무산,
제주부(3)	제주, 대정, 정의,
23부	337군

## 2) 일제강점기 지방 제도 개편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부터 시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지방 제도와 징세제도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정국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 1906년 3월 통감부는 군·현 폐합 안을 작성하고 내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13도를 9성으로 하고 3~4개 또는 2~3개의 군과 현을 1개 군으로 만들어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345개의 군을 170개 군으로 통합하려는 방침이었다.

이에 당시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에서는 인구와 호구 수가 균일하지 않고, 농지가 정리되지 않으며, 산천과 도로의 불분명한 구분 등을 내세워 적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통감부는 ‘지방 제도조사소’를 설치하여 ① 지방과 중앙경비의 부담을 명료히 하는 문제, ② 지방행정의 구획 설정 문제, ③ 지방업무의 지방청 위임사항, ④ 조세 징수에 관한 지방청의 관장 범위, ⑤ 경찰관과 지방관의 충돌회피 방법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에 군(郡)을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였던 지방 행정제도를 일본의 지방 행정제도인 정촌제(町村制)를 수용해 면(面)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결국 1910년 총독부를 설치한 이후 일본은 이전까지 전국적인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조선총독부 관제’를 공포하면서 전



국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주군도 행정구역이 변화하여 32개면 343동이 되었다.

1910년 이후 양주군의 행정구역 편제

면(面)	리(里)/동(洞)
읍내면(6)	동부리, 어둔리, 마전리, 서부리, 남방리, 신북리
고주내면(7)	고읍리, 삼가대리, 회만리, 삽사동, 광암리, 광송리, 송량리
회암면(8)	귀울리, 내회암리, 우산리, 옥정동, 모정리, 송량리, 마한리, 냉정리
어등산면(5)	1리, 2리, 3리, 4리, 5리
천천면(5)	고장리, 과회리, 돈계리, 덕정리, 도덕리
묵은면(6)	일패리, 일패하리, 이패리, 삼패리, 삼패하리, 사패리
현내면(3)	삼패리, 중패리, 하패리
이담면(18)	송라리, 생골리, 보안리, 안흥리, 하봉암리, 동막리, 내동, 연동, 창동, 걸산리, 황매리, 가정자리, 행단리, 지동, 동두천리, 상봉암리, 유산리, 광암리
영근면(12)	고탄리, 하원리, 능동리, 사랑리, 명천리, 전곡리, 간파리, 마포리, 고산리, 운대리, 신답리, 상원리
석적면(12)	회촌리, 거마리, 번조리, 이패하리, 삼패하리, 향동, 효가리, 신촌리, 이패중리, 삼패상리, 아대지리, 행동
광석면(4)	일패리, 이패리, 삼패리, 사패리
백석면(23)	방동리, 산성리, 대오산리, 상가읍리, 내동, 난곡리, 내고령리, 마장리, 고릉리, 흥북리, 소오산리, 가곡리, 흥동, 연평리, 중산리, 대고령리, 능내리, 신지리, 하가읍리, 단촌리, 천죽리, 해유리, 웅장리
장흥면(9)	울대리, 부곡하리, 석현리, 이패하리, 삼패하리, 이패상리, 삼패상리, 부곡상리, 교현리
시북면(19)	자일리, 중서오리, 직동, 가좌리, 비우리, 귀락리, 삼귀리, 금곡리, 하서오리, 입석리, 유현리, 오목리, 민락리, 상서오리, 곤제리, 오룡리, 녹양리, 양지리, 궁촌리
둔야면(15)	조암리, 호동, 어룡리, 본둔야리, 누원리, 의정부리, 동막리, 탑석리, 양현리, 장수원리, 파발막리, 발이술리, 추동, 장자동, 신촌리
내동면(3)	입암리, 고산리, 산곡리
별비면(19)	도감리, 흑서리, 광암리, 화접리, 간촌리, 동촌리, 영지리, 동학리, 응달리, 덕동, 묘동, 퇴계원리, 서촌리, 거흑리, 마전리, 직송리, 삼안리, 전도리, 내곡리
진별면(9)	진별리, 금곡리, 수막리, 내마산리, 중리, 검단리, 후평리, 주곡리, 팔야리
접동면(10)	본접동, 전동, 내동, 와촌리, 중포리, 장생리, 봉현리, 비각리, 현창리, 궁동
건천면(13)	팔현리, 어남상리, 어남하리, 점막리, 송정리, 오산리, 단곡리, 오룡리, 성능리, 식동, 하독정리, 상독정리, 양지리

면(面)	리(里)/동(洞)
진관면(7)	평촌리, 월음리, 본진관리, 고현리, 신촌리, 법동, 배양리
상도면(21)	가곡리, 석수대리, 송라리, 전의리, 점막리, 묵동, 지사리, 지둔리, 운하리, 구곡리, 답동, 등경리, 호만리, 궁촌리, 당두평리, 장천리, 응암리, 내동, 세월산리, 평동, 장내리
하도면(18)	진동, 녹동, 장현리, 맹곡리, 월길리, 남하리, 계전리, 궁촌리, 응암리, 배기리, 무수리, 백월리, 산성리, 마산리, 차산리, 시우리, 남상리, 남중리
초부면(9)	삼봉리, 중리, 조동, 마현리, 봉안리, 평촌리, 진촌리, 고량리, 능내리
외공면(7)	울북리, 덕소리, 도심리, 월곡리, 적실리, 도산리, 문곡리
미음면(8)	수번리, 석실리, 가재리, 지사리, 석도리, 조운리, 금교리, 도농리
금촌면(4)	일패리, 이패리, 삼패리, 사패리
구자면(10)	사노리, 인창리, 수택리, 백교리, 토막리, 동창리, 이문동, 평촌리, 아차동, 우미천리
망우리면(14)	묵동리, 신현리, 능후동, 방동리, 직곡리, 상리, 봉황동, 내동리, 능내동, 양원리, 입암리, 봉현리, 중리, 하리
고양주면(8)	자마장리, 울리, 산의동, 장의동, 신천리, 잠실리, 구정동, 광진리
노원면(19)	은수동, 납대동, 가좌동, 상곡리, 공덕리, 장기리, 월계리, 간촌리, 은행리, 양재동, 용동리, 묘동리, 불암리, 금주리, 광석리, 오목리, 무수동, 갈해동, 녹천리
해등촌면(12)	상누원리, 무수동, 도당리, 우이리, 마산리, 유만리, 영국리, 암희리, 원당리, 구성리, 창동리, 소라리
32면	343동

이후 행정구역 개편은 1914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11년 13도 12부 317군 4,351면이었던 행정구역은 1914년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변경되었고, 1915년에는 13도 12부 218군 2도(섬) 2,521면의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1917년에는 6개의 지정면이 신설되고 15면이 통폐합되면서 2,521면에서 2,512면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촌락을 이루면서 생긴 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전통적인 행정구역을 불과 몇 년 만에 자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실제로 당시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참여하였던 일본인 관리는 지역의 종합적 현황이나 주민 의사를 무시한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예를 들면 양주군 봉접면 수산리의 생활권은 가평군 외서면이었다. 외서면과 수산리 사이에는 하천이 있었는데, 일본인 관리들은 편의상 하천을 중심으로 수산리를 봉접면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수산리와 봉접면 사이는 험준한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거나 면 직원이 수산리에 출장을 갈 때는 높은 산을 피해 약 10리(4km) 이상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진 행정구역의 재편은 비단 양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편과정은 일본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양주군도 면·리가 통폐합되면서 양주에 속해있던 영근면이 연천군으로, 고양주면이 고양군으로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주군은 16면 148리로 조정되었다.

1915년 조정된 양주군의 행정구역 편제

면(面)	리(里)
주내면(9)	유양리, 남방리, 어둔리, 산북리, 마전리, 광사리, 만송리, 고읍리, 삼송리
회천면(8)	회정리, 덕계리, 고암리, 회암리, 울정리, 옥정리, 덕정리, 봉양리
은현면(7)	상패리, 하패리, 용암리, 선암리, 운암리, 봉암리, 도하리
광적면(7)	석우리, 덕도리, 효촌리, 가납리, 광석리, 우고리, 비암리
백석면(8)	방성리, 오산리, 홍죽리, 연곡리, 영장리, 기산리, 가업리, 복지리
시둔면(11)	자일리, 금오리, 가능리, 녹양리, 낙양리, 민락리, 호원리, 의정부리, 용현리, 신곡리, 장암리
별내면(8)	고산리, 산곡리, 청학리, 용암리, 덕송리, 화접리, 퇴계원리, 광전리
진접면(9)	진벌리, 수산리, 팔야리, 금곡리, 부평리, 연평리, 장현리, 내각리, 내곡리
진건면(9)	팔현리, 오남리, 용정리, 송능리, 사능리, 양지리, 신월리 진관리, 배양리
화도면(13)	묵현리, 녹촌리, 창현리, 차산리, 마석우리, 금남리, 가곡리, 운수리, 송천리, 구암리, 답내리, 월산리, 지둔리
와부면(11)	울석리, 덕소리, 팔당리, 도곡리, 월문리, 능내리, 조안리, 진중리, 송촌리, 삼봉리, 시우리
미금면(10)	도농리, 지금리, 가운리, 수석리, 삼패리, 이패리, 일패리, 금곡리, 평내리, 호평리

면(面)	리(里)
구리면(12)	묵동리, 중하리, 상봉리, 신내리, 망우리, 인창리, 사노리, 교문리, 수택리, 토평리, 아천리, 갈매리
노해면(9)	도봉리, 방학리, 쌍문리, 창동리, 월계리, 공덕리, 하계리, 중계리, 상계리
이담면(10)	하봉암리, 동두천리, 상봉암리, 안흥리, 보산리, 걸산리, 생연리, 광암리, 지행리, 송내리
장흥면(7)	울대리, 부곡리, 일영리, 삼하리, 삼상리, 고현리, 석현리
16면	148리

이렇게 면과 리가 통폐합되면서 행정구역에 변화가 생겼다. 읍내면과 고주내면이 주내면으로, 천천면·회암면·어등산면이 합쳐져 회천면으로, 현내면·묵은면과 석적면의 일부를 합쳐 은현면으로, 석적면과 광석면이 광적면으로, 시북면과 둔야면이 시둔면(현 의정부)으로, 내동면과 별비면은 별내면으로, 진벌면·접동면이 진접면으로, 건천면과 진관면이 진건면으로, 하도면과 상도면이 화도면으로, 와공면과 초부면의 일부가 와부면으로, 미음면과 금촌면이 미금면으로, 망우리면과 구지면이 구리면(현 중랑구와 구리)으로, 해동촌면과 노원면이 노해면으로(현 노원구·도봉구·강북구 일대)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양주군에는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발랑리 일부, 천현외패면 삼현리, 광주군 동부면 팔당리, 적성군 남면 한산리·상수리 일부가 새로 편입되었고, 고양군에 편입되었던 신월면 벽계리와 선유동 일부가 재편입되었다.

이렇게 양주군은 16면 148리로 행정구역이 재편되었는데, 이는 의정부·동두천·남양주·구리 등 경기도 동북부 대부분 지역과, 경성의 북부지역인 노원·도봉·강북·중랑구 일대를 관할하게 되었다.

### 3) 양주군청 이전

1910년 이후 지방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양주군도 재편되었지만 1915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시북면과 둔야면이 합쳐져 생긴 시둔면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선시대 중종 이후 양주군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던 유양리의 군청사가 1922년 10월 1일에 시둔면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1938년 10월 1일에는 시둔면의 명칭이 양주면으로 개칭되었다가 1942년 10월 1일에는 읍으로 승격하여 의정부읍이 되었다.

주내면 유양리(현 유양동)는 1506년(중종 1)부터 양주의 치소가 있었으며, 양주향교와 객사 등의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하지만 의정부읍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며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이 의정부 일대로 옮겨가게 되었다.

1895년 조선의 지방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양주목에서 양주군으로 개편되었는데, 당시 마지막 양주목사이자 최초의 양주군수는 신태휴였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러 명의 군수가 양주군수를 역임하였고,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였다. 마지막 군수인 김종규는 해방 후에 다시 군수에 임명되어 1947년 5월 17일까지 군수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1895년 갑오개혁으로 지방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양주군수를 거쳐 간 인물은 총 17명에 이른다.

1895년~1945년 역대 양주군수 현황

역대	성명	재임 기간
1	신태휴	1895년(고종 32) 7월 17일 ~ 1896년(건양 1) 1월 25일
2	임원호	1896년(건양 1) 2월 7일 ~ 1898년(광무 1) 12월 26일
3	조정구	1899년(광무 3) 1월 12일 ~ 1902년(광무 6) 3월 20일
4	홍태운	1905년(광무 9) 4월 28일 ~ 1907년
5	노기돈	1907년
6	박영대	1908~1910년
7	고원식	1911~1915년
8	강원달	1916~1922년
9	송영환	1923~1926년
10	홍중국	1927~1930년
11	송문화	1931~1935년
12	원산수도(遠山秀道)	1936~1937년
13	조기행	1938~1939년
14	가천의영(嘉川義英)	1940~1941년
15	삼산청오(森山淸吾)	1942년 역임
16	김정제	1943~1945년
17	김종규	1945년 3월 25일 ~ 1945년 8월 15일

## 2. 양주의 항일운동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일본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항일 의병운동은 이후 신민회와 같은 항일 비밀결사 조직의 해외 무관학교 설립 운동 등을 통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면서 해외에서 항일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빼앗긴 이듬해인 1911년에 청에서 신해



혁명이 일어나 전통제가 퇴위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으며, 1917년에는 러시아혁명이 발생하여 황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는 등 전 세계는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1914년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위 계승자인 F. 페르디난트 대공과 부인이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같은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연합하면서 결국 오스트리아·독일·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관계이던 영국 및 프랑스와 ‘삼국협상’을 맺으면서 유럽 전체는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유례가 없는 참혹한 대가를 치른 1차세계대전은 결국 삼국협상의 연합군 승리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1919년 1월 전쟁 이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이때 대표로 참가하였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피지배 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 즉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

사실 민족자결주의는 1차세계대전 당시 전통적으로 중립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이 1917년 4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선언하고,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면서 전황이 연합군 측에 불리해지자 참전을 결정한 것으로서, 1918년 1월 미국 의회에서 ‘14개조 평화원칙’을 공표하면서 그 내용이 알려졌다.

이는 전쟁 중간에 참전을 선언한 미국의 목적이 국제사회의 공정한 평화수립에 있음을 천명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공표한 것이다. 즉 민족자결주의는 적대국인 삼국동맹 측의 식민 지배를 받는 발칸반도 및 동유럽의 소수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 모든 약소 민족에 대한 민족자결의 원칙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의 발표는 당시 열강의 지배를 받던 전 세계의 수많은 약소 민족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고, 전 세계로 민족자결주의의 내용이 확산하면서 식민지 상태의 약소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권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사상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1918년 11월 만주와 노령(러시아 시베리아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 39명은 한일병탄의 무효를 선언하고 독립을 선언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는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3·1운동이 발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 1) 1919년 양주의 3·1운동

3·1운동이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와 같은 세계정세의 변화가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면, 대내적으로는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제1대 황제였던 고종의 죽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민족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 등을 통하여 민족적 항일의식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조선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였던 고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일부 민족지도자들은 이를 통하여 거국적인 민족운동을 계획하였다.

당시 고종의 죽음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보기 위하여 각 지역의 유지와 유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경성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천도교·기독교·불교 등의 종교 지도자 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3월 1일 정오에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 모인 33인의 민족대표들은 오후

2시에 ‘대한 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약 5,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군중들은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에 대한 소식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예로부터 수도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면서 경제적·군사적 주요 요충지였던 양주에도 이러한 만세운동 소식이 일제히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양주군 16개 면 중 미금면, 와부면, 화도면, 진접면, 이담면, 노해면, 백석면, 구리면, 광적면, 장흥면, 별내면, 시둔면, 주내면 등 14개 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가히 양주 전역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할 만하다.

양주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뿌리는 구한말부터 치열하게 전개된 양주 의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주는 서울의 근교라는 점과 임진강과 광주산맥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1910년대 전후 의병 활동이 활발하였고, 지역 내 항일의식도 남달랐다. 이러한 항일의식이 3·1운동을 통해 양주의 전역에서 분출된 것이다.

한편 3·1운동 발생 시기는 서울과의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었기에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양주군의 3·1운동은 3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미금면 평내리에서 시작되었으며, 3월 31일 진접면 부평리의 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총 22회에 달하는 만세운동이 발생하였으며,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 (1) 미금면

양주군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시작된 미금면 평내리는 동리의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구장 이승익이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일어난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서 배포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이승익은 주민들에게 총독부 하세가와 총독이 공문을 보냈다고 주민들을 소집하였다.

당시 동리의 구장들은 1910년 이후 지방 제도가 개편되면서 중앙의 공문을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부에서는 “국민들은 쓸데없는 유언비어에 열중하여 되지도 않는 일에 광분하지 말라. 제국(일본)은 전승국이므로 한일합병에 관하여는 조금도 변경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1차세계대전 때 영국의 요청을 빌미로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전하여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 승전국이 되어 1919년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에서 전승국으로 출석하였다.

이렇게 모인 100여 명의 주민은 총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만세운동을 진행하였다. 약 150여 명으로 늘어난 평내리 주민들은 이튿날인 14일 다시 집결하여 평내리 동리에서 만세운동을 진행한 후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가 있는 금곡까지 행진하다가 일본 헌병의 저지를 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저항하였고 이승익을 비롯한 우보현, 이석준, 김영하, 정기섭, 이보영 등 주민 6명이 체포되었다.

### (2) 와부면

와부면은 미금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이틀째인 3월 14일 송촌리의 이정성, 이춘경, 김현덕, 김정하 등이 와부면 일대를 순회하는 독립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이튿날 송촌리 인근 주민 100여 명과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김덕여, 정일성, 이갑동, 오성준, 김덕오, 이정운, 김윤경, 이건홍 등 송촌리 주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워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가 있는 덕소리로 이동하였다. 만세운동 행렬이 덕소리로 가던 도중 인근의 조안리를 비롯한 지역에서 전태현, 김현유, 박경식, 문광채, 이내한, 박수만 등을 비롯한 주민들이 합류하여 대열은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덕소리에 도착한 주민들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본 헌병들과 충돌하였는데, 주도했던 주민 3명이 체포되자 주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화

되었다. 주민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총칼로 무장한 헌병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이에 헌병들은 총기로 공포를 발사하면서 무력으로 40여 명을 체포함으로써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와부면 덕소리의 만세운동은 양주군에서 일어난 시위 중에서 최초로 일본 헌병과 충돌한 사건이다. 비록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헌병이 40여 명의 주민을 체포하고 발포까지 할 정도로 격렬하였다. 일본은 체포한 40여 명 가운데 17명을 기소하였는데, 이 인원은 양주군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 중 최대의 기소 인원이다.

### (3) 화도면

화도면에서는 3월 18일 오후 10시에 이달용을 비롯한 월산리의 김원석, 이승면, 남궁우룡, 윤준, 이운원, 구영식, 김필규, 권은, 강선원 등이 답내리 주민 등 200여 명과 함께 독립 만세운동을 했다.

시위대는 오후 11시경 1,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마석우리 헌병대 병참 앞으로 이동하여 체포된 주민 3명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시위대의 규모가 대규모이고 점차 격렬해지자 일본 헌병은 주민들을 향하여 무차별 발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달용, 손복산, 신영희, 유상규, 이교직 등이 사망하였고, 이재혁, 윤균, 강덕여, 윤정석, 원대현 등이 중상을 입었다.

이튿날 19일 새벽 일본 헌병들은 만세운동과 관련된 김필규, 강선원, 윤성준, 남궁우룡, 김원석 등 5명을 체포해 고문한 후 재판에 넘겼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렇듯 화도면 마석우리의 만세운동은 양주군 3·1운동 중 최초의 유혈사태로 이어진 만세운동이었다.

### (4) 이담면

화도면 마석우리의 만세운동으로 주민 여러 명이 사망한 이후 3월 19일

부터 25일까지 양주군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유는 유혈사태를 겪으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여 만세운동을 펼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3월 26일부터는 양주군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다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담면에서는 동두천의 장날인 3월 26일을 기하여 송내, 지행, 좌기골, 기촌, 빈양말, 하봉암, 상봉암, 안흥리, 창말, 짜리말 등 10여 개 마을에서 약 1,300명의 주민이 시장에 집결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담면의 만세운동은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1885년에 설립한 근대식 교육기관 배재학당 학생 정원이가 주도하였다. 그는 한원택과 박채배를 통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였고, 각 마을의 담당 인원을 선정하여 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만세운동 경험이 있는 홍덕문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면사무소를 향해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이담면장 신공우로 하여금 선언서에 서명하게 한 후 행렬 선두에 서서 만세삼창을 선창하게 하였고, 아래장거리 기차역에 이르러서는 정차하고 있는 열차를 향해서도 만세를 고창하였다.

동두천 헌병분견소 병력만으로는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자 주내면에 있던 본대에 증원을 요청하였고, 기차를 타고 온 기마 헌병들이 역에서 대기하다가 시위대가 다가오자 칼을 휘둘러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다. 이때 선두에 있던 박경필과 고복돌 등이 기마 헌병이 타고 있는 말의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쓰러뜨리자 흥분한 헌병들이 홍덕문, 정원이, 한원택을 총개머리로 후려치는 등 무자비하게 탄압을 자행하였고 주민 7명이 체포되었다.

### (5) 노해면

동두천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3월 26일 노해면 도봉리에서도 400여 주민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창동에서도 5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 이 시위로 주민 92명이 체포되었다.



#### (6) 백석면

백석면에서는 연곡리 구장 안종규와 그의 형 안종태가 주도하여 3월 27일 오후 주민들과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도중 안종태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만세운동의 취지를 고취시켰다. 그리고 이튿날인 28일에는 김대현, 이사범, 조필선 등 주민 600여 명과 함께 오산리 대들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뒤 면사무소가 있는 백석면으로 이동하여 만세운동을 계속하였다.

시위를 주도한 안종태, 안종규, 김대현, 이사범, 조필선 등은 체포되어 징역형을 받았으며, 출옥 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훗날 정부에서는 이들의 공훈을 인정하여 안종태와 안종규는 각각 1990년과 1993년에 애국장을, 조필선·이사범·김대현에게는 1992년·1995년·2010년에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 (7) 구리면

구리면에서는 3월 27일 상봉리 주민 30여 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19명을 체포하였다. 이튿날인 28일에는 아천리에서 면사무소 서기 이강덕의 주도로 심정봉 등 주민 수십 명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태극기를 선두에 내세우고 인근 마을인 토평리와 교문리까지 이동하면서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는 29일까지도 멈추지 않았는데, 부근의 아차산까지 올라가 만세운동을 벌였다.

#### (8) 광적면

광적면에서는 면 소재지인 가남리에서 3월 초부터 만세운동을 알리는 사발통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등 만세 소식이 일찍이 전달되었다. 사발통문은 사발을 엮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의 이름을 둘러서 적은 문서로, 원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어 문서를 보아도 참가자가 누

구인지 모르는 이점이 있다. 주로 19세기 후반 농민항쟁 때 이용되었는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사용한 사발통문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다.

3월 28일 백남식, 김진성, 이용화 등은 오후 4시경 가남리에서 주민 350여 명과 함께 광적면사무소 인근에 집결하였고, 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헌병들이 주민들을 해산시켰으나 시위대는 전열을 재정비해 400여 명으로 늘어난 인원으로 가남리 추교시장에 모여서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다시 전개하였다. 만세운동이 다시 진행된다는 급보를 받은 헌병 5명이 주내면 유양리의 헌병 보조원 노호연을 대동하여 현장에 나와 주도자를 찾으려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김우규, 한춘석, 이용화 등이 헌병 앞으로 나가서 “이 뺨뺨스러운 도적놈들아! 남의 나라 국모를 죽이고 삼천리 국토를 강도질한 놈들이 적반하장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외치는 만세를 말라니 무슨 건방진 소리냐” 하면서 맞섰다.

한편 시위가 격렬해지자 헌병을 따라왔던 면장 이하용이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주민들은 면장과 헌병을 향해 돌팔매질을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일본 헌병과 경찰은 100여 보 후퇴한 뒤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였는데, 선두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던 백남식, 김진성, 이용화 등은 사망하였고, 40여 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1986년 6월 정부에서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가래비어린이공원에 ‘가래비 3·1운동기념비’를 세우고, 현장에서 순국한 백남식, 김진성, 이용화를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가래비어린이공원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논이 넓게 펼쳐져 있던 곳인데, 1919년 이후 ‘만세배미’라 불리고 있다. ‘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 하나의 구역을 뜻하는데, 1919년 3월 28일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만세운동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만세배미’라 부르는 것이다.

#### (9) 장흥면

장흥면의 경우 이회명 등이 주도하여 3월 28일 오후 8시 면 소재지인 교

현리 마을 주막 앞에 수십 명의 주민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회명은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양주지역 만세운동을 이끈 지도자 가운데 유일한 양반이었다.

주민들은 이튿날인 29일 아침에 다시 모여 미리 준비하였던 태극기를 들고 이회명이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면서 장흥면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면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위대는 3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울대리의 정운삼, 김순갑, 김완순 등이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잠시 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였고, 조선인으로 보이는 헌병 보조원이 총기로 위협하자 주민들은 총기를 뺏으려고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결국 헌병들이 주민을 향해 총기를 발포하였고, 사망자 1명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회명, 김순갑, 정운삼은 체포되었다. 훗날 정부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장흥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회명과 김순갑에게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건국포장을, 정운삼에게는 2013년에 대통령표장을 수여하였다.

#### (10) 진접면

진접면의 경우 부평리에 있는 사찰 봉선사를 통하여 경성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소식이 전달되었다. 봉선사 승려 이순재와 김성암은 경성 창성동에서 약재를 팔던 김석로와 함께 부평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함께하는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우선 만세운동 전개 방침과 이를 촉구하는 문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내용은 대체로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소 명의로 “지금 파리강화회의에서는 12개국이 독립국이 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도 이 기회에 극력 운동하면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세계정세 소개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만세운동을 펼칠 것인지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들은 3월 29일 봉선사 서기실에서 약 200매의 문서를 인쇄하고 승려 강완수 외 2명의 도움을 받아서 당일 오후 9시부터 30일 오전 5시까지 부평리

와 인근의 진별리 등 4개 마을 민가에 문서를 배포하였다.

한편 부평리의 이재일은 ‘거주하는 동리의 주민 일동이 해당 동리 광릉천 강가에 모여서 독립만 세를 부를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받았는데, 이 문서는 봉선사에서 이순재, 김성암, 강완수 등이 인쇄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일은 주민들과 함께 격문을 돌려 읽고 호응하여 3월 31일 광릉천 강가에서 최대봉, 최석몽, 최대복, 유희상, 이홍록, 최영갑, 양삼돌 등 600여 명의 주민들과 광릉천에 모여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 헌병이 출동하였는데, 이 과정에 주민 8명이 붙잡혀 기소되었다.

이 밖에 금곡리에서도 청년 13명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시작하였고, 400여 명으로 시위대가 늘어나자 헌병이 발포하였다. 이때 주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 (11) 별내면

장흥면에서 만세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3월 29일, 별내면 퇴계원리에서도 마을 주민 약 200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헌병에 의하여 5명이 체포되었다.

#### (12) 진건면

진건면 오남리에서는 나상규, 손삼남, 엄본성, 이종갑, 여원필, 권노적, 한백석 등이 주민 수십 명을 모아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 (13) 시둔면

시둔면 자일리에서는 3월 29일 오후 목수 조염호의 주도로 주민 약 30명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인근 마을에서도 봉화를 올리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14) 주내면

주내면에서는 3월 30일 주민 약 600명이 면사무소를 향해 가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헌병분견소로 시위를 전개하면서 헌병과 충돌하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양주군 3·1운동 현황

날짜	지역	만세운동 내용
3월 13일	미금·평내	이장 주도로 1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3월 14일	미금·평내	이장 주도로 15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해 면사무소로 이동
3월 15일	와부·송촌·덕소	5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기독교 신자 다수 참여
3월 18일	화도·마석우	1,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해 헌병주재소로 이동
3월 24일	진접·금곡	13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3월 26일	이담·동두천	1,3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해 면사무소와 기차역으로 이동
	노해·도봉	4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3월 27일	구리·상봉	3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장흥	8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백석·연곡	구장 주도로 만세운동 전개
3월 28일	백석·오산	600여 명이 동참해 면사무소로 이동
	광적·가남	약 750명이 동참해 면사무소로 이동
	구리·아천	수십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28~29일)
	장흥·교현	수십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3월 29일	장흥·교현	3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하여 면사무소로 이동
	노해·창동	5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진접·금곡	4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별내·퇴계원	2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진건·오남	수십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시둔·자일	3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자일리 인근	봉화를 이용한 만세운동 전개
	진접·진별·중촌	3명이 시위를 선동하고 유인물 200매 배포(29~30일)
3월 30일	주내	6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하여 면사무소로 이동
3월 31일	진접·부평	100여 명이 만세운동에 동참

양주군에서는 3·1운동 시기 14개 면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유형별로는 마을 단위에서 만세운동을 했으나 인근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았던 경우로는 노해면 도봉리(3.26), 구리면 아천리(3.28~29), 진접면 금곡리(3.29)·부평리(3.31), 별내면 퇴계원리(3.29), 진건면 오건리(3.29), 시둔면 자일리(3.29) 등이 있다. 반면 마을 단위에서 시작하여 면사무소나 헌병분견소 등 일본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이동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한 경우로는 미금면 평내리(3.13~14), 와부면 송촌리·덕소리(3.15), 백석면 연곡리·오산리(3.27~28) 등이 있다. 한편, 미금면 평내리(이승익)와 백석면 연곡리(안종규)처럼 구장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거나 구리면 아천리(이강덕)처럼 면사무소 서기가 주도하기도 했다. 이는 1910년 이후 일본이 지방 행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통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193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양주의 항일운동

1923년 9월 1일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사회 혼란 수습을 이유로 내세우며 일본에 반대하는 반정부·반체제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25년에는 식민지 조선에도 이 법령을 적용하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일명 ‘유조호 사건’을 일으켰다. 일본 관할의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한 후 이를 중국 측 소행이라고 트집 잡으며 철도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개시한 사건이다. 이렇게 만주지역을 점령한 일본은 1932년 3월 1일 그들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고 중국 동북지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또한 1937년 7월 7일에는 만주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북경 인근에서 일명



‘노구교 사건’을 일으킨 후 중국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중일전쟁을 벌였다. 이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1930년대의 한반도는 대륙침략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항일운동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1938년 4월에는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고 ‘집안의 쇠붙이는 모두 수탈당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반도는 매우 강력한 통제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당시 총동원령에 불응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한 신문사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편집담당자가 신문·출판에 관한 조항인 제20조를 어기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엄혹한 상황에서도 양주 출신의 인사들은 신념을 가지고 일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행동을 보였다. 그중 첫 번째로는 내선일체 사상을 거부한 ‘경성 유학 5인조’ 중 한 사람인 이상배를 꼽을 수 있다.

내선일체란 1936년 미나미 지로가 조선 7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중국 침공에 조선을 전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내세운 민족말살정책이다. 즉 내선일체의 ‘내(內)’는 일본 본토를, ‘선(鮮)’은 조선을 의미했는데,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저항을 잠재우고 전쟁 협조를 강요하여 중국침략을 달성하기 위한 ‘황국 신민화 정책’ 일뿐이었다. 또한 1938년에는 지원병제도를 만들어서 조선인을 강제로 군대로 동원하였으며, 조선어교육을 폐지하였고, 1940년에는 일본 이름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였다. 이처럼 내선일체 사상은 민족말살정책으로서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2등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에 대해 이상배를 비롯한 ‘경성 유학 5인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내선일체 사상을 반대한 것이다.

양주군 남면 신산리 출신의 이상배는 16세 때 남면공립심상소학교(현 남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인 강원도 철원남공립심상고등소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성 유학 5인조’ 결성을 주도한 국중일을 만났다. 소학교 졸업 이후에는 경성공립작업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성 유학 5인조’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일제가 금지한 조선 역사를 공부하고 한글로 쓰인 책자와 한문을 공부하면서 총독정치를 비난하고 독립운동의 방편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조선어 연구에 대한 의지도 불태웠다. 또한 당시 경성농업학교의 동맹휴학 소식을 전해 듣고는 “우리 청소년들도 일치단결하여 운동하면 조선의 독립도 쉬워지므로 스트라이크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는 발언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1942년 3월 8일 용산경찰서에 정체가 발각되면서 옥고를 치렀고, 1943년 2월 24일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로는 「보안법」을 위반하여 옥고를 치른 이찬웅을 들 수 있다. 광적면 가남리 출신인 이찬웅은 잡화점을 운영하였는데, 1942년 3월 4일 가게 앞에서 ‘불온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이찬웅이 “일본이 치르고 있는 대동아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하여 면포·사탕·의복·고무신·양지 등 생활물자 배급이 통제되어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내지의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들은 심하게 차별당하고 있고, 대동아 건설의 맹주는 일본이 아니라 해군력이 뛰어난 러시아”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대동아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태평양전쟁을 일본에서 일컫는 호칭이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인을 통제하였는데, 전쟁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탄압한 것이다. 결국 이찬웅은 「보안법」 제7조, 「해군 형법」 제100조, 「조선임시 보안령」 제21조 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표에서 보듯이 이상배, 이찬웅 외에도 일제의 총동원령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른 양주 출신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다.

1940년대 총동원령을 거부하고 수감된 양주사람들

성명	본적지	출생지	주소지	출생년	수감년	복역
김병준	백석면 복지리	-	경성부 신당동	1912	1942	4개월
김범희	장흥면 삼하리	장흥면 삼하리	경성부 제기동	1923	1943	10개월
김진옥	광적면 가납리	광적면 가납리	광적면 가납리	1919	1944	1년
박○○	백석면 가업리	백석면 가업리	고양군 송인면 미아리	1914	1942	10개월
안상현	경성부 전농동	백석면 흥죽리	백석면 흥죽리	1915	1944	6개월
윤복영	주내면 고읍리	주내면 고읍리	주내면 고읍리	1888	1942	4개월
이영희	주내면 마전리	주내면 마전리	주내면 마전리	1898	1944	6개월
홍순명	은현면 용암리	은현면 용암리	경성부 신당동	1917	1941	4개월

### 3. 일제강점기, 양주 사회의 변화

#### 1) 경원선 개통

1910년 국권을 잃었지만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인들이 추진하였던 근대화 위한 변화는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이 중 양주 사회를 변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원선의 개통이었다.

1914년 9월 6일 경성과 함경도 원산을 잇는 경원선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용산역을 기점으로 청량리, 양주, 연천, 철원을 지나 함경도 원산에 이르는 철길은 총 223.7km에 이르렀다.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경원선 철도는 용산에서 출발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을 거쳐 지금의 북한지역인 평강, 안변, 원산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는 원산에서 다시 함경선과 연결되었다.

조선에 최초로 철도가 부설되기 시작한 것은 1896년(고종 33) 미국인 모

스에게 부설권을 주어 1899년 9월 18일 노량진-인천 구간 최초의 영업을 개시한 경인선이다. 1900년 7월 경인철도합자회사가 완공시켜 개통하여 ‘경인철도’라고 부르다가 1906년 이후 모스가 불법적으로 일본에 경인철도를 양도하면서 ‘경인선’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대한제국은 경원선의 부설을 국내의 자금력으로 건설하고자 하였고, ‘철도와 광산의 경영은 외국인에게 불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890년대 원산과 한성을 잇는 철도의 부설권을 얻기 위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노력하였으나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1899년(광무 3) 6월 정부는 경원선 부설을 박기종 등의 철도회사에 허가하고 궁내부 내장원에 서북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원선과 경의선의 건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금 부족 문제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하였다. 1899년 7월 25일 지금의 성북구 삼선동을 기점으로 하여 양주군 비우(현 의정부 녹양역 일대)에 이르는 약 40km 구간에 대하여 선로 측량을 시작하였으나 중단된 것이다.

결국 경원선 부설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03년 일본은 기존의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있던 박기종 등과 ‘경원철도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부수 약관에 “철도 부설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일본과 먼저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사실상 경원선 부설권을 차지하였다.

이후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6월 29일부터 군용철도로 경원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한성~원산 사이의 철도 부설 답사를 하고 군용으로 철도를 부설하는 것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대한제국에 있는 공사관을 통하여 ‘일본의 경원선 부설과 경쟁 또는 병행하여 다른 철도를 부설하지 말 것’과 ‘토지 수용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경원선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경원선 부설을 강행한 이유는 함경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과 물자를 한반도 중부지역으로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운송 수단이기 때

문이었다. 당시 함경도의 두만강과 압록강에 있는 경흥이나 회령 등의 주요 도시를 통하는 길은 경원선이 부설되는 북로 지역의 교통로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한성에서 양주를 지나 원산을 이용한 동해안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 말고 북쪽 경계로 가는 길은 의주를 통하는 서로 지역의 교통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경원선 부설권을 가지려고 한 것이다. 또한 일본으로서는 원산항을 통하여 일본 북서부 지방과 해로로 연결할 수 있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일제의 한반도 침탈의 목적이 반영되었던 경원선 건설은 1905년 8월 용산, 11월에 원산에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용산 방면 6.4km와 원산 방면 12.9km 등 일부 구간만 건설한 뒤 중단되고 말았다. 토지 소유주들의 항거와 1905년 대홍수로 인한 용산 부근 일대 제방의 파손, 그리고 러일전쟁을 수행하며 생긴 재정적인 문제까지 봉착하며 1906년 9월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경원선 공사가 재개된 것은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이후부터이다. 일본은 1910년 4월 측량을 다시 시작하여 10월 15일 용산역에서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1914년 9월 16일 원산역에서 전 구간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경원선의 전 구간 중 서울-의정부 구간이 가장 먼저 개통되었으며, 양주 일대를 지나 는 구간인 의정부-연천 구간은 1911년 4월에 착공하여 1912년 7월 25일에 개통하였으며, 양주군에는 덕정역이 개설되었다. 경원선 부설에 투입된 공사비는 약 1,200만 원가량이었다.

경원선 구간별 공사 및 개통 현황

구간	길이	기공일	개통일	구간	길이	기공일	개통일
용산-의정부	31km	1910.10.	1911.10.15.	검불랑-세포	12km	1912.5.	1914.6.21.
의정부-연천	42km	1911.4.	1912.7.25.	세포-고산	26km	1912.5.	1914.8.16.
연천-철원	23km	1911.5.	1912.10.21.	고산-용지원	6km	1912.4.	1913.10.21.
철원-북계	25km	1911.11.	1913.7.10.	용지원-원산	38km	1911.10.	1913.8.21.
북계-검불랑	15km	1911.11.	1913.9.25.	용산-원산	222km	-	-

경원선은 강원도의 명승지인 금강산, 원산해수욕장, 석왕사 등에 갈 수 있어 시기에 따라 객차를 늘리거나 임시열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1928년 9월 1일에는 함경선이 원산과 연결되어 3~7일씩 걸리던 경성-회령 간 열차 시간이 26시간으로, 경성-청진장 간 열차 시간이 2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 2) 장시의 형성

조선 후기 누원점의 형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수도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여 경제적·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던 양주의 지리적 위상은 일제강점기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 양주지역의 대표적인 장시로는 가래비장, 덕정장, 신산장을 꼽을 수 있다.

가래비장은 광적면 가납리에 있다. ‘가래비’라는 이름은 가래나무가 많아 서라고도 하고, 하나의 길이 두 개로 나뉘기 때문이라고도 전해진다. 시장이 위치한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를 거쳐 감악산과 파주로 향하는 길과 남면 상수리를 거쳐 동두천과 연천으로 향하는 길이 나뉘는 지역이다.

문헌에 따르면 18세기 중엽에는 ‘가래비장’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19세기 초에는 ‘가업장’이라고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에 이미 장이 섰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함께 양주지역의 물품 집합 장소로 누원점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도 18세기 후반부터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시기부터 양주지역의 상품유통과 관련된 매매가 활발해 시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29년 가래비장에서는 시장 부흥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광대가 줄을 타고, 기생들의 연주회와 씨름대회도 개최되었다. 당시 1등은 연천군 남면 상수리의 홍백학이었으며 광목 1필을 상품으로 받았다. 또 2등은 가남리의 강호남으로 마포 1필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1960년대에 5~6년간 다시 운영되었으며, 1979년에 가래비시장변영회가 결성되었다. 1998년에는 인근 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덕정장이 있던 곳은 신천과 회암천이 만나는 오늘날의 은현면 용암리와 덕정동의 경계로, 조선시대에는 신천장으로 불렸다. 당시에는 신천에 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덕정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면서부터이다. 철도가 들어서면서 덕정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이름도 덕정장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남면 면사무소 소재지 인근인 신산리 280-10번지에 열리던 신산장은 본래 남면 상수리에 있었다. 당시에는 갯바위장 혹은 입암시장이라고도 불렸다. 1930년 4월 13일 기사에서 갯바위장과 입암시장을 섞어 부르는 것이 확인되며, 장터가 자주 침수되어 1950년대 말에는 폐지되었다. 이후 신산리로 옮겨서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신산장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 3) 근대적 교육기관의 형성

조선은 개항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문화와 변화에 발맞추어 근대적인 교육기관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예로부터 지역에 부임하는 수령들은 ‘수령 7사’ 라고 하여서 지방을 통치할 때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이 있었

다. ① 농사를 성하게 하고, ② 호구를 늘리고, ③ 학교를 일으키고, ④ 군사를 방비하고, ⑤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하고, ⑥ 소송을 명확하게 하고, ⑦ 교활하고 간사함을 그치게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수령 7사는 개항 이후 근대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지역마다 근대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형성되기 전 양주지역의 교육을 담당한 것은 서당이었다. 서당의 역할은 이후 보통학교나 소학교에서 담당했으나 해방 이후 까지도 서당의 역할은 남아있었다. 양주군의 경우에도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야 비로소 서당이 사라졌다.

양주지역에 분포한 서당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양주·의정부·남양주·동두천 등지에 있었던 기록 등을 통하여 11개 정도가 확인된다. 다만 이는 기록으로 확인된 것일 뿐 조선시대 기본적인 학문 수양 기관인 서당이 일제강점기에도 수십 개 이상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조선 후기 양주지역에 있던 것이 확인된 서당 현황

명칭	훈장	존속기간	소재지	명칭	훈장	존속기간	소재지
마전서당	이창희	1869~1943	양주읍	부곡서당	이희근	1930~1950	장흥면
광전서당	김상욱	1849~1920	양주읍	한산서당	송종욱	1945~1960	남면
간촌서당	이교형	1890~1935	장흥면	봉암서당	윤건식 황태수	1945~1960	은현면
득성서당	정화서	1927~1929	은현면				
덕계서당	이원근	1927~1953	회천면	옥정서당	왕영주	1945~1965	회천면
득성서당	김두현	1930~1931	은현면	모둔재	이방림	1959~1972	광적면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마을 주민들의 기억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서당도 있다. 은현면 하패리에 있었던 ‘장현서당’ 도 그중 하나이다. 전 양주문화원장 박성복의 기억에 의하면 ‘서정원’이라는 훈장이 있었는데, 학생

은 10여 명이고, 봄에 보리쌀을 가을에는 햅쌀로 글세를 냈다고 한다. 『천자문』, 『소학』, 『대학』, 『맹자』 등을 배웠으며 1960년대 후반에 훈장이 타계하면서 장현서당도 문을 닫았다고 한다.

1930년대 양주지역 공사들이 무예 수련을 하던 ‘입암정(훗날 무호정으로 개칭)’의 ‘사두(射頭)’인 김웅찬도 입암리에서 서당을 다닌 것을 기억하고 있다. 1954년에 개교한 덕정중학교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간 그는 3학년까지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1957년경에 3~4년 정도 서당을 다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서당도 1960년대 초반에 사라졌으며 그 시기에 다른 서당들도 거의 다 없어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광적면 광석리 광릉마을에는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서승복’이 훈장이던 서당이 있었으며, 광적면 가납리의 능안마을에도 ‘김영전’이 훈장이던 서당이 1972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해방 이후에도 서당은 존속하여 전통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주군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1899년 9월 20일 주내면 유양리에 설립된 양주공립소학교로서, 1919년 의정부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1921년 8월 30일 남면보통학교(현 남면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 양주공립소학교의 이전으로 인해 현재는 남면초등학교가 양주군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교가 되었다. 이어서 1923년 4월 27일에는 유양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고, 1926년 5월 19일에는 가납공립보통학교(현 가납초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28년 7월 20일에는 장흥공립보통학교(현 송추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930년대 들어 1932년 5월 1일 회천공립보통학교(덕정초등학교), 1932년 9월 20일 백석보통학교(양주백석초등학교), 1935년 5월 1일 삼상간이학교(삼상초등학교), 1935년 7월 31일 은현공립보통학교(은현초등학교)가 차례로 개교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서당이나 보통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은 야간학교나 야학에 다녔다. 다만 야간학교는 정규적인 교

육기관임에 비하여 야학은 주로 일하는 청소년들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민간단체나 학생이 운영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었다.

야학은 일제강점기에 비교적 활발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1919년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의 성장과 함께 유행처럼 발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이 수동적이고 초보적인 기능만을 가진 ‘식민지 백성’ 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억제하였고, 초등교육조차 보급에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였던 조선사람들은 야학에서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였다. 세 번째로는 조선인이 설립한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 때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무수히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일제의 눈에는 민족교육을 가르쳐 독립을 꾀하는 온상으로 보인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에 뜻을 둔 사람들은 정규적인 학교 대신 야학을 많이 설립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양주지역에서도 야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7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양주 3처의 의무교육’을 보면 무료로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리면의 강습소, 노해면의 노동야학교, 광적면 광석리의 모범계몽서당 등 3곳이 나온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모범계몽서당 학부형인 김성진과 이근영이 중심이 되어 교사(校舍) 신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 밖에 양주군 회천면 봉양리 내촌마을 정귀현의 집에서는 ‘농벗학당(일명 내촌학당)’이라는 야학당이 열리기도 하였다. 농벗학당은 농민들의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 농민들이 서로서로 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학교 이름에 담았다고 한다. 정귀현은 학교를 설립하지는 남진희의 제안에 선뜻 집을 내어주었고, 동네 유지와 주민들도 뜻을 모아 인재 양성과 농촌경제 자립은 물론, 독립 정신도 암암리에 교육하면서 교육을 열망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의식이 성장하자 이와 더불어 일본

의 식민교육에 맞서 민족교육을 심화해야 하는 공감대가 강해지면서 일본의 문맹정책에 대항하여 농촌의 교육적 환경을 확신시키자는 농촌 계몽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농촌 계몽운동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구호에 따라 당시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조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농사일을 끝낸 저녁 시간에 강연회, 토론회, 독서활동, 야학 등의 형태로 진행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농벗학당 역시 당시 농촌 계몽운동을 하던 서울기독교청년회(현 YMCA)의 버나드 총무와 홍병선 목사 등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었다. YMCA는 1932년경 경성 인근 39개 촌락에서 농민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원하였는데, 농벗학당도 그중 하나였다. 교사로는 윤익선, 이형자, 이화여전 출신의 이귀남, 송실전문 출신의 주휘순과 박복진, 일본 유학생 김원순 등이 있었다.

당시 농벗학교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여 학생 수가 100명이 넘었으며, 1931년 5월에는 24평 크기의 교실을 신축하였고, 45원을 들여 무게 20관(75kg)이나 되는 큰 종을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농벗학당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2년 2월 16일자 『동아일보』에는 ‘도지사로부터 폐쇄 명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확인된다.

“양주군 회천면 봉양리 농벗학당은 1929년 7월에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당한 이래 간부 제씨의 부단한 활동으로 1930년 5월 19일에 정식 인가를 받아 배움에 굶주렸던 아동의 환희는 물론 유지 제씨의 헌신적 노력으로 교사까지 새로이 건축하고 100여 명의 무산 아동을 경성에서 교원까지 초빙하여 열성으로 교수하여 온 이래 사개성상에 갖은 난관을 돌파하고 경영하여 오던 중 지난 9일에 돌연 도지사로부터 폐쇄 명령이 내려 굳게 닫힌 학당으로 모여든 100명 생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두로 방황하는 형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이라 한다.” ‘학당 폐쇄로 100여 아동 방황’ 『동아일보』 1932.2.16.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무산 아동을 경성에서 교원까지 초대하여 열성으로 교육하던 농벗학당이 별다른 이유가 없이 폐지된 것은 역시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의 두려움과 통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해방 이후 농벗학당 교실은 덕청초등학교 봉양분교로 사용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폐교되었다. 당시 구매하였던 학교의 종은 1960년까지 보관되다가 도난당해 사라졌으며, 농벗학당의 교기는 봉양동의 이용문 씨가 보관하였다고 전해진다. 윤익선이 작사하고 이형자가 작곡한 농벗학당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 [농벗학당의 노래]

1. 삼천리 금수강산 무궁화 동산 / 밤나무 우거진 내촌에 / 장하고 묘하게 우뚝 솟은 / 농벗야학당이 새로 생겼네.
2. 삼천리 이천만에 광명 비쳤네 / 농촌 우리 청년아 / 발맞추어 배움길을 찾아 나가세 / 나가세 나가세 농벗야학에
3. 칠봉산의 송택은 울울창창코 / 자연음악 아뢰는 시내에는 / 내촌을 아름답게 장식해 / 그 자연 그 속에 농벗야학당
4. 낮에는 농사하여 의식족하고 / 밤에는 배워서 지식 넓히며 / 도덕과 학술 배우니 / 세계의 모든 인류 동등되었네

(후렴) 농벗 농벗 야학당 아름다움은 / 세계 문명 받아서 배워감일세

#### 4)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1919년 3·1운동을 겪은 민중들이 민족의식을 자각하면서 양주 사회도 자신들의 삶을 직접 변화시킬 각종 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어느 계층보다도 사회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하는 세상과 새로운 사상에 고무되어 조선의 새로운 문화를 건설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청년단체들은 이미 1910년대부터 많지는 않으나 지방마다 종교 청년단체를 비롯하여 '구락부(俱樂部, club의 일본식 표현) 나 '수양회' 와 같은 청년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20년대 이후에는 양주지역에서도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단체들의 조직은 당시 전국에 산재해 있던 비밀결사 형태의 항일 독립운동 경험이 3·1운동과 결합하여 전국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평안남도 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1920년대 말 124개 청년단체 가운데 '온건한' 27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온한' 단체로, 겉으로는 인격을 향상하고 체육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독립운동을 하려는 경향' 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양주지역에 조직된 청년단체들의 3·1운동 이후에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력양성과 문화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하여 계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농촌의 생활개선과 농민들의 자력갱생을 목표로 농촌 계몽활동도 전개하면서 양주지역의 '문화운동' 을 주도하였다.

1920년 이후 양주지역의 청년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설립일	활동
1	양주천도교청년회	1922.2.1	강연회, 체육, 야학교육 등 청년 계몽운동
2	의정부청년회	1922.3	양주군 유지, 조선인과 일본인 발기로 설립. 회장 梅田陸次郎, 부회장 長藤尾毅·이원규
3	유양엠윳청년회	1922	기독교 청년단체로 내주면 유양리에서 결성. 강연회, 토론회를 통한 산업 장려와 계몽 활동 전개. 자선부장 노교순, 서기 유창호
4	양주청년회	1922	이사장 구용조, 상무이사 구명희, 이사 김현경·김기윤·구봉식·이기종·김중화·이복영
5	의정부기독교청년회	1923	시둔면 의정부리 예배당에서 조직. 청년과 농촌 생활에 대한 계몽을 목표로 강연회, 토론회 개최
6	금오청년회	1923.11.17	시둔면 금오리 천도교회관에서 창립. 습관 개선, 지방 개량, 산업증진이 목적. 회장 윤원세, 부회장 윤자선, 총무 이재국
7	회천청년수양회	1924.10.19	회천면의 빈한한 가정과 노동자를 위해 면내 3개소에 노동야학 설치. 회장 이학재, 경리부장 변영근, 학술부장 안태형, 체육부장 최종근, 사업부장 서정원
8	의정부소년회	1923.11.17	양주군 일부 지식인과 유지들이 발기하여 창립
9	창동소년회	1925.2.18	노해면 창동리 배회주의 발기로 신흥의숙에서 창립. 회장 조희천, 부회장 김수주, 총무 최천봉, 종교부장 한대복, 사교부장 신청용, 회계 겸 체육부장 편근영, 선도부장 안희남, 서기 겸 지육부장 권학이, 여자부장 한백희, 서기 한음전, 고문 배희주
10	의정부소년척후대	1925.9	양주군 다수 유지가 발기해 창립. 대장 차석영
11	동명소년회	1920	시둔면 의정부리에서 결성. 1930년대 초 야학 운영을 통하여 농촌 계몽운동에 참여
12	소작농회	1925.3.9	이사항 등의 발기로 양주군 공회당에서 창립. 농가와 지주 사이의 갈등 요소 해결이 활동 목적. 회장 이사항, 부회장 윤원세, 서기 신용구, 회계 박예병
13	양주진흥회	1932.10	농촌의 생활개선과 농민들의 자력갱생을 목표로 결성. 양주군 16면 148리에서 최소 20~70호 450개 마을에 걸쳐 만들어짐.

# 6

## 현대, 대양주에서 도농복합도시로

### 1. 해방과 한국전쟁

#### 1) 건국준비위원회와 미군정 실시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를 표방한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식민지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비록 해방 직후 소련과 미국이 북쪽과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완벽한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35년간 일본의 잔혹한 통치를 이겨낸 한국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었다.

1945년 8월 초 태평양전쟁에서 패배가 유력해지자 당시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이후 일어날지 모르는 혼란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민족지도자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궁리하였다.

이때 민족지도자 중 여운형은 8월 15일 행정과 사법을 통괄하던 정무 총감 앤도 류사쿠를 만나 총독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본이 요구한 국내 치안 유지와 일본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면서, ① 정치·경제범 즉시 석방, ② 3개월간의 식량 보급, ③ 치안유지와 건국 사업에 대한 간섭 배제, ④ 학생훈련과 청년조직에 대한 간섭 배제,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조직 및 동원하는 것에 대한 간섭 배제 등을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각지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각종 자생적 조직이 인민위원회로 전환되었는데, 양주군에서도 1945년 11월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이성호·이경규·이덕창 등의 인사들이 양주군 인민위원회의 중심 인사였다. 그중 이성호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경기도 대표로 참석하여 집행위원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념적인 차이로 각지에서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각계각층을 망라하지 못하면서 양주군의 인민위원회도 정치적 구심점을 확립하지는 못한 채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후 미군이 3·8선 남쪽에 주둔하기로 결정되면서 9월 8일 인천으로 들어왔다. 미군은 남쪽에 주둔하면서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군사 통치를 실시하는 미군정을 선포하였는데, 당시 전국 각지에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후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에 운영되던 기업체 중 일본인이 귀국하면서 놓고 간 농지, 주택, 기업 등의 재산을 몰수하여 관리하였는데 당시 양주군의 귀속사업체는 6곳이 있었다.

해방 이후 양주군 귀속사업체 일람

회사명	소재지	관리인	종류	총 자본(원)
대화방직회사 창동공장	노해면	안응진	방직	10,000,000
조선위생재료제조회사	의정부면	박용균	위생재료	9,000
조선화학기계주식회사	의정부면	노영근	화학	3,800
대창연와공장	노해면	육영신	기와	36,133
현촌공장	노해면	○석규	가구	
동정형제상회	의정부면		상업	30,000

1948년 5월 10일에는 북한을 제외한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치러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당시 많은 정치 세력들이 남한만 단독선거를 치를 경우 3.8선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영구히 분단될 수 있다며 선거를 거부하였고, 일부는 파업·동맹휴학·시위 등을 통해 격렬히 반대하였으나 미군정은 준 계엄상태를 선포하여 선거를 강행하였다.

그해 7월 7일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인 ‘제헌국회’를 소집해 「대한민국헌법」을 제정·공포하였고,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한편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됨으로써 한반도에는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남한과 북한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어 분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2) 한국전쟁과 양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에 함께 힘을 모아 일본에 대항하던 같은 민족이 일순간에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으면서 한반도 전 지역이 잔혹하게 유린되었다. 이때 양주지역 또한 전쟁의 비극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수도를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양주지역은 북한군에게 있어 주요 점령지역 중 하나였다. 북한군은 주력 부대인 제1군단을 동두천·의정부 전선에 배치하였다. 제1군단 예하 병력은 전차여단을 포함한 총 4만 8,000여 명이였다. 이들은 병력을 둘로 나누어 동두천·의정부 방향과 포천·의정부 방면으로 진군하였다.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7사단의 병력은 외출·외박으로 4,500여 명만 남아있었는데, 부족한 병력과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25일 오후까지 동두천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의 전차부대가 밀려오자 동두천을 포기하고 22시경 양주군 덕정리 덕정초등학교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26일 아침에 역습을 감행하여 동두천을 탈환하였지만, 연합작전을 펼친 제2사단이 포천 공격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퇴로가 차단되었다. 결국 각 단위부대 별로 분산 철수하여 의 정부는 26일 13시경 북한군에 점령당하였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지원부대가 남한에 도착하였고, 1951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인근에서 ‘해피밸리전투’가 치러지면서 연합국의 전장이 양주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해피밸리전투는 영연방군이 참전한 전투이다. 영연방군은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인도·캐나다 등 당시 영국 본국과 옛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로 구성된 군대였다. 영국은 당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5만 6,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는데, 해피밸리전투는 영국군이 지휘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다. 한국에서는 ‘고양전투’라고 부르는 이 전투의 주요 전장은 장흥면 삼상리였다. 삼상리의 고개인 계곡현에서 일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계곡현전투’라고도 부른다.

1950년 11월 5일 한국에 상륙한 영국군은 평양까지 진격하였다가 11월 25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남하하였고, 12월 14일경에는 장흥면 삼하기 공



릉천에 군대를 주둔하였다. 당시 한국은 추운 겨울과 전쟁의 고통에 힘들던 영국군들에게는 따듯하게 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던 이곳을 ‘해피밸리(Happy Valley)’라고 지칭하였다고 전해진다. 영국군은 이곳에서 중공군을 막으면서 서울시민과 연합군이 철수하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이후 영국군은 이곳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추모비를 세웠다. 추모비는 1953년 7월 휴전 이후 장흥면 삼상리 일대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간하던 도중 쓰러진 채 관리되지 않다가 1962년 영국군이 수습해 영국으로 가져가 당시 영국군 얼스터 부대가 있는 북아일랜드에 옮겨 세웠다.

비록 전쟁은 휴전으로 종료되었으나 전투가 진행된 전장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당하기도 하였다. 전쟁 중 양주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학살 사건은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서 발생한 ‘남양홍씨 문중 집단 학살사건’을 들 수 있다.

남양 홍씨가문은 조선시대 내내 많은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였고, 고종 때까지 영의정을 배출한 대성(大姓)이었다. 당시 남양홍씨 가문의 홍중원은 대한청년단 남면단장을 맡았다. 대한청년단은 1948년에 결성된 우익 청년 운동단체로서 같은 해 결성된 좌익 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과 대립적인 입장에서 있었다.

결국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되면서 전쟁까지 이른 상황에서 이들은 이념 갈등의 희생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주지역에 북한군이 점령한 시기에 홍씨 가문의 사람 20여 명이 북한군에 의해 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한 것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이 참극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념 갈등에 의한 비극적인 희생이 양주지역에서도 일어난 것이었다.

한국전쟁 중 양주군의 피해 현황

인명피해									
총계		사망		납치		행방불명		부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317	2,096	1,870	1,703	120	111	130	117	197	165
일반 주택피해									
전체 호수		전부 파괴		반파		피해 연건평			
25,106		13,053		1,549		264,603평			
중학교 피해									
학교 수		화재로 인한 전부 파괴		화재로 인한 반파		피해 연건평			
2개		1,127평		-		1,127평			
초등학교 피해									
학교 수		화재로 인한 전부 파괴		화재로 인한 반파		피해 연건평			
34개		5,999평		475평		6,474평			
난민 구호상황									
빈민		전쟁피해민		피난민		합계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4,345	19,690	11,124	58,775	4,568	19,589	20,037	98,054		

## 2. 양주의 행정변화

한국전쟁의 피해가 전국을 휩쓸었지만 결국 1953년 7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전쟁은 매듭지어졌다. 이후 대한민국은 전쟁 피해복구를 통하여 사회발전을 기획하기 시작하였는데 양주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으로 보장되어 1949

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으로 공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는 직선으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도지사와 서울시장 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연기되었다.

전쟁 중인 1952년에 실시한 제1대 지방의회선거에 이어 1956년에는 제2대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와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이때 양주군에서도 읍장 및 면장과 읍·면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1956년 제2대 양주군 읍·면장 명단

읍면	읍면장	읍면	읍면장	읍면	읍면장
의정부읍	김영찬	주내면	박재우	회천면	박창덕
은현면	최병팔	광적면	최면승	백석면	팽흥열
장흥면	현희문	남면	홍인섭	이담면	어명례
별내면	이강득	봉접면	윤이영	진건면	옥제규
화도면	이풍식	와부면	김양한	미금면	이봉희
구리면	안순봉	노해면	김우영		

1956년 양주군 읍·면의회 의원 명단

읍면	읍·면의회 의원	읍면	읍·면의회 의원
주내면	송영반, 변중식, 서경상, 박은석, 송병세, 김주현, 김한진, 이동옥, 한진학, 김원산, 한태성	별내면	권병일, 김종옥, 이세환, 이근목, 유용희, 신형우, 안교인, 박용문, 유장덕, 안산호, 김만영
회천면	이황로, 최용근, 안억만, 박휘병, 김기환, 이영기, 박재병, 최종근, 이철우, 이연목, 임병순, 윤우영	봉접면	이교식, 이진성, 이완근, 서기원, 현연섭, 윤석근, 유각규, 최윤호, 홍순구, 최창근, 남정길
은현면	이경구, 송배근, 이승석, 서재석, 남봉주, 김형빈, 정지세, 김응규, 서정섭, 남학주, 최승봉, 남상훈	진건면	김원봉, 오영석, 이계순, 최응규, 이원하, 이순익, 백만복, 원배은, 홍만표, 손장순, 이덕규

읍면	읍·면의회 의원	읍면	읍·면의회 의원
광적면	김형재, 백윤기, 이상목, 정병국, 성기상, 조병식, 김영진, 송기만, 김봉학, 김호윤, 이수남	화도면	이규동, 안오성, 김영설, 박재남, 유찬준, 원석송, 이채덕, 김학경, 원세혁, 유성로, 이계화
백석면	고재덕, 유기정, 김동현, 김인기, 최병삼, 강성웅, 김재수, 박경원, 김준영, 이종득, 김경봉	와부면	이계재, 서순용, 이종계, 김용배, 조범춘, 박성순, 김수경, 박광우, 안근호, 한준서, 김현태, 최홍룡
장흥면	이범의, 이흥석, 이상만, 이삼만, 배태식, 정용교, 김삼복, 김준영, 김기남, 김광열, 고성균	미금면	이명휘, 이보득, 오배근, 이우숙, 민우식, 우순명, 강호태, 이문복, 장용인, 김중원, 김대규
남면	홍사식, 이성재, 안봉배, 김진옥, 오민근, 백명현, 송병로, 홍학표, 허세호, 이상운, 윤수학, 윤현보	구리면	김용배, 정수천, 최홍수, 박흥진, 박희창, 안장명, 윤태봉, 박범식, 최홍식, 김덕진, 이강호, 이사범
의정부읍	김양권, 고태현, 강문규, 유장복, 박덕양, 김인용, 이종철, 권오영, 윤민규, 강인구, 김익성, 박천운, 김홍집	노해면	윤윤복, 남궁택, 이재형, 김순남, 최응조, 임용순, 양학승, 한종일, 김영찬, 한도봉, 정문봉, 최삼준
이담면	이상덕, 홍재운, 이기봉, 석춘봉, 안중규, 정관수, 김노성, 양경환, 김성수, 권희수, 양재덕, 오국환, 이준모		

하지만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읍·면의회 의원이 선출된 직후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박은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조국의 통일 때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제는 민주화운동이 성과를 맺으면서 부활하게 되었다. 이후 2020년까지 양주에서는 총 3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양주지역 역대 국회의원 현황

역대	임기	국회의원(소속, 지역구)
1	1948.5.31.~1950.5.30.	김덕열(무소속, 양주군 갑), 이진수(무소속, 양주군 을)
2	1950.5.31.~1954.5.30.	조시원(사회당, 양주군 갑), 이진수(자유당, 양주군 갑)
3	1954.5.31.~1958.5.30.	김종규(자유당, 양주군 갑), 강승구(무소속, 양주군 을)
4	1958.5.31.~1960.7.28.	강영훈(민주당, 양주군 갑)
	1958.5.31.~1960.7.2.	강성태(자유당, 양주군 을)
5	1960.7.29.~1960.8.15.	강영훈(민주당, 양주군 갑)
	1960.10.11.~1961.5.16.	조윤형(민주당, 양주군 갑)
	1960.7.29.~1961.5.16.	강승구(민주당, 양주군을)
6	1963.12.17.~1967.6.30.	강승구(민정당, 의정부·양주 일원)
7	1967.7.1.~1971.6.30.	이진용(민주공화당, 의정부·양주 일원)
8	1971.7.1.~1972.10.17.	이윤학(민주공화당, 의정부·양주 일원)
9	1973.3.12.~1979.3.11.	박명근(민주공화당, 의정부·양주·파주 일원), 이진용(무소속, 의정부·양주·파주 일원)
10	1979.3.12.~1980.10.27.	박명근(민주공화당, 의정부·양주·파주 일원), 김형광(신민당, 의정부·양주·파주 일원)
11	1981.4.11.~1985.4.10.	홍우준(민주정의당, 의정부·양주 일원), 김문원(민주한국당, 의정부·양주 일원)
12	1985.4.11.~1988.5.29.	김형광(신한민주당, 의정부·동두천·양주 일원), 홍우준(민주정의당, 의정부·동두천·양주 일원)
13	1988.5.30.~1992.5.29.	이덕호(민주정의당, 양주·동두천 일원)
14	1992.5.30.~1995.6.10.	임사빈(민주자유당, 양주·동두천 일원)
15	1996.5.30.~2000.5.29.	목요상(신한국당, 양주·동두천 일원)
16	2000.5.30~2004.5.29.	목요상(한나라당, 양주·동두천 일원)
17	2004.5.30.~2008.5.29.	정상호(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일원)
18	2008.5.30.~2012.5.29.	김성수(한나라당, 양주·동두천 일원)
19	2012.5.30.~2016.5.29.	정성호(민주통합당, 양주·동두천 일원)
20	2016.5.30.~2020.5.29.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일원)
21	2020.5.30.~현재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일원)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읍·면의회 의원이 선출된 직후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박은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 때까지 유예한다’ 고 발표하였다. 이후 지방자치제는 민주화운동이 성과를 맺으면서 부활하였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복구된 지방의회는 시·군·구로 범위가 조정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1년 3월 26일 31년 만에 구성된 지방의회는 전국 시·군·구 의원 총선거를 치렀고, 양주군에서도 7개읍·면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입후보자는 모두 23명이었는데, 정당은 배제되어 모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 선거 결과 권선안·안광순(회천읍), 우충국(주내면), 한상익(은현면), 이은선(남면), 김재현(광적면), 정명훈(백석면), 김혜한(장흥면) 등이 선출되었다.

2003년 10월 19일 양주시 승격과 함께 양주시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된 것은 2003년이지만 현재 유양동의 양주시청 자리에 청사가 들어선 것은 양주군 시기이던 2000년 9월 25일이다. 그 이전의 양주군청은 현재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한라비발디 루트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이 재편되고 양주군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1922년 유양리에 있던 군청사를 양주군 시둔면(현 의정부)으로 옮기면서 들어선 자리이다.

이후 경기 북동부 행정구역의 중심지역이 된 시둔면은 1938년 양주면으로 개칭하였고, 1942년에는 의정부읍으로, 1963년에는 노해면과 구리면의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되고 의정부읍이 양주군에서 분리되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이때 가평군 외서면 3개 리(입석리·외방리·내방리)와 진접면 수산리, 화도면의 3개 리(지둔·운수·송천)를 합쳐 수동면을 신설하여 양주로 편입하였다.



당시 양주군 청사를 군내로 옮겨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의정부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에 있던 현재의 남양주·구리시 지역이 여전히 양주 관할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1980년 구리시 지역을 포함한 남양주 일대가 남양주군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양주군 청사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 화성·양주·평택 3개 군에 군청을 군내에 유치하려는 지역 주민들 간 경쟁이 최근 들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들 3개 군은 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던 읍 지역들이 인구 증가에 따라 시로 승격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군내에 군청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

1954년에 건립(6.25 전쟁으로 소실된 후 복원)되어 지금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양주군청의 이전을 놓고 회천읍·광적면·주내면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개발협의회나 번영회,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적면 지역개발협의회(회장 변창우)는 “1개 읍 6개 면의 교통중심지이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광적면이 군청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빈번해진 국회의원 귀향 보고대회나 군수 순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최씨 문중에서는 지난봄에 문중 땅 5,000평을 군청부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양주군에서 가장 인구 밀집 지역인 회천읍 주민들은 “유동 인구 5만 명, 상주인구 3만 명으로 양주군 세원의 60%를 내고 있는 회천이 당연히 군청 소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주내면민들은 “과거 양주군이 드넓었던 때 양주목사가 있던 동헌 터가 남아있고 경원선과 국도가 통과하고 있는 주내가 미래의 중심이 될 것이 확실하다”며 군청 소재지로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군의 소재 군청 유치경쟁 한창’, 『조선일보』 1991.12.4.

양주군청 유치를 원했던 광적면, 회천읍, 주내면의 경쟁은 1995년 주내면 남방리로의 이전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199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0년 9월 25일까지 약 4년여 만에 양주군 신청사는 완공되었다.

역대 양주군수·시장 현황(1945~2020년)

구분	역대	성명	재임 기간	구분	역대	성명	재임 기간
군수	1	김종규	1945.3.25.~1947.5.17.	시장	23	백종민	1980.8.1.~1982.7.31.
	2	서병익	1947.5.18.~1953.3.13.		24	김한수	1982.3.3.~1983.4.10.
	3	이규복	1953.3.31.~1953.5.26.		25	정승우	1983.4.11.~1986.4.6.
	4	이교완	1953.6.27.~1954.3.15.		26	정의현	1986.4.7.~1986.12.24.
	5	남승학	1954.3.16.~1956.7.18.		27	황중태	1986.12.25.~1988.6.10.
	6	이기학	1956.7.19.~1957.4.7.		28	윤성진	1988.6.11.~1988.12.31.
	7	이병연	1957.4.23.~1959.10.25.		29	이상건	1989.1.1.~1989.5.5.
	8	곽종석	1959.10.26.~1960.5.22.		30	하영수	1989.5.6.~1991.7.15.
	9	이승화	1960.5.23.~1961.6.21.		31	우종오	1991.7.16.~1993.3.28.
	10	황석규	1961.6.22.~1962.4.10.		32	이태봉	1993.3.29.~1993.6.25.
	11	남영우	1962.4.11.~1963.3.15.		33	윤철모	1993.6.26.~1994.5.8.
	12	유문식	1963.3.19.~1965.11.9.		34	허 남	1994.5.9.~1995.6.30.
	13	이규선	1965.11.10.~1966.8.20.		35	윤명노	1995.7.1.~1998.6.30.
	14	김대근	1966.8.22.~1967.8.24.		36	윤명노	1998.7.1.~2002.6.30.
	15	장용순	1967.9.5.~1969.3.2.		37	임충빈	2002.7.1.~2003.10.18.
	16	이석봉	1969.3.3.~1971.8.17.		1	임충빈	2003.10.19.~2006.6.30.
	17	민충근	1971.8.21.~1974.3.5.		2	임충빈	2006.7.1.~2010.6.30.
	18	허 섭	1974.3.6.~1976.3.31.		3	현삼식	2010.7.1.~2014.6.30.
	19	김태수	1976.4.1.~1976.8.4.		4	현삼식	2014.7.1.~2015.8.19.
	20	진민현	1976.8.5.~1978.8.1.		5	이성호	2016.4.14.~2018.6.30.
	21	강도희	1978.8.2.~1980.2.26.		6	이성호	2018.7.1.~현재
	22	박창곤	1980.2.27.~1980.7.31.				

비고 : 제1~34대 양주군수는 관선, 제35~37대 양주군수와 제1~6대 양주시장은 민선임.

양주는 2003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번째로 시로 승격되었다. 양주는 도농복합시로 제도가 개편되어 시 승격과 관련한 조건이 변화되면서 승격 대상이 되었다. 즉 인구 15만 명 이상, 2만 명 이상의 읍 지역 2개 이상, 해당 읍의 인구 총 5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내에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 이상일 때 시 승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2003년 당시 양주의 인구는 총 15만 5,524명이었고, 양주읍 2만 2,610명, 회천읍 3만 4,134명이었으며, 기타의 조건도 충족하였다. 이후 양주읍이 양주1~2동으로, 회천읍이 회천1~4동으로 분동되고, 2001년에 백석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과 함께 양주시는 1읍 4면 6행정동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양주가 시로 승격된 2003년, 정부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2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때 양주는 2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옥정지구’로 지정된 옥정동, 율정동, 회암동, 고암동, 삼승동 일대 704만 6,000㎡와 ‘회천지구’로 지정된 회정동, 덕정동, 고암동, 덕계동, 신북동 일대 437만 8,000㎡가 각각 2004년 12월과 2005년 11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이후 옥정지구는 2014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20년 6월 기준으로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양주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 3. 양주의 새마을 운동

1970년대 초 전국 지방 장관 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농촌의 자조적인 노력을 진작시킬 방안을 연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었다. 당시 한국은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

촌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농촌지역에서 일정의 성취가 있다고 평가된 이후에는 도시지역과 전 국가사회의 개발 운동을 기본목표로 삼도록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마을 운동은 당시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 성취를 이루면서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1970~1973년까지 진행된 초창기 새마을 운동은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의식개혁사업순으로 목표를 삼고 시행하였다. 환경개선사업은 마을 및 주택의 생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길을 확장하고, 공동 빨래터를 만들었으며, 지붕·담장·부엌·화장실을 개량하였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로 농가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농로 확장, 농지 개량, 종자개량, 품앗이 장려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의식개혁사업은 의식과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근검절약 생활 실천, 퇴폐풍조 일소, 협동분위기 조성 등의 사업이었다.

1945~1976년의 기간은 사업 확산 기간으로, 새마을 운동은 이 시기에 국민적인 운동단계로 성장했다. 논두렁 바로잡기, 소하천 정비, 복합영농 실시, 공동작업장 운영, 농외 소득원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1973년 375달러이던 1인당 평균 국민총생산이 1976년에 765달러로 증가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초가지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농촌은 현대화되었다. 한편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운동에서 민간 주도의 운동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어 새마을 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양주군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통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농촌지역이었던 양주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읍면의 각 마을 단위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연곡리와 매곡리 등에서는 지붕개량 사업이 진행되었고, 매곡리에서는 마을에 전기를 가설하였으며, 하패리·운암2리의 마을안길과 광적면의 도

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공사도 진행되었다. 삼상리 농로에는 농기구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가 건설되었고, 연곡리·부곡2리·매곡리 등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매곡리와 부곡리에는 상수도 시설을 설비하였고, 마을 별로 공동 빨래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975년에는 매곡리, 1976~1977년에는 연곡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각각 사업자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원받았다.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창립되어 민간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자 양주군에서 1984년 3월 21일 새마을운동 양주군지회가 발족하였고, 양주군청에 있던 양주군지회는 그해 11월 30일 광적면 가남리 727-1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양주군지회는 ‘마을 안길 넓히기 사업’을 추진하여 1982년 남면 한산리, 1983년 장흥면 울대리, 1987년 광적면 덕도리, 1989년 주내면 유양리, 은현면 운암2리의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였다. 또한 소득증대사업으로 한우와 비육우 등을 보급하였고, 인산·약초·부추·버섯 등의 작물 재배도 지원하였다.

이 밖에 양주군 회천면 덕계리 683-2에는 당시 대우그룹의 계열사이던 신성통상이 ‘새마을 공장’을 건설하였다. 덕계동 공장 부지의 규모는 대지 3만 3,116.60㎡, 지상 3층과 옥탑 등 연면적 1만 1,483.22㎡였다. 이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1개 면에 1개 공장 건설을 지시한 후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낙선 상공부장관이 밝힌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 전국 170개 면에 184개 농가공산품개발 사업장이 세워진다.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읍면에 세워지기 때문에 새마을 공장이라고 불리게 된다. 전 국토의 산업권화와 전 농촌의 공업화 계획에서도 가장 실감나는 사업이 바로 새마을 공장이다. ‘농공균형에 전기, 새마을 공장 건설 계획과 전망’, 『매일경제』, 1972.11.17.

이렇듯 새마을 공장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자원과 농촌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6월 16일 신성통상은 덕계동에 새마을 공장을 준공하였다.

16일 경기도 양주 소재 새마을 공장 준공 1주년을 맞아 풀 가동에 돌입. 20억 원을 투입한 봉제품공장으로 월 7만 타의 생산능력을 보유, 동시에 올해 수출목표 2,000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사 소식’, 『매일경제』 1977.6.16.

덕계동 새마을 공장은 당시 300여 명의 생산직 직원이 있었는데, 이들의 주거 공간 차원에서 인근지역에는 1년 정도 일정 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는 ‘사글세’가 3,000원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후 1984년 대우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신성통상은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이후 공장부지에는 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리치마트’가 들어섰다.

양주의 새마을 운동은 2003년에 접어들면서 양주군이 시로 승격되어 기존의 새마을운동 양주군지회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주시지회로 개칭되었고, 2009년 10월에는 사단법인 양주시새마을회로 법인전환 하였다. 또 2006년 3월 1일에는 새마을회관을 양주시 부흥로 1515(남방동)로 이전하였다.

## 4. 현대, 양주 사회의 변화

### 1) 산업의 발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



했다. 그리고 생필품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돌아온 일상과 함께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신천장으로 불리다가 1914년 경원선이 부설되면서 덕정장으로 불리게 된 덕정장은 한국전쟁 이후에는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에서 나온 물자를 사람들이 거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상가건물 없이 장터만 있어 노점으로 열리던 시장이었지만, 1970년 회천농협 하나로마트를 시작으로 주변에도 상가건물이 들어섰다.

덕정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남면 면사무소 소재지인 신산리에서 열리던 신산장은 1973년 인근에 군부대가 조성되고 군인과 가족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2004년에 약 10억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571,83㎡ 규모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였고, 2006년에도 연면적 496,50㎡의 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다.

한편, 덕정장과 신산장처럼 예전부터 있던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시장이 새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의 봉암시장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봉암시장은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군이 주둔하면서 형성된 시장이었다.

영연방군이 봉암리에 주둔하자 전쟁의 포화를 피해 피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물품거래를 위한 시장시설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일과 8일에 장이 열렸으며, 마을 이름인 봉암리를 따서 봉암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1953년 말에는 시장 목표 400호 가운데 약 80호가 건축됨으로써 3월 8일 시장 인가를 받았고, 1954년 4월 3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인구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규모는 자연스럽게 축소되었고, 인근지역인 동두천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그곳 시장을 이용하면서 봉암시장은 1979년에 폐쇄되었다.

한편 양주지역은 대한민국 유기농의 산실인 ‘한삶회’가 있던 공간이기도 하다. 한삶회는 공동체 이름으로, 1980년대 생산물을 유통하는 식품회사 ‘풀무원’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15일 아침 7시 서울 잠실 주공아파트 524동 앞 초가을의 상쾌한 새벽 공기를 뚫고 2.5t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 주부 7명이 트럭을 둘러싸고 운전사가 트럭 속에서 내려주는 비닐봉지들을 각자 받아들는다. 비닐봉지에는 열무, 배추, 쪽파, 가지, 상추, 호박, 아욱, 근대, 부추, 풋고추 등이 담겼는데, 이것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무공해 채소들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지난 3월부터 준비를 해온 ‘무공해농산물 직거래운동’이 열매를 맺어 지난 2일부터 채소 배달이 시작된 것이다. (……) 채소는 풀무원(대표 원경선)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농회(회장 오재길) 그리고 농촌운동자협의회(회장 박홍섭)에서 공급한다. 경기도 양주와 서울 강동구 하일동 등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이들은 전날 밤 가지며 호박들을 따서 차에 싣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잠실, 8시에 여의도, 9시 반쯤에 평창동에 온다. ‘주부들의 지혜 『농산물직거래』’, 『동아일보』 1983.9.19.

풀무원공동체는 1953년 부천에서 시작되었다. 원경선 대표가 부천에서 땅 1만 평을 개간하여 한국전쟁으로 기아가 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농장을 만든 것이다. ‘풀무’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학교의 정식 이름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다. 농업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앙과 인성을 갖춘 평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운 학교이다. 그 마을에 풀무골이 있어서 학교 이름을 풀무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오갈 데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농사지으

며 살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풀무학교의 설립자인 주옥로 선생에게 당신의 부친 농장에 그 이름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는 그때 풀무학교의 이념에 뜻을 같이 하시면서 이사로 계셨다. 사실 풀무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라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래도 승낙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대장간에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풍구가 풀무다. 아버지는 대장간에서 녹슨 쇠가 풀무불에 단련되어 호미나 낫처럼 쓸모있는 연장이 되듯이 젊은 사람들이 풀무원에서 일과 신앙으로 단련되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풀무고등학교, 풀무원, 풀무원 회사는 남남이다.’ 『콩나물신문』 2015.4.8.

기독교 신자인 원경선의 초창기 풀무원공동체 목표는 가난 구제에 있었다. 공동체를 찾아온 이들에게 오전에는 성경과 교양을, 오후에는 양계법과 영농실습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1975년 일본의 유기농 선구자 고다니 준이치가 이끄는 공동체 ‘애농회’에서 만든 유기농 책을 접한 원경선은 이후 유기농 사업에 매진하게 된다.

당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용을 독려했던 화학비료와 농약이 오히려 땅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생각하던 그는 미국에 들렀다가 일본을 찾아 애농회를 이끌던 고다니 준이치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정농회’를 설립하고, 1976년 도시화가 진행되던 부천을 떠나서 양주 옥정리 181-1일대의 땅 약 4만 평을 마련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다. 그리고 공동체 이름을 ‘한살회’로 바꾸었다.

한살회에서 생산한 유기농품은 아들 원혜영이 압구정동에 가게를 마련하여 팔았는데, 매장의 이름을 풀무원공동체에서 따와 ‘풀무원’이라고 지었다. 이후 풀무원은 생산물을 유통하는 가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식자재 기업 ‘풀무원식품’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3년간 술한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드디어 유기농에 성공을 거둔 양주의 ‘한살회’ 공동체가 당시 『신동아』에 크게 보도되자 난리가 났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마을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아니라 오로지 유기농산물에 집중되었다. 너도나도 사겠다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뤘고, 이를 보다 못한 원경선이 아들을 시켜 서울 압구정동에 가게를 낸 것이 지금 풀무원식품의 효시다. ‘충북에서 다시 쓰는 원경선 이야기’, 『충북인뉴스』 2004.12.9.

이후 한국 유기농의 산실이었던 한살회는 양주의 도시화가 진행되던 2004년 충청북도 괴산으로 내려갔고, ‘평화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 도시로 변한 옥정신도시는 이렇듯 대한민국 유기농의 산실이라는 역사가 있다.

옥정동의 한살회가 양주지역 유기농의 산실이라면, 서울우유 제1공장이 있던 덕계동은 대한민국 우유 산업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양주 남면 황방리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조소앙은 1946년 3·1절 기념식에서 아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이상향으로 언급할 정도로 우유의 중요성을 설파하기도 하였는데, 1970년대에 ‘우유 마시기 운동’으로 이어질 정도로 우유는 중요한 식품으로 취급되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은 우리나라 우유 가공업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로, 1934년 4월 13일 청량리농유조합으로 시작하였다. 현 양주 지역과의 인연은 중랑구 상봉동(옛 양주군 구리면 상봉동)에 있던 서울우유 제1공장을 1984년 5월 3일 양주군 회천면 덕계리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강성원)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에 건설 중인 양주

공장을 내년 1월에 완공,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6월 착공된 이 공장은 대지 1만 9,000평에 연건평 2,326평 규모이다. 147억 원을 투입한 이 공장이 완공되면 서울우유의 1일 원유 처리 능력은 신갈공장 140톤을 합쳐 260톤(1일 8시간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우유는 양주공장 완공과 함께 서울의 면목동(필자 주: 상봉동의 오기) 공장을 이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 내년 1월 완공', 『매일경제』 1983.12.15.

덕계동의 서울우유 양주공장은 낙농업이 발달한 덴마크 여왕의 남편인 헨리크(Henrik) 공이 1984년 방문하여 낙농기술 교류를 협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서울우유는 2017년 4월 13일 양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유제품 가공공장인 '통합신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하고, 2020년 9월 2일 완공하였다. 5만 9,143㎡의 부지에 800여 명이 근무하는 신공장은 양주 제1공장과 용인 제2공장을 통합한 것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에 양주·포천·동두천 일대를 '패션산업 특구'로 지정하였는데, 특구 내에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섬유기업비즈니스센터 등이 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는 2006년 10월 23일 양주시 남면 검준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았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27일 신북동에 자리 잡았다. 이들 기관은 국내 섬유산업의 발전과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 2) 교육의 발전

조선시대 양주지역의 교육을 담당한 대표적인 교육기구로는 양주향교가 있다. 향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이었다. 양주향교는 1401년(태종 1) 양주목의 치소가 있었던 고주내면(현 고읍동)에 처음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으며, 1506

년(중종 원년) 유양동에 양주목이 새로 설치되면서 관아의 동쪽 현재의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이후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소실됐다가 1610년(광해군 1)에 재건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다시 불타 없어졌지만, 1958년 양주지역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복원하였으며, 1984년에 명륜당을 복원하였다.

양주향교는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시작되면서 교육적 기능은 쇠퇴하고 제례의 기능만 남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절교육과 인성교육을 보조해줄 기관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양주지역에서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던 것은 갑오개혁 이후 새롭게 추진되었던 소학교의 후신인 초등·중등·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피해를 딛고 양주지역에 최초로 다시 개교한 학교는 1954년에 개교한 덕정중학교이다. 양주군 회천면에 있는 덕정중학교는 1958년 미 제1군단의 주선으로 신축 교사 4개를 준공하면서 학생들을 더욱 많이 받기 시작하였는데, 덕정중학교가 개교하기 이전까지 양주지역의 학생들은 인근의 의정부읍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야 했다.

이후 1955년 남면 신산리에 남문중학교가, 1968년에는 광적면 광석리에 조양중학교가 개교하였다. 그리고 30여 년간 신설 중학교가 없다가 200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2001년에는 덕계중학교·고암중학교가 개교하였고, 2002년에는 양주백석중학교, 2005년에는 삼승중학교, 2006년에는 덕현중학교·회천중학교, 2015년에는 옥정중학교가 개교하였다. 이 외에 2006년에는 중·고등 대안학교인 쉼마기독교학교가 개교하였다.

1970년대 말 양주군이 동두천과 남양주 지역이 분리·신설되기 전까지 양주의 교육기관은 현재의 동두천과 남양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상대적으로 현재의 양주시 지역 교육기관의 수는 적었는데 1976년까지 초등학교



교 61개 중 21개교, 중학교 16개 중 3개교, 고등학교 13개 중 1개교가 현재의 양주시 지역에 소재하였다.

당시 1개였던 고등학교는 1961년에 개교한 남문농업고등학교인데, 1955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남문학원이 설립하였으며, 양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 법인이다.

이 외에 양주지역에는 ‘고등공민학교’ 였던 주내농업기술학교가 있었다. 주내면 마전리(현 마전동 산145) 주내장로교회의 부설 학교로서 1959년 4월 15일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주내성중학원이었으며, 1962년 주내농업기술학교로 개칭하였다.

1980년 나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주내농업기술학교(전수학교) 선생이었다. 내 월급은 의정부-주내 간 시외버스 차비인 15,000원이었다. 대학 졸업장도 없는 내가(79년, 4학년 2학기 도중 휴학) 그곳의 선생이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

사방에 수소문한 결과, 의정부에서 조금 떨어진 주내의 한 전수학교에서 학생들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조건은 교사 한 명이 따라오는 것이었다. 주내농업기술학교 역시 폐교를 2년 앞둔 곳이라 학생이 몇 명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학이라기보다 학교 간 통합에 가까웠다. 사실, 무인가 시설인 야학에서 전수학교로 전학한다는 것은 학생기록부를 만들어 넣는 위법행위였다. 하지만 폐교 직전의 학교로 교육청의 감사가 없었기에 가능했다.

조건으로 교사 한 명을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학교 선생이라고 명목상 교장인 목사님을 제외하면 방통대(당시 2년제)에 적을 둔 사람과 신학교 입학생 여선생 두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무자격 교사이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나는 야학 밥을 3년간이나 먹은 ‘베테랑’이었다. 가르친 과목은 중2, 중3 과정의 국어, 수학, 물상, 사회 과목이었다. 「뉴라이트 교과서를 보면서 느낀 ‘공포감」, 『오마이뉴스』 2006.12.18.

주내농업기술학교는 1982년 폐교될 때까지 24년간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배움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가 되었다. 기사는 당시 의정부에 있던 정도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주내농업기술학교의 교사로 부임하게 된 정병태의 기고문이다. 의정부 정도학원의 야학 교사로 있던 정병태는 야학이 폐교되자 아이들을 받아줄 학교를 수소문하다가 주내농업기술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양주지역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은현면 용암리에는 양주 최초의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인 ‘서정대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2014년 3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본교를 두고 있는 경동대학교와 전북 임실군에 본교를 두고 있는 예원예술대학교가 각각 양주 고암동과 은현면 용암리에 개교하였다. 이렇게 양주지역에 대학교가 개교하게 된 배경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지 특별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 4년제 대학이 3년 사이 5곳에서 10곳으로, 배가 늘었다. 접경지라는 특수성 탓에 받는 중첩 규제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이전까지 제한된 경기 북부지역에 이처럼 대학교가 늘어난 배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지 특별법)이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적다. ‘경기북부에 4년제 대학 3년새 5개 → 10개 대체 무슨 일?’, 『연합뉴스』 2017.5.30.

국회에서 제정한 「공여지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규제를 받아 온 경기 북부지역을 위해 주한미군이 떠난 자리 또는 그 주변에 대학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경동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는 「공여지 특별법」을 적용받아 수도권으로 이전한 첫 4년제 대학과 예술대학이다.

### 3) 교통의 발전

1948년 12월 15일 경원선에 주내역(현 양주역)이 신설되었다. 당시 주내역은 의정부역과 덕정역 사이에 설치된 간이역으로 승객과 작은 화물만 취급하였다.

금번 경원선 의정부 덕정리역 사이에 새로이 정거장(양주군 주내면 남방리)을 신설하게 되었다 하는데, 장소는 30년 전 개통 당시에 현 의정부역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맹렬한 반대로 의정부에 설치하게 되었던 곳으로 현 주민(주내·백석·광적면)들은 그때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지방 발전과 혼란한 교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해방 직후부터 의정부역장 이기주 씨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끊임없이 진정한 결과 드디어 지난 9월 24일부로 승인이 되어 수 일 내로 공사에 착수하리라는 바 이와 반대로 의정부는 발전상 타격이 크리라 한다. 『경원선에 1역 신설』 『경향신문』 1948.10.12.

당시 주내역 위치는 일제강점기 때 의정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해방 이후에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다. 1911년 경원선이 개통되던 당시에는 국권을 빼앗긴 상태여서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땅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빼앗고 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반대했었으나 나라를 되찾고 정상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역사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주내역에는 1966년 한국을 방문한 린든 베인스 존슨(Lyndon Baines Johnson) 미국 제36대 대통령이 다녀가기도 하였다.

존슨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수행원 및 취재기자를 태운 20량의 긴 특별 열차가 전선 지방과 수원을 향해 운행되는 동안 철로가엔 거의 30m에

한 사람꼴로 정복 경찰관이 늘어서 삼엄한 경계를 하였다. 열차가 26사단이 자리 잡은 고장(양주)에 이를 때까지 철도청 특별지시로 모든 상행(서울로 오는)열차는 운행 시간을 변경 또는 운행 중지 됐다. 동승했던 백악과 나출입기자는 ”술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에 어여쁜 여대생을 동원한 철도청 및 미군 측의 갖가지 특별서비스에 극히 만족한 듯. 『동아일보』, 1966.11.2.

당시 양주에는 휴전 이후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존슨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7개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2007년에는 기존의 주내역과 덕정역 외에 덕계역이 개통되었다. 이는 1997년에 기존의 경원선 철도 구간을 동두천의 소요산역까지 1호선을 연장하는 ‘경원선 복선 전철 사업’이 착공되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덕정역은 남쪽으로 100m가량 이동한 신축 역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6월 30일에는 주내역에 이어서 양주지역 4개 역인 일영역·장흥역·온릉역·송추역을 지나는 ‘교외선’이 개통되었다. 교외선은 능곡역에서부터 대곡역-대정역-원릉역-삼릉역-벽제역-일영역-장흥역-온릉역-송추역-의정부역에 이르는 노선이였다.

개통 초기에는 의정부의 가릉과 고양의 능곡을 잇는다고 하여 ‘능의선’이라고도 불렸으며, 1963년 8월 20일 가릉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5.4km 구간의 공사가 완공되면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이 선로는 기존의 경의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교량선이였다.

서울교외선이 20일 상오 10시 의정부역 구내에서 개통식을 올리고 첫 열차가 운행됨으로써 개통되었다. 경원선의 의정부와 경의선의 능을 연결하여 서울-청량리-능곡-서울의 코스나 그 반대의 코스 82.5km로 서울 교외 북쪽을 한 바퀴 돌게 될 이 순환철도는 서울의 인구 분산에 따라 교통난과 주택

난을 완화하고 교외의 전원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이 철도연변은 산수가 좋고 고적과 망월사, 진관사 등 사찰이 많아 관광지로서 서울시민들의 하루의 휴양지로도 적합하다. '전원열차 서울교외선 개통', 『경향신문』 1968.8.20.

서울의 교외 지역을 다닌다고 하여서 '서울교외선' 이라고도 불렀던 '교외선' 은 서울의 주택난과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외 지역의 관광지를 활성화하여 여가생활의 향유를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당시 교외선은 도봉산을 비롯하여 송추, 광릉, 소요산 등의 유원지로 갈 수 있는 교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장흥역은 인근에 장흥유원지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였고, 송추역은 송추유원지를 비롯하여 사패산과 도봉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등산객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였다. 이 밖에 은릉역에는 주변에 자갈을 채취하는 채석장이 있어서 석재를 수송하기 위한 임시 승강장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24일 도봉산·송추·광릉 및 소요산 등 서울 외곽지대 각 유원지에 올 들어 최고 상춘객이 밀려 서울교외선을 비롯 경원·경춘선 등 각 열차와 시외버스는 초만원이었다. 일부 소풍객들은 차를 못 타 현지에 투숙하는가 하면 걸어 돌아가기도 했다. 이날 도봉산에만 약 10만, 송추 3만, 광릉 5,000, 소요산에 5,000여 명 등 4개 유원지에 모두 14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외선은 초만원', 『동아일보』 1966.4.25.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해외여행객도 증가하면서 교외선의 이용객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결국 2004년 4월 1일부로 여객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다. 한편 일영역은 영업이 중지된 이후에도 화물선과 군 병원 열차의 정차를 위해 역장이 있는 역으로 운행되다가 2014년에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이 되었다.

한편 일영역은 2001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장소로 유명하였고, 2017년에는 K-Pop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 4) 문화의 발전

전통적으로 수도의 인근에 자리하며 교류가 활발했던 양주지역은 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전통 놀이인 '양주별산대놀이' 와 '양주소놀이굿' 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양주별산대놀이' 는 양주를 대표하는 놀이이다. 조선 후기 피지배계층의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인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 중심의 경기지방에서 전해져 오는 산대놀이이다.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산대놀이(탈놀이)' 는 중부지방의 탈춤을 통칭하는 말로, 4월 초 파일과 단오·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 그리고 기우제 등을 할 때 놀이패가 탈을 쓰고 하던 공연이다. 양주의 놀이가 '별산대' 이듯 '본산대' 가 있는데, 조선시대 한양의 애오개(현 아현동)·가문돌·사직골 등의 놀이패가 하던 산대놀이를 본산대라고 한다. 예전에 양주지방에서 산대놀이가 열릴 때는 본산대의 하나인 한양 사직골 '딱딱이패' 를 초청했는데, 딱딱이패가 사정이 생겨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많아지자 '이럴 바엔 우리가 해보자' 고 해서 꾸려진 것이 양주별산대 탄생의 배경이라고 한다.

한국 중부지방에는 '산대극'이라는 야외 가면극이 있으니 이 극이 오래전부터 연희되어 내려오던 지방은 서울의 아현·노량진·녹번·고양·구파발·양주 구읍이었다. 가면극은 최근년에 와서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쇠퇴하여 전기 몇



몇 처에서는 연희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는 없게 되었으나 다만 양주 구읍에서만 간신히 그 명맥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팔구십년 전에 아현동에 그 일좌가 있었던 아현 본산대의 흥행을 보고서 이를 본받아 배운 것이다. 아현 본산대는 수십 년 전에 해산하여 버렸는데 아현을 비롯하여 녹번·구파발·노량진산대를 세칭 ‘본산대’라 하고 이 아현 본산대를 본받아 배워간 양주 산대를 ‘별산대’라 부른다. ‘산대가면극 양주구읍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 『경향신문』 1957.6.24.

양주별산대놀이는 원래 유양동 불곡산 아래 사직골에서 열렸는데, 그곳의 사직당에 탈과 놀이도구 등을 보관하였고, 훗날 사직당이 없어진 뒤로는 양주향교에서 공연하였다. 1977년에 전수회관을, 1985년에는 공연장을 지었다. 이후 2001년에 전수회관을 새로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다.

‘양주소놀이굿’은 1980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농사나 사업이 잘되고 자손의 번창을 바라는 ‘경사굿’의 하나로 양주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과거 경기도 양주·파주·연천·고양·장단·포천·시흥, 황해도 연백·봉산·신계·곡산·신금천·평산, 평안남도 평양, 강원도 원주, 서울 왕십리·노량진, 충청북도 진천 등에서 행해졌으나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양주에서만 전승되고 있다. 양주소놀이굿은 노해면(현 도봉·노원구) 출신의 무속인 팽수천에 의해서 양주지역에 전승되었다.

팽수천은 재담도 잘하고 소리도 잘했으며 놀기도 잘했던 인물이다. 무녀와 한 짝이 되어 양주소놀이굿 재담도 확립하고, 소리도 전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그는 광복 이전에 양주 경사굿에서 벌어지는 소놀이굿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1960년대 양주소놀이굿 재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러 연행자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풍년을 기원하는 소」, 『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문화재청, 2009).

양주소놀이굿은 마을 잔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부잣집에서 재수굿(경사굿, 잡안의 형통을 기원하는 굿)을 열 때 사비를 들여 소놀이꾼을 사는데 이들이 마을 놀이꾼들과 어우러져 신명나게 놀기 때문이다. 개인의 굿판이지만 마을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을 인정받아 1980년 11월 17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양주소놀이굿보존회를 창립하여 전승과 보존을 하고 있다. 전수회관은 백석읍 방성리에 있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국가무형문화재 ‘활쏘기’를 수련하는 ‘무호정’은 양주의 대표적인 문화단체이다. 수려한 산수로 인하여 조선시대 연산군 시기부터 양주지역 전역은 국왕의 무예 수련 겸 사냥터로 지정될 정도로 양주지역과 무예 수련의 연관성은 오래되었다. 무호정은 이러한 전통적인 무예 수련의 역사를 이어 1930년부터 시작된 양주지역 군사들의 모임이다.

‘국궁’의 순우리말인 ‘활쏘기’는 다른 국가무형문화재와는 달리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무예’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양주지역에서는 이러한 국가무형문화재인 ‘활쏘기’를 통하여 무예를 수련하는 단체들이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하였다.

1930년대 양주지역의 군사들이 무예 수련을 위해 ‘입암정’이라는 활쏘기 모임을 출범하였다. 이후 1965년 5월 이름을 ‘무호정’으로 변경하였고, 1967년에는 남면 상수리 400번지에 활터에 세우는 정자 ‘사정(射亭)’을 건립했다. 1991년 제7대 사두 백찬기를 중심으로 무호정 군사들이 다시 뜻을 모았고, 1995년 말 양주의 또 다른 군사 모임 신산리 ‘비룡정’과 통합하여 ‘양주정’으로 이름을 개칭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무호정’으로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